

서울 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제2집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 재덕 신부
(成載德 PIERRE SINGER)

서한집

서울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편

편 찬 사

이 책에 실린 여행기록을 포함한 성 신부님의 서한들은 본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창립자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었으나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제 2집으로 나누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가족들에게 쓰신 것인데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신부님이 최초로 프랑스의 신학교를 떠나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박여행과(1935. 9. 13~1935. 11. 1 : 프랑스의 말세이유항에서 떠나 대서양 • 홍콩 • 일본의 시모노세끼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 한국에 계시는 중에 본국에 다녀오신 여행기록, 논산에서 전교하시고 6 • 25 때 피난하신 일, 그리고 홍콩에서의 기록 몇 쪽에 불과합니다.

신부님이 12세의 중학교시절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1922. 1)를 보면 장난꾸러기이고도 진지한 소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아이와 선생님 몰래 이야기를 한다거나 종이 닭을 만들며 놀다가 벌을 받았고 라틴어 시험에서는 affines, affinum(인척)이라고 써야 하는 것을 infanes, infanlum 이라고 잘 못 썼기 때문에 벌점을 받을 것을 예상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의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입니다.

신부님의 사실적이고도 섬세한 표현들은 가끔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음식에 있어서 “김치란 무엇이냐 하면 소금물에 절여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린 생 배추 잎 토막이라고 할까” 라고 정의 하셨습니다.(1947. 5. 27). 6 • 25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야만 했습니다. 논산에 모든 것을 놓아두고 성체만을 다 배령한 다음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에게 피살당하게 될 것이고 신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결국은 사도 바오로 성인이 하신 것처럼 무슨 바구니 속에 숨어서 현대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탈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논산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미사주를 다 마셔 버리지 못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은 너무도 원통한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두 번 식사하고 맨땅에서 잠자곤 합니다.(1950. 7. 22)라고 하셨습니다.

2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파견예식이 있던 날 (1935. 9. 15)자기의 확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슈브르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 신부님은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일하며 고통 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 봉헌하는데 에는 휴식이란 없다” 고 생각하면서 성가대가 불러주는 이별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떠나시오 벗이여 이생에서 우리는 다시는 못 보리니
하느님의 이름을 멀리 전파하여

먼 훗날 우리는 고향에서 다시 만나리니
잘 가시오 형제여, 잘 가시오.

사오의 역할로 충만케 하시오.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그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

이렇게 한국 파견 임명을 받고(25세) 고향을 떠나서 올 때의 그 추억은 극적인 한 폭의 파노라마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논산에서 부산에서 홍산에서 좋고 나쁨을 가릴 새 없이 “정진과 노동 그리고 투쟁”이라는 선교사의 정신 그대로 살려한 신부님의 일생입니다.

3

한국 식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 혀가 헐었습니다. 이것을 성 신부님은 “혀의 가장자리가 제일 상했지만 사방에 온통 작은 백색의 반점과 같은 것이 생겼다가 썩히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돌아나는 그런 궤양 투성이란다. 치료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고 싶지만 별수있니? 특히 몹시 매운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날에는 혀가 더 몹시 아프단다. 이것은 대략 9년 전부터 지속되는 고통이다.” (1947. 5. 27)라고 표현 하셨습니다.

논산에서 성가회까지 기차로 여덟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신부님은 소비녀들 피정지도를 해주셨고, 소비녀회는 점점 발전하여 가고 있으며 입회 신청서가 몇 장 들어왔다는 것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소비녀들은 신부님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연미사를 드리고 9일간 영성체 하였다는 것도 빠트리지 않고 쓰셨습니다. 신부님은 또 성가 소비녀회를 떠날 때 마음이 아주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1949년 5월 15일자 편지에는 “...이 젊은 수녀들은 모든 면으로 잘 성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명의 입회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이미 3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덕에서 9명의 고아와 1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잠실리에서 4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고... 본원에는 25명 정도 사는데 집은 초만원입니다. 수녀들은 검소하고 근면하며 힘 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합니다...” 하셨는가 하면 연대미상의 어느 해에는 “네게 이미 말한바 있지만 순회는 이제 창설 단계에 들어서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어려움이 뒤 따르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는 아직도 수녀회의 초창기 단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 그로인해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지”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설자로서 수녀회에 간섭하지 않아도 좋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부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성가회를 떠나계셨던 기간은 20년입니다. (1949. 5 ~ 1969. 12). 그 것은 신부님의 본의가 아니었기에 성가회를 떠날 때 아주 슬펐다고 쓰셨던 그 속마음은 정작 소비녀회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며 이제는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의식하리만큼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가족, 친지들을 사랑하셨고 우정을 나누셨고 식사와 여행을 즐기셨고 외로워 할 줄도 아셨던 성 신부님은 참으로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열정에 있어서는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논산과 홍산 등지에서 선교사의 기백을 유감없이 발휘하셨고 성가소비녀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현실로 확인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 선종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우셨던 신부님!

이 공소, 저공소로 다니면서 냉담자 회두시키는 일로 그 슬픔을 달래셨던 신부님!

54세 되는 생일이 주일이라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편지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고독했던 신부님!

백동성당에서 성체거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성체거동을 그 곳에서 처음 시작한 당신이 초청받지 못해서 서운하기만 하셨던 신부님!

이웃 본당에 친구 신부가 왔다고 많이많이 좋아 하셨던 신부님!

신부님의 서한들을 읽으면서 신부님과 친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창설자와 회원의 관계는 마치 스승과 제자 사이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녀들의 반세기 삶을 창설자 신부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이 책을 통하여 성가회를 진정 당신의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정을 전 회원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원장 김레오 수녀

차 례

편 찬 사 김정자 레오 수녀 (서울 성가소비녀회 총원장)

일러두기

/번역 정타문

제1부	나의 여행기		
	1935년9월13일-30일	10/178
	1935년 10월 1일- 31일	41/212
	1935년 11월 1일	70/247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1922년 1월 썽 오메르(St. Omer)에 있는 썽베르땡(St. Bertin) 중학교에서	76/252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77/259
	1949년 3월 22일 쌍뿔리옹(Champolion)호 선상에서	80/261
	1949년 3월 27일 홍해 항해 중 쌍뿔리옹(Champolion)호 선상에서	84/253
	1949년 4월 7일 인도양의 슈마트라 앞바다에서	88/266
	1949년 4월 14일 사이공에서	90/257
	1949년 4월 27일 홍콩에서	92/268
	1949년 5월 15일 서울에서	94/270
	1949년 6월 25일 논산에서	97/274
	1949년 8월 3일 논산에서	101/277

1949년 9월 29일	논산에서	105/281
1949년 11월 21일-12월 3일	논산에서	110/286
1950년 3월 17일	논산에서	116/293
1950년 3월 28일	논산에서	119/297
1950년 4월 15일	논산에서	125/303
1950년 6월 16일	논산에서	128/306
1950년 7월 22일	부산에서	133/312
1950년 7월 31일	부산에서	135/341
1950년 8월 24일	부산에서	137/317
	(6월25일~7월 29일)	
1950년 9월 18일	부산에서	150/326
1951년 1월 25일	부산에서	153/330
1952년 12월 16일	논산에서	156/333
연도미상 9월 27일	파리에서	158/337
1955년 12월 28일	논산에서	160/339
1959년 5월 29일	논산에서	162/342
1960년 11월 15일	논산에서	165/346
1964년 9월 12일	홍산에서	168/349
1966년 3월 18일	홍산에서	169/351
1967년 12월 1일	홍산에서	172/354
나의 여행기 원문		358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399
찾아보기		464

일러두기

- 1) 이 책은 창설자 성 재덕(PierreSinger 1910. 9. 13- 1992. 2. 26)신부의 서한집이다.
- 2) 이 책은 성가소비녀회의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성가 소비녀회 역사 자료실’에서 편찬하였다.
- 3) 이 책에 수록된 서한문은 성 신부의 본가에 소장된 편지 중에서 수녀회와 관련된 것만을 뽑아서 번역한 것이다. 대부분이 필사본이나 복사본이어서 판독이 어려웠다. 이를 파리 외방전교회의 배세영 신부가 타자 본을 함께 이 자료집에 수록했다.
- 4) 원문의 외국어나 지명, 인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다 그 해당 표기를 적어두었다. 또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 5) 번역 용어일 경우 세례명, 축일 명, 교회 용어 등은 가능한 한 당시 용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속에 한자나 원어를 밝혀주는 한편 각주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 6) 이 책은 제2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 성 신부가 신품을 받고 한국에서 파견되는 날부터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서한이다. 가족에게 여행기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나의 여행기」란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을 집필 순으로 수록하였다.

제1부 나의 여행기

파리- 서울
1935년 9월 15일에서 11월 1일까지

1935년 9월 13일~ 11월 1일

사랑하는 부모님께 1935년 9월 13일 금요일

부모님께서서는 마치 어제처럼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그 모든 일들이 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그 날은 바로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제 나이 25세가 되는 날이었지요. 저는 우리 신학교 지하성당의 성모 어머니 제단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말가리다와 데드리 사촌 부부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바오로가 복사를 해 주었지요. 선하신 하느님은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작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모님과 저의 희생의 현실적인 상징이 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희생은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희생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니까요. 정오에 우리는 간단한 점심 식탁에 도 모였습니다. 그 식사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일어서며 “이젠 가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당신께서는 “하느님께서 제가 25년간을 우리와 살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불평할 권리조차 없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출발할 준비가 되자 저는 부모님께로 다가가서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를 포옹해 주시면서 저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은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떠날 순 없잖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다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서는 즉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그리고 외출중인 가족들에게 사제로서의 강복을 주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축복이 임하시고 영원히 머무르소서.” 이렇게 말하고 난후 나는 출발하였습니다. 라 그랑드 아르메 가(街)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움직임이 있을 뿐 방금 일어난 일들을 알아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느님 그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코니에 기대어 저를 보고 계시는 두 분이 보였습니다. 더 멀리 제가 부모님의 사야에서 사라지려 했을 때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들은 그 곳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내가 신학생 시절 내내 그토록 꿈꾸어 왔던 그 날, 즉 출발의 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지하성당 제대에서 미사를 드렸다. 바오로가 복사를 맡았다. 막달레나와 말가리다, 그리고 친구들이 미사에 참석했다. 대미사에서 ‘파견 선교사’ 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치렀다. 미사 후 친구 몇 명이 친절하게도 나에게 인사하러 왔다. 그러나 원장 신부님께서 ‘파견 선교사’ 들을 방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즉시 되돌려 보내야 했다. 원장 신부님의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권한 부여장(임명장)을 받고 포교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성교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서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 주셨고 뒤발(Duval) 신부를 배의 책임자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신학교 지도 신부님들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 분들이야 말로 우리를 사제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 분들의 생활과 성부로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었다. 얼마나 큰 신앙과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으로 그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

12 제1부 나의 여행기

가 반시간 동안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신학교의 오랜 전통이었다. 재학생들이 출발자들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동시에 강복을 받기도 하며 때론 온정을 나누기도 한다.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별식에는 즐거운 우정의 빛이 담겨 있다. 어떤 동료들은 “빨리 떠나시오. 그래야 우리 차례가 곧 돌아 올 테니까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행복한 날을 맞이하기엔 아직 5-7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후배들은 그토록 젊은 나이에 영예로운 순교에 다가선 것처럼 보이는 선배들을 감탄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어쨌든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행운아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출발 당일에 울적해 있는 파견 선교사가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송별식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1시 45분 종소리가 우리를 불렀다. ‘양심성찰’ 을 위한 15분간의 기도였다.

마테오 복음 10장이 낭독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견할 때에 사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잠언도 읽어주었다.

오찬이 마리고 후식 시간이 되자 ‘파견 선교사’ 들은 포도주 잔을 들고 모든 신부님들과 또 후배들에게 가서 잔을 부딪쳤다. 이로 인해 소박한 예식은 다시 한 번 즐겁고 가족적인 가잔 순수한 분위기를 띠우는 것이다.

오찬이 끝나자 아실르 삼존과 자크, 안나-마리, 말가리다, 리제트, 마들렌느가 왔다. 밖에는 비가 억수로 퍼붓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응접실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지난날들에 대해서, 또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딩(Hesdin) 본당의 보좌 신부도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 보곤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정시에 오겠다고 분명 약속했지만 결국 의식이 시작된 후에 온 것이다.

2시 45분에 종소리가 울렸다. 비가 내리므로 정원에 있는 순교자의 성모 어머니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 없기에 양심성찰실로 들어가 그 안의 성모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바크(Bac)가(街)¹⁾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신학생 시절 즐겨 꽃으로 꾸며 드린 그 성모님 앞에서.

1)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가 있는 거리 이름.

우리 옆에는 한 어린아이가 초를 들고 있었다. 그 초위에는 파견선교사들의 이름과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초들은 지정된 어느 날까지 타오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성모상 앞에 다음번 파견자들의 초가 꽃히는 날까지.

우리들은 “바다의 별이신 성 마리아여(아베마리아 스텔라)” 를 불렀다. 그리고 봉헌식이 끝난 후 즐겁게 “마니피캣(Manificat)”을 불렀다. 간단히 예식을 마친 후에 우리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곧 성당 안은 초만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 채로 참석해야만 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안 됐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예식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한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신앙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엄숙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밝혀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곤은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애원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예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베니끄레아 또르(주께서 오시도다)” 라는 노래를 조용히, 그리고 힘 있게 불렀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 물론 파견 선교사들은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다. 서 있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 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데에는 휴식이란 없다. 사랑이신 그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 방지거 사베리오 성당의 슈브로 본당 신부께서 마침내 제단 위로 오르시어 우리에게 성도 전 말씀을 설교하시며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그렇다. 비록 사도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뒤따른 다해도 언어와 습관과 물이해와 박해와 고독이 있다 해도 “오! 나의 하느님, 오! 나의 성모 어머니시여, 나의 젊을 약동케 하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4 제1부 나의 여행기

훈화가 끝나고 “파견 선교사” 들은 제대 맨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참석 객들과 마주섰다. 그리하여 대사제들과 스승들과 부모와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긴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성가대는 노래를 불렀다.

“떠나시오 벗이여 이생애에서 우리는 다시는 못 보리니.

하느님이 이름을 멀리 전파하여

먼 훗날 우리는 고향에서 다시 만나리니

잘 가시오 형제여, 잘 가시오

사도의 역할로 충만케 하시오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서

그 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

그리고 나서 “평화를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성경 구절을 응송 하였다.

그 순간 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저들에게 신앙이 없었던들 내 발 아래 입맞춤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나의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내가 언제까지나 이 소명에 합당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해보았다. 선교사로서의 소명은 하나님의 크나큰 무사의 은총이며 그분의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존재인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이제 나는 사도 바오로처럼 “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돌아오리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15

나는 애정을 다하여 아실 삼촌과 야곱, 폴, 베르노 신부님을 포옹했다. 가족석 첫줄에 누이들이 눈에 띄었다. 리제트는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작별 인사가 끝난 후 성체강복이 있었다. 그동안 “파견 선교사”들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포교를 원칙으로 하는 외방전교회에 입회함으로써 비록 우리의 임지는 각각 다를 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생활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참다운 투쟁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던 바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문을 드렸다. 성체강복 후 나는 고향분¹⁾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에게 순교자 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했으므로 그들과 폴, 리제트와도 작별을 고해야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하소서!

누이들, 삼촌, 조카, 친구들이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녁에 리옹역으로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야곱과 얼마간 남아 있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리고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갔다.

나의 벗 야곱! 자네는 좀 울적해 보였네만 떠나야 하는 나의 소명이 아름다운 것처럼 나를 보내 주는 자네의 역할 또한 아름다운 것임을 왜 모르는가!

7시 30분에 우리들은 구내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랜 전통”에 따라 “파견 선교사” 들에게는 감자튀김과 홍차가 나왔다. 그것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은 ‘조만간’ 이 같은 식사를 대접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들은 성당으로 들어갔다. (지나는 길에 들러 나는 슴 외투와 모자, 가방을 들고 나왔다.)우리는 출발 차림을 하고 수도원 앞에 모여 ‘길 떠나는 자를 위한 기도’ 를 암송했다.

16 제1부 나의 여행기

이 기도가 이토록 감미로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진실로 성교회는 파견 사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문을 만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죄를

1) 프랑스 북쪽 헤딩(Hesdin)이란 마을이 성 신부의 고향이다.

용서 받고 구원 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하느님께 “그 분의 종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조자가 되어 주시고 또 위안이 되어 주시어 우리가 바라는 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소서” 라고 청했다. 이미 오래 전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네 고향, 네 가족, 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일러 주는 고향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속에 떠나라’ 라는 마지막 구절을 절대평화와 무한한 신뢰 속에서 암송하였다. 그리고 나서 살베 레지나(성모 마리아 찬양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복되신 성모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빚졌던가! 성모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까?

우리는 성당에서 나왔다. 벌써 짐 가방을 다 실은 버스가 성당 앞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제들과 신학생들, 교우들 그리고 열심인 여교우들(그녀들이야말로 이토록 감동적인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 나는 원장 신부님과 다른 사제들에게 전중하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사방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내민 손들이 뒤엉키는 그 속에서 나는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야곱과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성당 마당에서 나오려 후진을 하자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외쳤다. “멈춰요! 7년이면 족하잖아요.”

17

나는 차창 밖으로 손수건을 흔들며 동료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러나 버스가 길을 돌아나가자 그들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고 곧 신학교도 사라졌다. 내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던 곳,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배웠던 곳, 그리고 내가 그토록 행복했던 곳,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있으므로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했었던 곳, 그 정든 신학교가 사라져 갔다.

파리의 주일 밤 풍경은 조용했다. 상점들의 조명은 거의 꺼져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라고는 가스등 빛과 이따금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뿐이었다.

그러나 세느강 옆을 지나며 왼쪽으로 밝게 조명되어 있는 노트담 대성당이 보였다.

프랑스의 저 역사 깊은 성당은 젊은 파견 선교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 성당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도 했다. 그 오래된 석조 건물은 우리에게 그 성당의 유서 깊은 역사를,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일했던 수많은 성자들의 모범을 환기 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성당은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도 선조에 의함 하는 훌륭한 아들들이 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파견지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담은 대 성당을 가질 수 있을까!

리용역에 닿자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플랫폼에서 우리는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 시르¹⁾ 사관 복 차림의 사촌 앙드레까지 와 주어 더욱 기쁜 시간을 가졌다.

1) Saont-Cyr 프랑스의 사관학교.

그러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이제는 정말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다. 작별식은 아주 간단하게 치러졌다. 다른 여행객들에게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를 플랫폼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행객들은 경외심을 표하는 이 작은 행위에 의아해 했다) 나는 그들에게 강복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를 포옹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도 신

18 제1부 나의 여행기

부님들과 악수를 나누었고(그 분들 역시 감격해 있었다), 전송 나온 동료들과도 악수를 나누었다. 기차 승강구에 서서 나는 또 얼마간 말을 나눌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그 때를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었던 그 순간에 우리 양 쪽 다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적 소리가 울리고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우리는 재빨리 악수를 나누었고 야곱은 기차가 저만치 빠져 나갈 때까지 뛰어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들을 바라보았으나 기차가 곧 선회하자, 플랫폼 위에 그대로 서서 기차 승강구에서 머리를 내밀고 손수건을 흔들며 인사를 보내는 15명의 새 선교사들을 태우고 멀어져 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던 친지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주여!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번엔 진짜 떠나는가보군.”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내 부관이 하던 말이 있지. 장담은 금물이라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긴 여행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여야 했으므로 목주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에야 말로 목주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암송했다. 그러나 성모 어머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들 중 그 누구라고 잡념에 빠지지 않고 성모송의 절반이라도 암송할 수 있었던 가요! 우리들 모두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그러나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으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목주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이는 파이프 담배를, 또 다른 이는 쥘련을 피웠다. 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갈망해 온 ‘합법적인 행위’ 던가.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학생이 아닌 진정한 사제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며 담화를 나누는 동안에 방지거

신부는 여전히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아주 불안한 태도로 문간에 기대어선 채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손수건을 흔들며 외쳐 댔는데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돌려 주었다. 그는 기차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지 한 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던 것이다. 비록 순식간이었으나 어쨌든 그는 다시 한 번 가족을 보는 즐거움을 가졌던 것이다. 애뜻한 이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한 평생 또한 이와 같이 순식간의 일이 아닐까?

우리가 타고 있던 칸은 우리들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행객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직자의 체면을 염려할 필요도 없이 온갖 종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기분전환을 위해서라

도 마음껏 웃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합창했다. 블롱도 신부가 ‘파이프 담배’ 노래를 했을 때 우리는 두 행마다 ‘파이프 담배’ 라고 후렴구를 반복 합창했다. 기타(Guittat) 신부는 ‘목마’ 를 불렀고, 나는 ‘말가리다는 감자튀김을 잘 한다네’ 를 불렀다. 실로 아주 정겨운 저녁이었다. 그리고 동료들은 차례차례로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 물러갔고 나 역시 그래야만 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는 애써 잠을 청해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우리 선교사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에 불과하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신경조직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기차 안에서 잠자리란 여간 불편하지 않음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9월 16일 월요일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이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한 기타 신부가 새벽 3시에 기지개를 펴면서 짓궂게 “아. 잘 잤다.” 했다. 물론 그의 이 외침에 잠시 잠이 들었던 동료들도 모두 잠이 깨었다. 신학교 시절 그는 ‘베개’ 로 통했다. 즉 그는 “기상” 신호였던 것이다.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잠을 청하는 사람을 없었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복도를 서성거리거

20 제1부 나의 여행기

나하였다. 책임 신부님께서 그 날 아침미사는 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수녀님들이 준비해 준 음식 보따리를 풀어 새벽 4시30분에 제대로 식사를 했다. 햄, 치즈, 빵, 포도주가 구비된 완벽한 식사였다. 나는 어머니께서 전날 구워 주신 과자를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 모양새는 없었지만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새벽 4시30분, 리용에 도착했다. 라페 신부의 부모님은 그를 보자 무릎을 꿇었고 신부는 강복한 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분 후 기차는 다시 출발하여야 했고 그는 다시 한 번 부모님을 축복해 드렸다. 그의 아버지는 손수 승강구 문을 닫아 주시며 “애야, 여행 잘 하거라.” 하셨다. 그러나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으셨다. 우리는 신학용어로 ‘용덕(勇德)’ 이라 칭하는 성령의 은총을 현시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실로 감명 깊은 장면이었다. 어떤 여행객은 우리에게 직접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일분에 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페 신부는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생 시절 건강 문제로 학교를 잠시 떠나야 했었으나 하느님께서 결국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소명을 이루도록 해 주신 것이다.

다시 기차가 출발하자 우리는 각자 명상과 성무일과를 바치는 성 신간을 가졌다.

6시19분 우리는 발랑스(Valence) 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여러 교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는 겨우 3분간 정차했으므로 우리는 기차에서 내려 뜨거운 커피와 초코렛이 담긴 병과 과일, 과자 꾸러미를 받았다.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신앙심이 돈독한 남녀 교우들에게 강복까지 주었다. 발랑스에서는 아비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신앙심이 돈독한 교우들이 이런 애공을 해 왔다.

기차가 발랑스 역을 벗어나자 우리는 받아온 음식들을 먹었다. 그 때 방지거 신부는 또 다시 승강구에 서서 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을 가리키며 “저기를 좀 봐요, 아르데쉬 지방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요!” 를 연발했다. 우리가 “볼 품 없는 고장” 이라고 대꾸했지만

그는 우리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가 외쳤다. “여기가 비비에요. 저 건물이 신학교죠. 왼쪽 창이 내 방이었고, 저기가 성당이죠…” 그는 고향을 다시 바라보며 지난 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8시경 교황성(Cateau des papes)이 시야에 들어 왔고 그것은 곧 아비뇽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곳 교우들이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 번째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엔 플랫폼 위에 식탁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 옆 또 다른 탁자 위에는 우표가 붙여 있는 엽서들과 연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몇 자 적어 보낼 수 있었다. 기차에 다시 오르면서 우리들은 그 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 분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제들에게 선물을 베푼 것이다. 우리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부인들을 축복해 주었다.

다시금 남 프랑스의 전경이 우리 시야로 펼쳐졌다. 왼쪽으로는 종종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작은 산들이 보였고 오른쪽에는 온통 햇빛 속에 잠겨 있는 론(Rhon)가위 계곡이 보였다. 론 강은 적지 않게 나를 실망시켰다. 사실 ‘대단한’ 강일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강은 자그마한 섬들이 산재해 있는 마치 잠들어 있는 듯한 평범하고 메말라 보이기까지 한 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니 가끔은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마리우스의 고향 타라스콩(Tarascon)을 지나자 오메르 성인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아름다운 종탑의 도시’인 아를르가 보였다. 과연 나무들은 지독한 미스트랄 남풍으로 인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베르(Berre) 호수는 저 그림 같은 호수 연안과 질푸른 빛깔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여러 대의 수상 비행기가 그 위를 비행했다. 그리고 마로와 같은 굴과 고가교를 지나 드디어 부이야베스¹⁾ 요리와 그 특유의 역양으로 유명한 마르세이유항에 도착했다. 대표부 신

22 제1부 나의 여행기

부가 플랫폼까지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짐꾼들이 우리의 짐 가방들을 보고 달려들었다. 우리는 포도주 한 병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던 차에 우리들 중 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 냈다. 즉 그것은 운전기사에게 선물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운전기사에게 가져다주었더니 그 기사는 이 뜻하지 않은 횡재에 말문이 막히는 듯 아주 기뻐하며 그것을 받았다.

역을 빠져나오자 두 대의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짐을 어찌나 많이 실었던지 대표부로 향하는 버스는 운전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술 취한 듯 휘청’ 거렸고 회전할 때마다 차의 앞 뒤가 심하게 흔들렸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표부에 도착했다. 대표부는 외방 전교회의 본부와 같은 것으로서 선교사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에 그 위치를 두고 있으며 대표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 사업을 돕는 것이다. 즉 대표부에서는 선교 사업의 물질적인 문제들을 돌보며 지친 선교사들에게는 선박을 갈아타는

1) 남프랑스식 생선스프

일과 세관 문제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 사실 나는 긴 여행 기간을 통해서 대표부 사제들의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다분히 물질적인 업무이고 보니 개척 선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그 일을 ‘씻가루형을 언도 받은’ 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느 것에서건 그들은 초성적인 자비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에 실로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사이공에서의 일인데 한 신부가 봉사를 요청하자 대표부 사제는 식사를 하다 말고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항구로 갔다. 그는 조금도 귀찮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표부에 도착하자 우리는 식사하기에 앞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간단히 세수를 했다. 그리고 오후엔 대부분이 오수를 즐기거나 혹은 고향 집으로 긴 편지를 썼다.

23

9월 17일 화요일

아침식사 후 우리는 우선 ‘스핑크스’ 호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우리는 마르세이유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인 ‘라 칸느비에르(La Cannebiere)’를 거쳐 구 항구로 갔다. 거기서 작은 배 한 척을 골라잡았다. 얼마 동안 배 샅을 놓고 실랑이를 한 끝에 40프랑으로 결정되었다. 반시간 후에 우리는 신 항구에 닿았고 거기에는 멋진 ‘스핑크스’ 호가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배 안을 구경했다. 지금이야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이공까지 가면서 찍은 사진들 중 상당수가 실패작이었다. 왜냐하면 우선 나는 사진기를 다루는데 서툴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사진들을 배 위에서 현상했는데 배안의 더운 물은 좋은 작품을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박을 둘러본 후 우리는 대표부로 돌아왔다. 오후엔 각자 마지막 쇼핑을 하고 시내구경을 했다.

나는 마르세이유에 관한 한 훌륭한 고적 따위의 추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단지 지저분한 도시이며, 오후3시가 넘도록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은 채 놔 두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기억에 남을 뿐이다.

9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노트담 드 라 가르드 대성당으로 가서 야곱과 쥘비에브를 위해 미사를 드렸다. 두 항구를 굽어보고 있는 노트담 드 라 가르드 사원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곳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원에 이르기까지는 대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밟으며 참고 걸어야 했다.

오후에 토크뵈프 신부가 그의 사촌 댁으로 초대했다. 그의 사촌은 우리를 차에 태워 아주 쾌적한 산보를 시켜주었다. 15km에 이르는 코르니슈 도로는 바다를 끼고 펼쳐져 있어 오른쪽으로는 수많은 작은 돌섬들이 박혀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었고 왼쪽으로는 나무와 빌라들이 서 있는 높은 산들이 보였다.

저녁에 귀가한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자연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24 제1부 나의 여행기

9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 출발하자 모두는 노트담 성당으로 갔다. 마르세이유 사람들이 ‘자비하신 어머니’ 라고 부르는 성모 어머니께 우리의 긴 여행길을 보살피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다. 미사 후 성체강복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모자와 긴 의자를 포함해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더 샀다.

12시30분, 영구차 한 대가 우리를 태우러 왔다. 마르세이유에서 장의사를 경영하고 있는 블롱도 신부의 사촌이 그 차를 대여해 준 것이다.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산길을 가로질러 생뜨보르까지 이르는 아주 멋진 소풍을 했다. 그곳은 매우 높고 고적한 장소였으며 예수 승천 후 나자로와 마르다 그리고 막달레나가 은둔 생활을 했다고 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 한가운데 동 굴이 있었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였다. 표지판에는 동굴까지 걸어서 1시간20분 걸리는 거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파견 선교사들의 걸음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겨우 20여분 남짓 걸려 동굴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꼭대기에 이르러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아름다운 전망을 내려다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마르세이유로 돌아올 때는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 역시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할 다정한 프랑스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9월 20일 금요일

하느님께서 오래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날이 온 것이다. 오늘 나는 프랑스를 떠나는 것이다. 미사를 본 후 아침 식사 때 대표부 사제는 모든 짐 가방을 내려와 꼬리표를 붙이고 끈으로 묶으라고 일러 주었다. 잠시 후 신문을 읽은 신부는 마침 9월 20일은 마르세이유의 모든 유조선박업자들이 파업일로 정해 놓은 날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과연 오늘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대표부 신부는 혹시나 해서 수녀들에게 우리 침대를 치우지 말라고 당부해놓았다. 이 작은 사건은

25

파견선교사들 개개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파업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배를 타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몹시 초조해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파이프 담배를 꺼내 물면서 “하루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아무려면 어떻소.” 하고 돌처럼 무감각함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8시30분, 작은 트럭이 두 번에 걸쳐 우리 짐 가방을 실어 날랐다. 다른 신부들이 배에 짐 싣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나는 대표부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았다. 11시에 나는 마르세이유 한 본당의 보좌 신부로 있는 구앵 신부를 방문했다.

정오에 우리는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오찬을 들었다. 베란다 아래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결코 익숙하지 않았던 상대한 식탁을 보고 황홀한 나머지 입 안에는 어느새 군침마저

돌았다. 그야말로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고 자리마다에는 여러 개의 잔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사제들을 위해 봉사하는 노(Nau)가(街)에 있는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우리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려 했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별의 순간이니 만큼 필연적인 슬픈 감정을 잊게 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인지 하여튼 대단한 식탁이었다. 오찬이 끝나자 우리는 물론 파이프 담배를 즐겼다. 그리고 성당 종소리와 함께 모두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배의 책임 사제인 뒤발 신부가 성체강복을 했고 파견자 모드가 성가를 불렀다. 우리를 파견해 준 교황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는 마지막 짐을 챙기러 갔다. 밖에는 두 대의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버스가 마르세이유 시내를 벗어나는 동안 어떤 이들은 성무일과를 바쳤고 유난히 흥분되어 있던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고했다. 행인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으나 짐 가방들과 턱 수염의 젊은이들을 보고는 금세 알아차렸다는 듯이 공감 어린 표정으로 대답을 보냈다. 부두에 도착하자 우리들 각자는 짐을 선실에 올려다 놓고 다시 부두로 내려 왔다. 대표부 신부에게 감사를 포함과 더불어 작별 인사를 드렸으며 배웅 나온 동료들의 친지, 친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다시 배위로 올라오자(그 때가 3시 경이었는데)모두는 갑판 위로 올라가 부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26 제1부 나의 여행기

그곳에 나와 계신 파견 선교사들의 부모들은 바로 같은 희생에 묶여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한 동료의 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에게 강복을 주시고 부드러운 모정의 눈길을 아들에게서 떼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얼마나 그윽한 시선이던가! 만일 나의 어머니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어머니 역시 그와 같은 시선을 보내셨으리라. 이런 와중에도 선박 위 아래로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배는 4시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시30분이 되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은근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배가 출항하기 싫은 모양이니 다른 배를 탑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5시15분경에 드디어 두 대의 예선이 도착했고 우리와 고국 땅 프랑스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인 사닥다리가 제거되었다. ‘스핑크스’ 호가 사이렌을 울리자 두 예선이 응수했고 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두로부터 멀어져 갔다. 전 승객들이 손을 흔들었다.

배가 부두에서 몇 미터 멀어지자 우리는 함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강복을 주었고 아베 마리아 스텔라를 불렀다. 그리고 이어서 외방전교회 노래를 불렀다.

‘보소서, 성모 마리아여!

명량한 아들들이 어머니를 섬기러 당신 발아래 모였습니다.

부모와 친구, 조국을 떠나와

마지막 숨까지 어머니께 바치리니’

얼마 후 부두 위의 사람들이 아련하게 보일 뿐이었으나 우리 모두는 마르세이유의 가르드 노트담 사원을 향한 채 난간에 그대로 붙어서 있었다.

마르세이유 항구를 떠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작은 시련을 보내시려 했는지 나에게 쓰라림을 맛보게 하셨다. 그 때 여덟 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는 작은 배가 우리 곁으로 지나갔다. 그 배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나칠 때 배 안의 사람들은

우리 젊은 사제들을 보자 드러내놓고 비웃음을 보냈다. 그것이 우리가 본 프랑스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가련한 사람들!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프로방스 지방의 해안이 황홀하게 나의 시야에서 펼쳐졌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도드라지도록 선명한 해안선, 가파른 절벽들이 부드러운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왼편 저 멀리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6시30분 종소리가 울렸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내려가야 했다. 우리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다시 갑판 위로 올라갔다. 수호자인 성모 노트담 성모 어머니가 여전히 두 개의 암초 사이로 보였다. 붉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는 고국의 해안들은 이제 점점 밤의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서 깊은 파도 물결위로 서서히, 그리고 장엄하게 움직이고 있는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만 겨우 식별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우리는 마리아의 프란치스코회 파견 수녀들과 함께 프랑스의 성모 어머니께 기도를 바쳤다. 여행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우리는 그 날 저녁 시산의 고요함 속에서 성모님을 찬송했다.

“ 항해자를 축복하시는 별이여,
나의 배를 인도 하소서
폭풍우 속에서 나의 배를 지켜 주소서
아침에 뜨는 흰 별이여!”

엔진 소리와 선실의 숨 막힐 듯한 더위,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와 한 방 동료인 라페 신부는 토크뵈프 신부와 잠을 청하러 갑판 위로 나갔다가 새벽 1시에 온 몸이 습기에 젖어 돌아오고야 말았다.

9월 21일 토요일

4시50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내 선실은 4×2.5미터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 손을 뻗으면 손이 쉽사리 천정에 닿을 성 싶었다. 한가운데에 문이 있고 왼쪽으로 침대 두

28 제1부 나의 여행기

개가 상하로 놓여 있으며 오른쪽에 또 사나의 침대와 현창이 있고, 문 정면으로는 두 개의 세면대와 큰 거울이 있었다. 천정에 선풍기 한 대가 달려 있고 마룻바닥에는 3개의 아주 작은 야간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침대 옆 벽에는 그물 선반이 걸쳐 있었다. 한 방 동료인 라페 신부와 토크뵈프 신부 그리고 나는 아래층 두 개위 침대 밑에다 우리 가방을 넣어 두었다. 그리고 벽 위에 십자가를 걸고 성모 마리아의 상을 걸었다. 나는 위층 갑판 위로 올라갔다. 거기에서는 선원들이 몸을 씻고 있었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 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첫눈에 들어오는 코르시카 섬과 섬 내륙의 가파른 산들은 처음엔 냉정한 배웅과도 같이 차갑게 나를 맞았다. 그러나 그 위로 태양이 떠오르자 후광은 곧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주변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했다. 이 광경 앞에 서 있노라니 성경 한 구절이 절로 떠올랐다 ‘오. 주님이 창조하신 언덕과 산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이여! 어둠이여 주님을 찬양 하여라!’

선실로 돌아온 나는 토크뵈프 신부와 휴대용 제대를 펼쳐 두 세면대 위에 마련했다. 우리가 탄 이 큰 배도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와도 같은 것이니 이 세상을 받치고 계시는 강하신 주님께서는 이 배가 항해하는 동안 두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 주셨다. 감미로운 이 시간이여! 선교사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함과 같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가서 기도서를 읽었다. 오늘은 사도 성 마리아의 축일이었다. 파리와 아리스(Arras)신학교에서는 동료들의 서품식이 있다.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쏟아 붓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은총에 보답하는 이는 얼마나 적은가.

오전 내내 나는 코르시카 섬을 관조하며 공상에 잠겼다. 코르시카 섬은 그 앞을 항해하는 우리 프랑스인들 앞에서 뿔내듯이 아침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굽힐 줄 모르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반면 사르디니아

29

섬은 마치 정숙한 아가씨처럼 차가운 자태를 고수하려는 듯했다. 드러내지 않고 언뜻 비추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가 보다는 추측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선 또 다시 거대한 푸르름이 우리를 에워쌌다.

11시에 종소리가 울렸고 나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참으로 잘 짜여진 식단이였다.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참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멋진 차림의 보이들은 아침이나 하듯이 깎듯 하게 식사를 날라 주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안내서 한 장씩을 배부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탑승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4시30분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이 있음을 안내했다.

나는 오후 시간을 긴 의자 위에서 보냈다. 배 위에서는 끊임없이 줄음이 오는 것이 이상도 하였다. 만일 오는 줄음에 나를 맡겨버린다면 잠 속에 빠져 언제까지라고 있을 수 있리라.

4시30분, 한 차례의 긴 사이렌 소리에 이터 여섯 차례의 짧은 사이렌 소리로 비상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각자 황급히 선실로 뛰어 들어다 먼지에 덮여 있는 구명대를 찾았다. 구명대에 붙어 있는 지시문을 서둘러 읽으며 착용하고는 지기된 훈련장소로 향했다. 갑판 위에는 한 장교가 파선의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훈시를 했다. 특히 당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점호가 있을 후 모두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저녁식사를 한 후 성모 어머니께 기도를 바쳤고(이는 우리의 매일 저녁 행사였다) 파이프 담배를 핀 후 잠자리에 들었다 정오에 항해 여정 표시가 게시판에 붙었다는 것을 잊을 뻔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다.

『북위 41°6' 경도 10°06'

마르세이유로부터 항해해 온 거리 260마일

포르트 사이드까지 남은 거리 1,280마일』

30 제1부 나의 여행기

9월 22일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 어제와 같은 일정이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나는 미사를 드리면서 내내 현창으로 보이는 황홀한 광경에 팔려 미사에 집중하지 못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갔다. 우리의 정면에는 리파리군도가 보였다. 바다 한 가운데 웅장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솟아 있는 이 화산섬들은 하나씩 혹은 쌍쌍이 붙어서 마주 보며 서로 미소를 나누고 있는 듯 하여 마치 숨막꼭질 하는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얼른 감추어 버리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리고 거대한 스트롬볼리 화산도가 이 모든 유희를 어진 눈으로 굽어보고 있었다.

어제 공고된 바대로 음악 홀에서 미사가 있었다. 8시30분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많은 미사 참여자들이 우리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미사 책과 목주를 갖고 와 다 같이 성가를 불렀다. 미사 후 우리의 선박은 메스해협으로 들어섰다. 왼쪽으로는 아페닌(이태리 산맥) 산맥의 온통 푸른 산들이 가파르게 솟아 있었고 그 밑으로 차도와 철도가 겨우 하나 지나갈 만큼의 도로가 나 있었다. 더러는 꽤 커다란 공간이 있어서 레지와 같은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 반면 오른쪽으로는 비교적 평지를 이루며 넓은 모래사장이 깔린 시실리 섬이 점층적으로 이리저리 단층을 형성하며 상당한 고도에까지 이르러서 아주 먼 거리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하얀 집들이 들어선 메스 도시는 해안을 따라 길게 전개되었다. 해협에서 우리는 이태리 배 두 척을 만나 서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스핑크스’ 호는 남동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날씨가 맑았으므로 멀리 남서쪽으로 에트나 산과 흰 산봉우리도 볼 수 있었다. 왼편으로는 칼라브리아의 불규칙하게 솟아 있는 거대한 바위들 위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흰색, 누런색, 혹은 잿빛을 띠며 한꺼번에 어우러졌다. 나는 암벽의 단면들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곧 아드리아 해협에 들어서자마자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우리 선박을 요동케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여행객들이 불안해 하였다. 이 하루는 울적하게 마감하였고, 물고기들이 안식처를 찾느라 어수선하게 뛰어오르는 것을 보였고 바다 갈매기 몇 마리가 우리 선박 뒤를 쫓았다. 그리고 망망한 대해 위로 밤이 다시 찾아왔다.

9월 23일 월요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음. 여전히 배는 약간씩 요동을 쳤으나 나는 안정을 찾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긴 위치에 누워 지냈다. 아침엔 덩치가 큰 돌고래 한 떼를 보았다. 그리고 가련한 바다 메추라기 한 마리가 배를 따르고 있는 것도 보았으나 그 가련한 바다 새는 바다 위로 지쳐 떨어지고 말았다. 오후가 되자 우측으로부터 멀리 크레타 섬의 높은 정상들을 볼 수 있었다.

파리의 보자르 미술학교의 건축기사라는 한 그리스 여행객은 그 섬에는 바보들만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가도 바오로께서는 일찍이 크레타 섬 사람들을 “돼지 뱃속” 같은 족속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너무 먼 거리에 있었고 또 긴 의자 위에 누워 있노라니 달콤한 잠에 곧 빠졌기 때문이다.

9월 24일 화요일

나는 원기를 회복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족들에게 긴 편지도 쓸 수 있었다. 나는 긴 편지를 쓰느라 거의 만나질을 보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도 찍었다. 오후에는 한 프랑스인 여행객과 사귄 수 있었다. 사실 이미 얼마 전부터 나는 그에게 말을 붙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와 그의 가족은 지난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가 바로 옆에 사제와 나란히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생애에 아주 드문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니 따라서 그에게 말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게다가 한 영혼이 사제를 만나서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32 제1부 나의 여행기

몇 마디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이집트 모 고등학교의 교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종교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쪽은 바로 그였다. 그는 다소 종교적 제반 문제에 봉착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 사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형제애와 특히 우리의 명랑함을 가까이 관찰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모양이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본질적인 영적 존재이며 동시에 초이성적 존재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잠시 후, 그는 또 “각기 다른 기후, 풍속, 교육 등이 여러 가지의 다른 종교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왔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가 고등사범학교에서 배운 칸트 이론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그에게 해준 답변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며 또한 분명 그에게 작용하고 있었을 그 은총에 나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저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저녁 식사와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우측 선상으로 나가 멀리 보이는 몇 점의 빛을 보았다. 다미에트섬인 듯했다. 그 때 한 기품 있는 신사가 나에게 다가와 그의 여행에 관해서, 사업에 관하여 그리고 선교사의 소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난간 위에 팔을 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만남들은 내 마음을 충만케 한다.

나는 달콤한 잠을 이루었다.

9월 25일 수요일 포르트 사이드 기항지

4시경 요란한 소음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예언선 몇 척이 바다에까지 와서 우리 선박을 항구로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기상하여 아침 미사를 마친 후 갑판 위로 나갔다. 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볼거리였다. 선박 뒤편으로는 포르트 사이드의 마을과 운하가 보였다. 그 운하에는 각국에서 모여든 온갖 종류의 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근사란 대형 선박4에서부터 지저분하고 불품없는 수많은 조각배들과 그리고 견고하고 웅장한 철갑선부터 시커먼 화물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우리의 ‘스핑크스’ 호는 주위의 조각배들과 모터 보우트들에 의해 그야말로 포위당한 상태였다.

주위는 소음투성이었다. 사람들의 외침, 무질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서로 서로 다투는 소리 등 동양적인 풍속음인 것이다. 끊이지 않는 모터 보우트들의 크락슨 소리, 인부를 물러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는 여행객들, 소형 선박들의 주문에 따라 작은 짐들을 내려놓고 다시 올리곤 하는 기중기들, 때론 그것들을 물속이나 부두가에 떨어뜨리곤 하지만 이미 대 혼잡 속에서 소음이 컸으므로 그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해 이 모든 광경은 호기심 가는 구경거리였다. 우리들 중 몇 명은 오디구 신부를 만나러 온 친구 플레멜 형제의 안내를 받아 포오트 사이드 항구를 구경하기로 결심하고 배에서 내렸다. 그러나 우리 일행의 대부분은 수하물 보관소 세관원의 꼼꼼한 조사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우리는 함께 해안 경비소의 초계정으로 내려 갈 수 있었다. 초계정의 출발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몇 명의 가련한 아랍 아리들을 보았다. 그 아이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가냘팠는데 우리에게 몰려 와서 소리를 질렀다. “자비를! 아름다운 부인! 자비를!” 마음씨 좋은 여행객이 몇 푼돈을 주었다.(내가 ‘개’에 비유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사실 어떤 고약한 이들은 돈을 던져 주는 척 만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서로 돈을 갖겠다고 다툰 때는 정말이지 그 중 하나가 물에 빠져 죽거나 맞아 죽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포오트 사이드에 이르자,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한 쪽의 창문도 없는 전형적인 동양적 색채를 띤 성당이였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다. 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나서 착한 목자 수녀회의 수도원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올해 초에 파견되어 간 한 젊은 사제의 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우리의 방문을 받으면 그녀가 얼마나 반가워(와) 할까 하며 우리가 더 들떠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한 달 전에 그곳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수녀는 우리를 친절히 맞아 주었고 시원한 백주까지

34 제1부 나의 여행기

대접하며 더위를 식혀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녀원 사업을 구경시켜 주었다. 고아원의 어린 소녀들이 만든 자수품들 앞에서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는 다 같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원아들이 벼를 탈곡하는 것도 보았다. 그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 곳을 나와 우리는 물건을 사러 나갔다. 포오트 사이드 항구는 과연 자우가 넘치는 항구도 시였으며 아주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이 어찌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지 적어도 15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만년필을 사라고 하는 사람, 구두를 사라고 외치는 사람, 또 담배를 팔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관광 안내를 맡겠다고 하는 사람, 그림엽서를 파는 사람 등등. 그 속에서 빠져 나오려면 순경의 막대기라도 있어야 할 참이었다. 그리고 포오트 사이드 항구의 상인들은 어찌나 상술이 좋은지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온갖 물건들을 들이대며 절대적인 필수품처럼 우리를 설득 시키려 했고 게다가 정가보다 8배나 더 비싸게 불렀다. 우리는 적당히 흥정을 하여 제 값에 샀다고 뿌듯해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언제나 당한 꼴이었다. 우리 풍습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한 언사도 이곳에선 흥정을 위해 필요했다. “모하메드, 당신은 유대인이오. 이것은 돈을 훔치는 행위나 다름없소.” “선생

남. 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훔치다니요?” “그렇다면 50프랑 불렀으니 40남 내겠소. 더 이상은 안돼요.”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좋소. 안녕히!” 하며 우리가 가는 척하면 상인은 다시 우리를 불렀다. “선생님. 얼마까지 내겠고?” 하며 그는 가격을 좀 내리다가 다시 조금씩 올렸다. 우리는 또 다시 가는 척했다. 그러나 가장 약은 척하는 자가 언제나 속는 법! 나는 사진기 하나를 샀는데 이미 그 가격을 알고 있었으므로 바가지는 쓰지 않았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프랑스에서 800프랑 하는 것을 260프랑 주고 산 것이다.

10시30분경에 우리들은 모두 배로 돌아왔다. 점심 식사 후에 나는 갑판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또 한 번 포르트 사이드의 유대인들의 총명한 상업 기질을 찬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그만 배 안에 물건을 펼쳐 놓고서 여행객들에게 양 자며 담배 그 외 잡다한 소품들을

35

팔고 있었는데, 갑판 위의 여행객이 어느 물건에 관심을 갖는 듯싶으면 어느새 상인이 명중시킨 빛줄이 여행객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선생님. 줄을 당기십시오.” 그래서 그 줄을 당기면 바구니 하나가 올라오고 그 안에는 조금 전에 구경한 그 물건이 들어 있는 것이다. “선생님. 돈은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구니 안에 돈을 넣든지, 혹은 상품이 너무 날림이라 여겨져 값을 깎아야 할 때는 물건을 도로 바구니에 넣어 천천히 되돌려 보내면 되었다.

이윽고 규정된 시각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스핑크스’ 호는 닻을 오리고 긴 수에즈 운하로 접어들었다. 이운하는 대단히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박처럼 큰 배 두 척이 서로 빗기어 지나갈 순 없었다. 어느 한 쪽이 완전히 해안 쪽에 멈추어 있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우리는 두 번이나 이런 경우를 당했다. 이운하는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다. 160km나 되는 그 길이도 원인이었지만 이 운하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제한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이운하가 길게 느껴진 또 다른 이유는 전망이 별로 흥미로울 게 없는 단조로운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른쪽으로는 간석지가, 왼편에는 사막이 있었다. 기차 한 대가 4시 경에 지나갔고 밤 10시 경에 다른 한 대가 지나갔다. 그리고는 아주 드물게 지나가는 몇 개의 차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경감이었을 뿐이다. 저녁이면 우리는 석양을 즐겨 바라보았다. 배가 2개의 부표 사이를 통과할 때 밤에는 좌현에는 초록 불을 우현은 붉은 불을 비추었다. 밤이 되자 어느 작은 마을에서인지 혹은 수에즈 운하의 행정 사무실 임직한 작은 건물들에서인지 줄기 빛이 보였다.

밤이 이미 깊어 갔으므로 나는 우리가 아메르호(湖)를 통과하는 것도 눈치 채지 못했다.

36 제1부 나의 여행기

9월 26일 목요일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아직 밤이었다. 그러나 곧 멀리서 비추이는 빛에 의해 수에즈 항구의 바다에 정박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척의 낡고 더러운 소형 선박들이 우리 ‘소핑크스’ 호를 에워쌌다. 그 배들은 물건을 싣기 위해 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철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이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뒤

로 하고 선실로 돌아와 다시금 내 안의 예수님을 느끼는 기쁨을 맛보았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서둘러 전 날 산 사진기의 기능을 알아보고 싶어서 필립 한 통을 인화하러 갔다. 다행히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했음을 확인했다. 그 제서야 안심이 되어 다시 갑판 위로 올라갔다. 우리 선박은 이미 닻을 올리고 수에즈 운하의 길고 좁은 만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저녁 무렵까지 양쪽으로 보이는 경사가 아주 심한 붉은 색깔의 해안을 볼 수 있었다. 혹자는 바로 해안의 이 외양 때문에 이 바다를 ‘홍해’라고 이름 지었다고도 하며, 또 혹자는 이 해역에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다. 어디선가, “엄마! 바다가 복근근 색일 줄 알았는데 푸른빛이야!” 하는 어린아이의 속삭임이 들렸다.

해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우리가 읽은 성무일과에서 “야훼는 바다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다. 야훼는 가족부대에 물을 담듯 바닷물을 야훼의 손 안에 담고 계셨다.” 라는 그리고 우리는 ‘홍해 안에서 건조한 대지와 곧게 뻗은 길이 드러났다’ 를 응송 하였다.

멀리 왼편으로 높은 시나이 산이 보였다. 하느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앞세우고 ‘두려움에 떠는 맨발의 종’ 모세 앞에 나타나시어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그 곳이었다. 보잘 것없는 우리 선교사들 또한 바로 그 하느님의 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바로 이 커다란 기쁨으로 하느님의 전능과 선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다.

37

9월 27일 금요일

항해가 계속됨에 따라 더위는 더욱 심해져갔다. 바다는 잔잔했다. 그러나 더위는 우리를 긴 위자 위에 무기력하게 묶어 놓았다. 우리는 다만 이마의 땀을 닦기 위해서 간신히 움직일 정도였으며 오고 가는 말은 겨우 “정말 더운 날이군!” 뿐이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를 삶은 것 같은 더위를 식혀 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싫증나도록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약간의 바람이 불자 수부들은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이라며 우리를 위로했다. 맵소사! 그 바람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9월 28일 토요일

현장을 통해 내다는 잔잔했다.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된 바다는 마치 납이 녹아서 거대한 호수를 이루고 있는 듯 했다. 배가 지나가는 자리에 물이랑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한 점 주름도 없다. 그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또한 끔찍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무더위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9시 경에 북풍이 약간 일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우리에게 적어도 약간의 신선함을 담은 공기를 실어 왔다. 우리는 말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뿐인데 그 때 누군가 갑자기(아마 나였던 것 같다). “돌고래다!” 하고 외쳤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단숨에 난간으로 다가갔다. 과연 덩치 좋은 돌고래 한 떼가 거대한 몸을 우아하게 놀리며 헤엄치면서 이따금씩 파도 이쪽 저쪽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 모습도 한 순간 모두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지쳐 다시 선실로 돌아왔다. 그것이 오늘 하루의 유일한 사건이었다. 점심에는 우리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일정한 시기가 되

면 메추라기들은 때를 지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 지중해를 건너며 선박을 만나면 그 배를 따라 항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르트 사이드 해변에 이를 때쯤이면 그 새들은 기진맥진해서 해변 위에 떨어져 널려 있으므로 가서 줍기만 하면 될 정도이다. 그래서 호텔 주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행객들 에게 특별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38 제1부 나의 여행기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에리트리아의 항구를 통과하였고 그 곳에서 못술리니의 군인들이 하선했다. 그것은 우리 저녁 식탁에서 열띤 화제 거리가 되었다.

9월 29일 일요일

8시 30분 미사에 약 50여명의 여행객들이 참석하여 우리와 함께 '말하시오, 명령하시오, 군림하시오'라는 찬송을 하고 기타 신부의 강론을 경청했다. 게시판에는 내일 6시, 지부티에 도착함을 알렸다. 우리는 각자의 우편물들을 챙겼다.

언제쯤부터인가 바다갈매기들은 우리의 여행 동반자가 되었다. 이 새들은 검은 날개와 머리, 흰 몸체에 그 움직임은 그리 우아하지는 않다. 지중해에서도 그와 비슷한 새들을 보았는데 그 새들은 보다 아름답고 전체가 흰색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갈매기였을 것이다.

9월 30일 월요일

6시경에 '스핑크스' 호는 지부티에서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닻을 내렸다. 초계정한 척이 우리를 부두까지 운반해주었다. (우리는 그 초계정에 타고 있는 흑단처럼 새까만 수부를 보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도시의 방문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즉시 멀리 작은 종탑이 보이는 성당으로 향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인원수로 한 무리가 되어 다녀야 했는데 우리의 무리는 금 새 더욱 불었다. 이유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걸인들과 상인들이 수도 없이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그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이 아이들도 끈질기게 수백 미터를 우리 뒤에 따라오며 손을 내밀고 애원하는 눈초리로 같은 말만 되풀어했다. 우리가 전혀 본 척도 하지 않자 그 아리들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 칠면조 울음소리와 똑같은 괴성을 질러댔다. 그렇지만 그 아리들 무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지갑을 송두리째 털리는 것이다.(그 중 한 아이는 내게 손을 내밀며 다른 한 손으로 50 프랑짜리 지폐를 가리키면서 깜찍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그 아리에게 돈을 주면 다른 아이들까지 몰려와 상황은 아주

심각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싫든 간에 이 아이들과 때를 지어 걷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선창가에서 벗어나 유럽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그 거리의 첫 건물은 우리으리했는데 틀림없이 총독의 관저쯤 될 것이다. 멀리 오른쪽으론 사장이 보였다. 왼쪽 옆길로 접어들자 커다란 광장이 나타났고 거기엔 몇 개의 대형 백화점, 우체국, 그리고 하시관 장교들의 숙소가 있었다. 그 곳을 지나 성당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성당 건물은

검소했다. 3개의 측랑과 목조 기둥, 지붕과 벽은 석조로 되어 있었으나 좋은 재료를 쓰지는 않은 것 같았다. 환기를 위함인지 기둥마다에는 강력선풍기가 철근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 성당 주임 사제는 성 프란치스코와 카푸친회 소속인데 이 광범위한 입지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프랑스령 소말리군도의 해안은 2만 2천Km에 이르며 약 10만의 주민들이 있고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천주교 신자는 2,000명에 불과하다. 한 번은 라페신부가 어느 소말리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소말리 사람이다. 난 지부티에서 태어났지.” 그 신부는 사실 지부티 태생이었다. 그러자 소년은 놀라서, ‘당신이 소말리인이라면 왜 모자를 썼고 흰 피부를 가졌으며 왜 당신은 기독교도인가 그리고 착한 기독교인이란 없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가련한 아이야 ...

성체조배 후 성모 어머니 앞에서 살베레지나를 부른 후에 옆에 있는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카프친 회 주임 신부가 우리를 기쁜 표정으로 맞아 주었다. 사제관은 꽤 넓었다. 그 곳은 회랑과 거대한 뜰로 둘러 쌓여있다. 그 뜰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메말라 죽어 있었다. 마치 지부티의 모든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신부는 우리에게 시원한 백주를 대접하여 더위를 식혀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한 이디오피아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얼마 동안 담화를 나눈 후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몇 명은 택시를 밀려서 주변을 구경하러 떠났다. 나는 남은 동료들과 더불어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다. 무더운 날씨여서 강렬한 태양이 머리 위로 내리 쏘여 만약 모자가 없었다면 단 1분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었다. 우체국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40 제1부 나의 여행기

물론 용무상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림엽서와 레몬 담배를 팔려고 온 노파 상인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더욱이 창구라고는 단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숨이 막히고 악취가 풍기는 소란스런 송에서 나는 그림엽서 몇 장을 무릎 위에 놓고 썼다.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을 거느리고(?)우리들은 원주민 구역으로 향했다. 우리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해 걸인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듯했다. 노파의 손을 끌어다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 사람, 또 한 여자는 도포자락을 들추며 얼굴에 난 끔찍한 종기를 보여 주었다.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여자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저리가!” 하고 고함을 질렀다. 선교사들의 주보성인인 방지거 사베리오 성인께서는 극기를 위해 어느 나환자의 상처를 핏속 적도 있다고 한다. 주보성인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 대의 사륜마차가 우리 앞에 와 멈추었다. 마차의 마부들은 그림같이 화려하게 치장을 했고 마차 바퀴에도 여러 겹 천을 입혀 꾸몄으나 마차를 끄는 말들은 말할 수 없이 아위어 있었다. 원주민 구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몇 명의 낙타 물이꾼을 사진에 담으려 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진기를 들이대는 것을 보자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팔을 내저었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을 집어 들었다. 그때 우리 뒤를 따라오던 50여명의 아이들까지 그들과 합세하는 바람에 우리들은 아무 것도 찍을 수 없었다. 미신 탓일까? 아니면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낙타를 부리는 사람, 우물가의 흑인 여인네들, 웃으며 코란을 읽고 있는 회교도인들 등등 사진기에 담고 싶은 좋은 소재감들을 놓쳐 버렸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스프링스호는 정오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11시에 점심 식사를 해야 했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내가 알아낸 한 가지 사실은 낙

타 한 마리에 80프랑 한다는 것이다. 포르트 사이들에서처럼 상인들은 배를 타고 와서 단검이나 칼집 등 토산품들을 팔려고 했고 아이들은 몇 푼 던져 달라고 애원했다.

41

선박은 다시 항로를 계속했다. 우리는 1927년에 바다 한가운데서 화재를 당해 침몰한 ‘퐁텐 블루’ 여객선이 반쯤 물에 잠겨 있는 것도 가까이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여행객들은 지부티에 이르러 하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화재가 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방파제로 만들기 위해 침몰선 안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있었다. 홍해만을 벗어나자 공기는 월등히 시원해졌다. 그러나 기온은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10월 1일 화요일

아든 만을 따라서 온종일 하늘과 바다 사이를 항해했다. 선박은 아무런 동료도 없었고 더위 또한 견딜 만했다. 소코토라(Socotora)군도를 볼 수 있을까? 그곳은 200년 전 두 명의 외방선교회 사제가 학살된 곳이다.

10월 2일 수요일

간밤에 잠 못 이루고 있던 동료 신부 덕택으로 소코토라 등대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선박은 과르다푸이와 아든 만을 벗어나 인도양으로 접어들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 무척 시원했으나 선박은 작은 요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파리 신학교 본부로 보내졌던 보고서에 적힌 바에 의하면 그 때의 상황은,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부드럽고 앳된 얼굴의 생제르(성 재덕 신부의 프랑스 이름)신부가 식탁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수염이 덩수룩하게 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고티에 신부가 일어나 나갔고…세 번째로 흰 수단을 입고 있는 젊은 오블라 신부가 일어섰고…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겨우 식사를 하던 프란치스코회 수녀가 네 번째로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식당에는 4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이야말로 말로 심한 배 멀미를 앓았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 배 멀미가 가실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오직 누운 자세로써 항해를 견딜 수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단 한 순간에도 울적함을 느낀 적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 하늘과 바다 사이를 항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가!

42 제1부 나의 여행기

10월 3일 목요일

우리는 수많은 날치 떼를 보았다. 상상해 보시라, 자코새 무리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날치 떼가 떼를 지어 물 위로 날아오르고 그 때 그 물고기들 위로 반사되는 태양빛은 마치 수많은 흰 별들이 바다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

10월 4일 금요일

오늘 배 멀미를 앓고 있는 한 여인이 해산을 했다. 그러나 이 갓난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겨우 몇 시간의 삶을 맛보았을 뿐이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그 갓난아기에게 영세를 줄 수 있었다.

10월 5일 토요일

오늘 우리는 어제 숨을 거둔 갓난아이의 장례를 치루었다. 작은 관을 바다에 던졌으니 수장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장례식을 위해 배가 잠시 정지했다. 선장이 참석한 가운데 뒤발 신부가 기도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끈에 묶은 관을 바다 위로 내려 보낸 다음 끈을 놓았다.

10월 6일 일요일

이참 미사에 지난 주와 같은 참석자들이 왔다. 오블라 신부가 성모 마리아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 저녁에는 멋진 석양을 보았다. 그 빛깔을 사진에 담을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10월 7일 월요일 콜롬보 기항지

아침에 드디어 육지가 보이자 가장 행복해 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드디어 육지가 보였다. 이제 배의 엔진소리나 끊임없는 요동 그리고 구토를 일으키는 바다의 짠 내음, 음식 냄새, 곰팡이 냄새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터운 구름에 가려 도시의 모습은

43

희미했으나 배에서 바라본 콜롬보는 아름다운 도시인 듯했다. 황량했던 소말리군도에 비하면 콜롬보는 진정 낙원이라 할 만 했다. 해운(海運)회사에서 발행된 여행안내 책자에는 이 도시를 ‘천연 종려 재배용 온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콜롬보는 그야말로 늦색의 정원 속에 묻혀 있었다. 더군다나 그 곳에는 종려수, 야자나무, 바나나 나무 등 아주 이국적인 식물들이 있었다. 항구의 주변에는 소형 선박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흩어져 떠 있었다. 이상한 모습의 카누는 1미터 가량은 카누에 고정되어 있는 길고 굵은 대나무에 의해 균형에 유지되고 있었다. 흑인들이 박자에 맞춰 노를 젓고 있었는데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척 힘들어 보였다. 나는 갑판위에 서서 이두 척의 카누가 파도 뒤로 사라졌다가는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꼭대기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구경했다.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이 광경을 찬탄하고 있는 동안 스펅크스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영국경찰이 선상으로 올라와 여권을 검사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가시덤불처럼 수염이 덩수룩한 콜랭 신부가 선상으로 올라왔다. 마이썬의 파견 선교사인 그는 역시 그 곳으로 임지 발령을 받은 블롱도 신부를 마중 나온 것이다. 블롱도 신부의 입국 절차가 끝난 오후 3시에 우리는 모터 보우트를 타고 4분도 채 못 되어 부두가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환전을 할 수 있었다. 콜롬보에서

100프랑은 17루피였다. 1루피는 100센트이므로 결국 1센트는 프랑화로 3쌍 땀에 해당하는 것이다. 콜롬 신부의 인도 하에 우리 선교사 무리는 (모험을 즐기려는 두 명의 사제는 우리 대열에서 빠졌다)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중개인을 통해 한참을 흥정한 후에 버스에 올라탔다. 극동지방에서는 어떤 협상도 결코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중개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우리 프랑스인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곳에서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처음엔 3시간 사용비로 40루피를 요구하는 것을 결국 16루피로 타협을 보았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 한 원주민 경찰이 오더니

44 제1부 나의 여행기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며 우리에게 차를 바꾸어 타라고 했다. 우리는 다른 차로 옮겨 갔고 또 다시 흥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결국 조금 전과 같은 가격에서 타협을 모았다. 우리가 다시 차에 오르자 그 경찰이 다시 오더니 이번엔 인원이 한두 명 초과되었다면 문제 삼았다. 이번엔 우리 쪽에서 화를 내며 구보다 더 큰 소리로 항의 하자 그는 결국 우리에게 출발을 허락했다.

우리는 운전기사에게 “보텔라 광장 대주교관”으로 가자고 했다. 길가에 서 있는 야자나무를 제외하면 콜롬보의 거리 풍경은 프랑스와 아주 흡사했다.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하수구 또한 매우 깨끗했다. 가옥들 역시 유럽의 가옥과 같은 형태였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엔 집집마다에 반드시 베란다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대주교 관저에 도착하여 우리는 주교와 부주교를 방문했고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온 오블라(Peres Oblats)신부들과도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나처럼 배 멀리로 어지간히 고생했던 그들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음에 모두 행해 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차를 타고 시내 관광을 했다. 식물원과 사원,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원주민 구역에 가서 기념품도 몇 개 샀다.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했다. 콜롬 신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부는 거울처럼 윤이 나는 마루 바닥에 흙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것은 결코 미신 행위가 아니었다. 그 사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나는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교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기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랐는지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 같은 사원에 비해 우리의 교회는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못 했을 것이다.

사원에는 넓고 둥근 경당이 하나 있었는데 경당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천정까지 닿는 거대한 불상이 놓여 있었다. 불상 앞에는 꽃으로 덮힌 테이블이 있었다. 안내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라고 하며 그곳에 놓인 꽃 한 송이씩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 물론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웅전 주의에[일종의 소(小) 성당과 같은 둥근 화랑이 있고 그 화랑의 실내 벽에는 부처의 일생이 그려져 있었다. 선명하고 뛰어난 색채였다

우리 중 하나가 부처의 뺨을 때렸다. 천만 다행히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만일 주군가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안내자가 우리에게 팁을 요구하여 2루피를 주었다. 그가 팁의 반을 사원에 헌금하겠다고 하기에 우리는 “근건 당신 몫이니 사

원에 바칠 필요 없소.” 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뜻을 충분한 듯했다.

우리는 오블라회 신부의 사제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카레요리”가 나왔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위가 약해져 있었으므로 감히 그 매운 음식에 손대려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주교와 오블라회 사제들과 함께 베란다 밑으로 담배를 피우러 갔다. 그리고 우리는 선박으로 되돌아 와야 했다.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또한 영국의 분위기가 담긴 이 도시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벗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서는 매순간 동양적 순박함이 문명국가의 메카니즘과 어울려 숨 쉬고 있었다. 인력거꾼, 택시 운전기사, 전차를 운행하는 사람, 소가 이끄는 마차물꾼, 번듯한 차림의 영국 경찰관 등등, 이 모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또한 이 도시이다. 의상은 콜롬보의 대다수 힌두족들은 아직도 길이가 다소 길고 대체적으로 검소한 파뉴(허리 두르는 옷)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전차 안에서도 맨발이었다. 그러나 유럽인들처럼 옷을 입은 사람도 이따금씩 보였다. 여인네들 역시 맨발이었고 적절하게 주름을 잡아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나는 양장 차림을 한 여인들도 한두 명 보았다. 영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었으나 단지 몇 명의 경찰만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런데 새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특히 까마귀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이곳 까마귀들은 야생조가 아닌지 마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서 유유자적히 놀고 있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상한 새들이었다. 마치 인간과 동물이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상 천국이 바로 이곳일까? 이 새들은 인도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하는 아주 유용한 새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의 거리의 오물들을 집어 삼킴으로써 거리 청소를

46 제1부 나의 여행기

깨끗이 해 좋기 때문이었다. 영국식 빌딩 위에서, 인디안식 집 지붕 위에서, 야자수 나무 혹은 바나나 나무 위에서 그리고 오고 가는 거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도의 신성한”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선교사들은 콜롬보에서도 역시 “까마귀”로 놀림을 받았지만 마르세이유 항구에서처럼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아랍인, 소말리인 그리고 힌두인들은 상업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것 같다. 처음에는 250프랑을 부른 물건을 25프랑에 건네주는 상술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걸인처럼 보인 것은 아니었다.

4시에 콜랭 신부와 블롱도 신부가 우리를 스펅크스호까지 배웅해 주었다. 뗏목 플랫폼 위에서 우리의 첫 이별이 이루어졌다. 잠시 후 블롱도 신부를 태운 초계정이 다시 출발할 때 우리 모두는 아쉬운 마음으로 블롱도 신부와 작별해야 했다. 전 날 저녁, 우리는 갑판 위에서 외방전교회 가족 모임을 즐겁게 가졌다. 우리들 각자는 돌아가며 노래를 한 가락씩 불렀는데 블롱도 신부는 그의 18번인 “파이프 담배”를 다시금 불렀다. 반면 연설을 을 좋아 하는 가타 신부는(지부터 프란치스코회에 갔을 때 “소말리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시다” 하며 이미 본을 보이지 않았던가! 다행히도 그를 그쯤에서 말렸지만) 블롱도 신부에게 간단한 송사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블롱도 신부 역시 그에 대한 진심어린 답사를 잊지 않았다. 합창과 독백이 때론 심각하게 쾌활하게 이러지며 11시까지 계속되었다. “다 함께 선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행복하여라”라는 노래를 불렀다. 저녁 기도 시간에는 출발의 찬가를 불렀다.

우리가 탄 배는 콜롬보와 그 항구를 아름다운 석양 빛 속에 남겨 두고 항해를 시작했다.

10월 9일 화요일

간밤에는 대체적으로 잠을 잘 잔 것 같다 그러나 배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었으므로 경험으로 터득한 바에 의해 나는 선실에서 식사를 했고 그 외 시간을 줄곧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못 했다.

47

10월 10일 수요일

정오 ,경에 우리는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섰다. 산꼭대기까지 산림이 우거진 작은 섬들이 좌우로 보였다. 쌍안경으로 등대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 하나 보였다. 그것은 수마트라 곳의 등대였다. 배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살아난 듯 한 기분이었다. 배는 저녁이 될 때까지 연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아침에는 첫 소나기를 만났었다.

10월 11일 목요일

싱가포르 기항지 도착 전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지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하루를 보냈다. 뒤발 신부가 나에게 와서 편지 돌리기를 시작하라고 했다. 즉, 내가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다음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받은 편지에다 내용을 덧붙여 또 다음 사람에게 보내는 식의 일이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다. 저녁엔 가족 모임이 있었다. 우리는 긴 의자를 붙여 둥글게 모여 앉아서 (몇몇 여행객들은 밖에서 우리 모임을 구경했다) 내일 임지에 도착하게 될 4명의 선교사에게 하는 아르베 신부의 연설을 들었다. 신부의 연설은 열렬한 박수에, 또는 폭소에 의해 중산 중간 끊어졌다.

그리고 기타 신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아르베 신부보다 더 멋진 연설을 하려 했고 사실 멋지게 향해 썼다)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해 가끔 종교의 일침이 가해진 우정의 말을 남겼다. 성모어머니께 바치는 찬송을 끝낸 후 우리는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특히 우리처럼,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인 상태에서 서로 헤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8 제1부 나의 여행기

10월 12일 금요일 싱가포르 기항지에서

싱가포르 도착은 7시로 예고되었으나 8시가 될 때까지도 우리들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놀라우리만치 푸르른 섬들을 바라보며 명사에 잠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잠시 후 콩알 만하 육지가 물 위로 잠시 보이는데 싶더니 곧 서너 그루의 나무가 무엇인가 항거하는 들이 섬 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프링크스호가 멈추었다. 작은 카누 하나가 우리의 큰 선박 옆에 멈추었고 경찰이 올라왔다. 그 때 배는 이미 항구에 들어와 있었다.

마르세이유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스텝크스호는 부두에 정박한 것이다. 물론 부두에 정박할 때에는 무척이나 느린 속도로 배가 움직였다. 부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도크 노동자, 하역부들, 여행객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벌써 손을 흔드는 그들의 친지들, 그리고 물건들을 운반하고 정리하는 중국인, 말레이시아 상인들 등등. 그 중에서도 한 상인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등에 장대를 매고 있었는데 장대 뒷 쪽에는 온갖 종류의 음료수와 유리잔, 얼음과자 등이 실려 있었고 앞 쪽에는 돈 통을 달고 있었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 상인은 좋은 자리를 다 놓친 탓에 여전히 등에 짐을 매고서왔다갔다 하다가 드디어 결심이나 한 듯이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수단 차림을 한 사람이 몇 명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3명의 말레이시아 신부와 2명의 사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하선한 다음에야 비로소 뒤발 신부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고 홍콩까지 여행을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하선하는 신부는 메소나에 신부, 매니에 신부, 기타 신부 셋뿐이었다. 세 신부의 세관 통과 수속은 당가 신부에게 맡기고 우리는 세 대의 택시를 빌려 성베드로 바오로 성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년에 파견되어 간 로랑 신부가 보좌 신부로 있었다. 성체조배를 하고 살베레지나를 찬송한 후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주임 신부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았으며 맥주와 굵은 엽권련 담배를 권했다(말라카에서는 가난한 사람조차 그것만 피웠다).얼마간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시골길을 향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기사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으나 아주 유연하게 속력을 내며 차를 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는 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정보

49

를 귀땀해 주는 친절함도 있지 않았다. 우리는 우선 중국인 거리를 구경했다. 집들은 모두 똑같은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마치 파리의 리블리 거리처럼 가옥마다에 회랑이 있었지만 물론 건축 양식은 같지 않았다. 길에서도 상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으므로 목공소, 쌀가게, 혹은 음식점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중국인들이 등받이가 없는 높은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는 밥공기를 입 가까이까지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유명한 젓가락을 사용하며 밥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논과 마을을 지나 곧 전원으로 나왔다. 빈랑나무, 야자수, 바나나나무, 홍수(紅樹), 고누나무 등등, 마치 고향을 연상시키듯 온통 초록이었고 몇 그루의 나무에는 꽃도 피어 있었다. 호상 도시를 지나오면서 집 근처에 있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먹을 감을 감는 아이들도 보았다. 드문드문 공동묘자도 보였는데 그것은 우울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그것은 마치 암석과 작은 준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공동 목정과도 같았다. 그리고는 식물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귀여운 새끼 원숭이들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우리는 유럽인 구역을 지나 드디어 주교관에 도착했다. 드발 주교는 새 선교사로 기타 신부를 막 맞이한 참이었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주교는 우리에게 손수 아페리티프를 권하였다. 우리는 고국 프랑스와 신학교, 포교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교관에서 나와 우리는 대표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 받았고 후식으로는 그 나라의 다양한 과일 등을 맛보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드발 주교가 오는 바람에 한동안 담화를 더 나누었다. 그러나 곧 택시가 우리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외방전교회 대식구들과 함께 있어서 마치 우리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주었던 그 안락하고

편안한 대표부를 떠나야 했다. 부두로 돌아와서는 작은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그곳에서 몇 가지 물품을 구입했는데 포오트 사이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50 제1부 나의 여행기

출항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별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친애하는 메소니에, 매니에, 그리고 가타 신부를 포옹했다. 잠판 위로 올라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드디어 배는 점점 그들에게서부터 멀러지더니 그들의 모습을 점점 희미하게 지워 갔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영 이별은 아닐까?

이곳에서도 포오트 사이드나 지부티에서처럼 잠수부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야겠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비단 아이 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있었고 심지어 노인들도 있었다. 더우기 그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가벼운 나룻배에 타고 있다가 잠수를 하고는 가시 배 위로 올라오곤 했다. 어떤 이는 큰 시가를 태우고 있다가 구경꾼이 동전 한 닢을 물속으로 던져 주면 그는 태우고 있던 시가를 입 안에 넣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동전을 주워 배 위로 다시 올라와서는 입속의 시가를 한 바퀴 돌려 계속 피우는 것이다.

10월 13일 일요일

하루 종일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심한 무더위. 르갈 신부가 미사에서 강론을 맡았다. 계시관에는 내일 11시에 사이공 도착을 알리고 있었다.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뿐이었다. 그러나 9시 경이 되자 앞 쪽 멀리 몇 개의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 산봉우리들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11시에는 생자크만을 마주 했다. 만에 가까이 오자 배가 어찌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나는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드디어 스프링크스가 멈추었고 키잡이가 도착할 때까지 얼마동안을 기다렸다. 잠시 수 경찰관과 함께 키잡이가 오자 곧 우리들은 동타이라는 사이공의 작은 하천을 따라서 하구 쪽으로 입항했다. 작은 강이라고 했지만 살상 그 거대한 스프링크스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강을 따라 올라갔을 정도이니 그 강의 규모는 상당한 것이었다. 내게는 세느강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처럼 여겨졌다. 풍경은 실로 지리멸렬했다. 특기할 만한 그 무엇도 없었고

눈에 떠는 산림도 없는 마치 프랑스의 플랑드르 지방을 연상케 했다. 오랜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양 쪽으로는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종의 종려수 숲만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키 작은 덩불숲뿐이었다. 배는 거센 물이랑을 일으키면서 나아갔다. 키잡이 선원은 베테랑 이어서 마치 넓은 바다 위를 날아가듯 속력을 냈고 수시로 나타나는 선회 코스와 가끔은 직각에 가까운 회전 코스도 능수능란하게 선회하였다. 이 거대한 배가 지날 때마다 문자 그대로 강가의 덩불숲을 뒤흔들어 놓았고 큰물이랑은 그리 높지 않은 독 위로

튀어 올라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려나무에 가 부딪쳤다. 그 때마다 종려수는 심하게 휘어져 넘어 갔지만 절대로 꺾이지는 않았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이공의 대성당으로부터 들려오는 종소리였다. 강변의 풍경은 다시 한 번 바뀌어, 이제껏 보아온 덤불숲은 끝이 나고 논이 나타났으며 강 위엔 제방에 정박해 있는 온갖 국적의 선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스프링스호는 해안 초소의 만에 도착했다. 당분간의 항해를 끝내고 이틀 후 다시 출항할 때를 대비해서 제 자리에서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움직여 뱃머리를 돌렸다. 배가 정박하자 곧 하역부들과 여행객의 친지들이 갑판 위로 몰려왔다.

대표부 신부는 다음 날 하이퐁, 투라네로 출발하는 동료 선교사들(르갈신부, 오디구, 기퐁, 그리고 가리키니 신부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도록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우리에게 대표부로 가라고 청했다. 대표부 신부가 인력거꾼을 부르자 순식간에 스무 명 정도의 인력거가 몰려와 큰 소리로 외쳐 대며 저마다 자신의 인력거에 타라고 권했다. 우리 선교사 일행은 네 대의 인력거에 나누어 타고 콜롬베르 거리를 달렸다. 선박에서 대표부까지는 8Km거리였다. 인력거가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동안 나는 인력거꾼의 온 몸으로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보았다.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치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극동 지방에서의 생활의 일면인 것을 어찌겠는가! 인력거를 타는 행위는 만인에게 공공연히 행해지는

52 제1부 나의 여행기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그것이 생계 수단인 그들에게 돈벌이의 기회를 주는 것도 되지 않는가! 게다가 식민지 정부에서는 바로 이 인력거 금지 구역을 정해 놓은 적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인력거꾼들에게 심한 항의 소동만 시켰다고 한다.

대표부에 도착하자 푸클레 신부는 인력거꾼에게 2프랑 상당되는 20센트씩을 지불했다. 인력거꾼들에게 그 액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인력거꾼들은 돌아갈 줄을 모르고 혹시 태워갈 신부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그냥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위를 어느 정도 식힌 후 (무더운 날씨였다)나는, 드디어 부모님께서 선교회 앞으로 보내신 첫 편지를 읽는 잇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각자 자유 시간을 가졌다. 식물원 구경을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처 대성당에 가서 매괴성월 기도를 바치는 이도 있었다. 저녁에는 독일의 프란치스코회 주교가 베푼 만찬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취침 시간이었다. 내가 받은 침구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매트 하나와 베게 그리고 돛자리가 전부였다. 침대 네 귀퉁이로 모기장이 쳐 있어서 마치 새장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다.

10월 15일 화요일 사이공에서

4시 30분에 뒤발 신부는 “콜로드 샤프(Claude Chappe)”호로 떠나는 동료 신부들을 배웅하려 갈 사람은 나오라고 우리들을 깨웠다. 물론 이 때 이른 기상에 빠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항구에 도착하여 “클로드 샤프” 호 내부를 구경했다. 스프링스호에 비해 또다시 작별의 시간이 왔다.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 작별인 것이다. “콜로드 샤프” 호는 예정대로 가는 배를 한참동안 바라보며 떠나가는 동료들을 향해 작별의 손을 흔들었다.

아침 식사를 미친 후 킨혼 본당 신부는 (그는 고티에 신부를 보좌신부로 맞이하게 되어 기뻐하였다) 택시 한 대와 특별히 버스 한 대를 전세 내어 시내 관광을 시켜 주었다. 우리는 네다섯 군데의 성당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 방문한 성당은 안남의 대부호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그 성당의 두 창설자는 중앙 제대 뒤편, 카라라산 흰 대리석 관에 안치되어 중세기적 와상(臥像)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딸들(couvent des amantes de la croix)수녀원을 방문했다. 그곳의 방인 수녀들의 복장은 매우 단순했다. 검은 명주고 된 수도복에 검은 수건을 머리에 둘렀으며 가슴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달았고 맨발이었다. 우리는 수녀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우리 일행 가운데 주교 한 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는 수녀원에서는 종을 울려 모든 노비스(수련수녀)들 불러 모았다. 흰 색의 예복을 한 노비스들이 수녀원 강당에 모두 모였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좌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앞에 모인 노비스들은 안남어로 마니피카트를 노래했다. 매우 부드럽고 선율이 아름다운 찬송이었다. 간혹 비음(鼻音)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 곳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데프로퐁디스(de profundis)를 암송했는데 언어 자체가 마치 노해하듯 선율이 들어 있어 기도문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것 같았으나 중간중간 음조가 바뀌었으므로 노래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음조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아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노비스들을 보며 누이동생 말가리다를 떠올렸다. 비록 서로 다른 하늘 밑에 있지만 성교회 안에서 같은 소명을 실현하는 일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이 속세의 모든 인간들의 이상이 아니던가!

원장 수녀는 주교님을 비록한 우리 일행의 방문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아울러 수녀원에 애덕(愛德)의 은총이 나날이 깃들기를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이어서 주교는 피케 신부의 통역을 도움 받아 원장 수녀에게 답례 인사를 전했고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노비스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강복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노비스들은 프란치스코회 주교의 반지에 공손히 입을 맞추었다.

54 제1부 나의 여행기

수녀원 내에 있는 노비스들의 수련소를 둘러 본 다음, 거기서 나와 중국인 구역의 성당과 사이공 근교에 있는 한 성당도 방문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한 선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성당 가까이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영회가 있었다. 아주 깔끔한 원아들의 모습에 우리는 무척 탄박하였다. 그 중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안남어 억양을 섞어 노래하듯이 “일곱 살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탐딘 (Tamdinh)성당도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최초의 안남 주교인 통(Tong)주교가 주임신부로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오수를 즐긴 후 사이공에서 꽤 멀리 떨어진 삼림지대로 출발했다. 처음으로 우리가 만난 사람은 전 하노이공의회 소속 신부였던 방인 사제였다. 그의 안내를 받아 성당을 방문 했는데 성당은 대단히 웅장했다. 이 성당은 안남의 어느 대부호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안남의 현 황제의 삼촌이며 또한 우리가 아침에 방문했던 그 성당의 창설자의 아들이기도 했다. 중앙 제대와 양 측면의 소 제대는 줄무늬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방 벽에는 모자이크화로 가득 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라라산 흰 대리석으로 된 두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 하나는 아직 살아있는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죽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고 또 다른 한 무덤은 반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죽음을 통곡하는 것을 나타냈다. 참으로 묘한 인상을 남겼다.

그곳을 방문한 후 우리는 그 선전을 지은 그 귀족을 만나러 그의 성으로 찾아갔다. 성당에서 찾아 갔다. 성당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도중에 삼림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잊지 않고 방문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야자열매를 따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였다. 그 선교사는 임지 운영을 위해 고무나무를 경작하고 있었다. 그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참으로 유익한 방문을 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어린이들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리 학생들은 무척 귀여웠다.

55

성주는 무척이나 호화스러운 응접실에서 우리를 맞았다. 응접실 안의 가구들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으며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진 정교한 조각품들, 색깔이 조화 있게 배치되어 운이 나는 나전 칠기류의 가구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한 것은 없었다.

우리는 아드란 (Adran)주교의 묘지와 선교사 묘지를 거쳐서 해질 무렵 사이공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대표부 식구들은 모드 다음 날 새벽 4시30분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 스펡크스호로 우리를 배웅했다. 있는 갑판 위에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긴 의자보를 도난당했음을 안 대표부 신부는 선박 내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곧 우리에게 새 의자보를 배상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별이었다. 우리는 배웅 나온 모든 이들과 박별 인사를 했다.

인도차이나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나 무척 무덥고 습기는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더군다나 논들은 전부 늪지대인 만큼 온갖 벌레들이 번식하기에 알맞았다.

10월 16일 수요일

이제 배에는 우리6명의 선교사만이 남았다. 그리고 상해에서 하선하기로 되어 있는 6명의 프란치스코회 수녀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배안은 텅 비어 있는 듯하다. 온종일 우리는 인도차이나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 그러나 그 해안은 멀리 있었기에 그 모습을 구별할 수는 없었다.

10월 17일 목요일

무더운 날씨! 오후에 폭우가 쏟아졌다. 저녁 식탁에서 선실 장은 상해부터는 2등 실에 **토크뷔프** 신부와 생제르 신부만 남게 될 거라고 말했다.

10월 18일 금요일

기항지를 앞둔 하루 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들 편지 쓰기에 여념이 없다. 꽤 사나워서 나는 온종일 누워 있어야 했다. 집으로 편지 쓸 기력조차 없었다.

10월 19일 토요일 홍콩 기항지

아침에 나는 라페 신부와 **토크비프** 신부를 깨워 5시30분에 아침 미사를 드렸다. 아직 일출 전이었으나 선창을 통해 높이 솟은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었다. 미사 후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중국 배들을 보았다. 중국 배들은 뒷면이 잘려 나간 듯이 밋밋했고 한 개의키와 이상한 모양의 돛을 펼치고 있어 마치 중세 때의 배 형상을 하고 있었다. 사방으로 보이는 높이 솟은 바위섬들은 실로 동화 속의 풍경 같았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라고 하신 드 브리앙(De Guebriant)주교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는 섬들 가운데 가장 크고, 산 중턱에는 수많은 영국식 별장이 들어서 있고, 높은 산이 즐비한 홍콩 섬에 도착했다. 뒤발 신부는 벌써 베타니 건물과 (선교사들에게 있어 그곳은 일종의 양로원이다)나자렛 집(인쇄소와 피정의 집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섬 주위를 선회하면서 우리는 무한히 긴 홍콩의 도시, 정확히 말하자면 88만이다. 중국인들은 이 두시를 영국에 내줄 때에 단순히 바위산을 내준다고 오산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그 유용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홍콩이 영국 영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중국인들은 뒤늦게 분개하며 홍콩이 중국 땅이며 “나쁜 양놈들이 와서 행세하는 것이라”고 상반되는 대답을 한다. 우리도 여지없이 온종일 “나쁜 양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끊임없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나니, 세 명의 신부가 올라 와 뒤발, 프랑스와, 에르베, 리퀴 신부들의 짐 가방을 챙겨 주었다. 우리는 부두로 나가기 위해 대형 보우트를 탔다. 스텝크스호는 부두에서 25Km 떨어진 곳에 닿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홍콩이 세계 제4위의 항구였지만 그 어떠한 선박도 부두에 정박하지는 않았다. 보우트에서 부두로 뛰어 내리다가 리비에르 신부는 운이 없게도 미끌어지는 바람에 손목을 빼어 한 신부가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대표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에 남아 있던 우리는 걸어서 가기로 했다. 중국 대륙을 처

음 밟으면서 나는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놀랐다.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나의 그 첫 인상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넓은 도로와 잘 정돈된 도로의 질서 등은 마치 우리가 유럽의 어느 도시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콜롬보에서처럼 이곳의 경찰들도 영국 식 체제에 따라 온갖 몸치장을 다 했고 매우 친절했으나 도처에서 보이는 그들의 반바지 차림이 내게는 마치 공원에서 놀고 있는 큰 아이들처럼 보이게 하였다. 홍콩의 총 대표부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은 근사한 건물이었다. 그곳에서는 선교사들은 왕자와 같은 환대를 받는다. 선교사들에게 휴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놀랍게도 깔끔한 성당과 사제관(포교지에서는 종종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야 하는 정도인데!)안락한 방, 건전하고 훌륭한 오락시설, 3대째 대를 이은 하인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고 있는 식당, 나무랄 데 없는 대표부였다. 우리를 환영해 준 비르콩돌레 신부는 “여러분은 2시에 다시 떠나야 하므로 점심 식사 전 차로 섬 한 바퀴 둘러 볼 여유 밖에 없습니다.” 하며 전세 택시 두 대를 불러주어 우리는 곧장 시내 관광에 나섰다. 짧은 드라이브 여행을 하며 본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뿐이다. 나는 **일 찌기** 이토록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다. 시내를 벗어나자 도로는 무척 위험스러울 정

도로 구비져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산이 솟아 있었고 왼쪽으로는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 위에 숲이 우거진 바위섬들이 더 있었다. 해안에 닿는 듯싶더니 어느새 우리는 꽤 높은 고도 위까지 올라와 있어 아주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불로뉴 숲의 호수보다 훨씬 아름다운 호수가 지나는가 싶으면 금방 울창한 숲 속과 산허리에 펼쳐진 계단식 초목 지대와 구름다리 터널 속을 지나고 있었다. 어촌의 나룻배들과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땅 위에 펼쳐 놓고 있는 건어물들도 보았다. 우리는 지나는 길에 베다니에 잠시 들렀다. 그곳의 노사제들과 요양 중인 선교사들은 젊은 우리들을 보고 다시 젊음을 되찾은 듯 명랑해졌다. 그 표정들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나서 나자렛을 방문했다. 그곳의 원장이며

58 제1부 나의 여행기

나환자들의 사제인 데바지에르(Deswasieres)주교에게 인사를 드리고 인쇄 소리를 둘러보았다. 성당은 마치 수도원의 성당과 흡사했다. 나자렛은 과연 선교사들의 피정의 집이라 할 만 하였다. 나자렛은 또한 매일 같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성무일과를 바치는 외방전교회의 참사회 같은 기능도 했다. 대표부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한 후 나는 뒤발 신부와 함RP 사제관을 돌아보았다. 새로 당가 신부로 발령된 뒤발 신부는 거의 “궁전”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이 사제관을 둘러보며 “내가 무엇 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까?” 하며 의아해 했다. 그는 차라리 삼림지대와 같은 포교지를 기대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대표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제는 이해했으니라.

2시가 되어 토크뵈프 신부와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상해 대표부가 목적지인 라페 신부는 총 대표부에 남아 보름간 더 지내기로 했다. 모두를 나와 우리를 배까지 배웅해 주었다. 드디어 그들과 작별의 순간이 왔을 때 주 눈에 맺히는 준물은 어찌 할 수 없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던 동료들인가! 그들과 함께 생활해 왔던 것을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렸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그들은 내게 “즐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 노래 가사 중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진정한 성자가 있지요.” 라는 구절이 있다. 과연 신학생 시절을 통해 나는 그 노래 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들은 슬픔을 모르는 명랑한 성자들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홍콩을 벗어나며 돛대를 활짝 펼친 아름다운 범선을 보았다. 육지와 군도 사이를 통과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10월 20일 일요일

이제 배 안은 텅 비어있는 듯하다. 2등 칸 선실에는 천진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 하사관 몇 명과 8명의 수녀 그리고 3명의 신부가 남았을 뿐이다. 바다는 꽤 거칠었다. 나는 대망의 실비아 산을 볼 수 있을까하고 기대했으나 배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지 못했다.

59

10월 21일 월요일

하루 종일 중국 해협을 따라 항해했다. 사베리오 방지거 성인께서는 눈을 감으시면서 바다 저쪽에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이다.

많은 어선들을 볼 수 있었다. 스텝크스호가 어선 가까이 지나칠 때면 그 어선들은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광경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 나이엔 동정이란 없는 것이다.”

10월 22일 화요일 상해도착

이른 아침 우리는 양자강 어구에 들어섰다. 이제껏 보아온 깨끗한 초록빛 바다가 아니라 이곳은 온통 더러운 흙탕물뿐이었다. 강어구가 어찌나 넓은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은 보이지 않았다. 음악 홀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온 후에야 비로소 꽤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육지를 볼 수 있었다. 홍콩을 떠난 이 후로 토크뵈프 신부와 나는 교대로 미사를 드렸는데 이는 같이 여행 중인 수녀들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육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지였다. 왼 쪽으로는 대륙이 펼쳐져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타우닝(taunging)섬이 있었다. 우리는 여러 척의 어선들을 지나쳤다. 일반적으로 어선은 꽤 컸으나 그 모양새는 정말 볼품이 없었다. 배의 뒷전에서는 한 두 명의 여인네가 매울 긴 삿대로 노를 저었는데 그 삿대질로 여인네들이 고달픈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그녀들은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였으니까!

8시에 우리 선박은 양자강 지류인 창포(changpoe)로 들어섰다. 그리고 두 시간 동안을 사이공에서처럼 넓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강가의 양쪽 전경은 특이할 만한 것은 없고 다만 많은 주택과 특히 많은 공장들이 준에 뜨이였을 뿐이다. 한동안 근사한 일본 배 한 척이 우리 뒤를 따라 오기도 했다. 얼마 후 여러 척의 여객선, 상선, 전함들이 강 한가운데 혹은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드디어 상해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우리 앞에는 멋진 거대한 빌딩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60 제1부 나의 여행

10시30분, 우리는 어느 부두에서 멈추었고 배는 긴 시간 동안 선회하였다. 밀수꾼들을 염려해서인지 중국 경찰들이 탄 소형배가 우리 선박 주위를 맴돌았다. 부두 가까이에서 10여 척의 소형배가 치밀한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대표부 투르니에 신부는 우리를 차에 태워 대표부로 데리고 갔다. 대도시인 상해는, 중국 원주민 지역과 외국인 거주지 그리고 프랑스 조계지, 이렇게 3구역으로 나뉘었다. 중국 원주민 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은 마치 우리가 유럽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였다. 이곳에는 유럽보다 인도가 훨씬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곳 보행자들에게 질서의 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대표부 건물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훌륭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대표부에 들러 인사를 한 후 한국에서 온 데랑드(Deslandes)신부와 베르트랑(Berland)신부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두 사제는 상해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이곳에 온 것이다. 토크뵈프 신부와 나는 드디어 한국에 가까이 와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는 두 사제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오후에 잠시 오수를 즐긴 후 우리는 프랑스 조계지로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그곳의 주민들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인상은 그리 호감을 주지 못했다. 여러 곳의 성당을 둘러보고는 찬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 건축 양식은 애체로 현대적이었다.

어느 한국인 사진 현상소에 들러 현상할 필름들을 맡겼다. 오후에는 대표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고향 헤당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프랑스에서 1,700Km 떨어진 이곳에 와서 고향 이웃인 비비에 부부를 만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을까! 참으로 이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우린 고향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들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왔다.

10월 23일 수요일

나는 상해 체류기간 동안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이어나 아침을 먹은 후 다시 잠을 잤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진 현상소에 들려 사진을 찾아왔다. 점심때엔 어제 약속했던 비비에씨 부부택에 가서 고향 헤당의 소식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매우 유쾌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내가 시계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이미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표부 신부가 4시까지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또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표부 신부가 나를 4시까지 들어오게 한 이유는 우리를 승용차에 태워 시내 구경을 시켜 주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는 정원으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빌라들과 백화점들이 즐비하게 늘어난 큰 도로를 따라 프랑스 조계지를 지나갔다. 우리는 “로베르 신부 거리”도 통과했는데 이 거리가 로베르 신부 거리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현재 파리외방전교회 잔상 신부가 예전에 상해 대표부에 있을 때에 많은 봉사를 했으므로 조계지에서는 그의 업적을 감사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 신부의 이름을 붙여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중국인 구역은 조계지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그 구역을 통행하려면 중국인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초소를 거쳐야 했다.

중국인 구역에 들어서자 비좁은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북적거리로 있는 것이 첫 눈에 띄이는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그 거리로 들어서자 자동차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길 쪽으로 열린 상점들을 흥미롭게 구경했다. 좁고 천정이 낮은 상점들 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온갖 종류의 상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다양한 업종을 짐작할 수 있었다. 피륙을 짜는 직조공, 조각사, 금은 세공사, 가구 세공사 등등, 이들은 모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물건들은 하난 손색없는 그야말로 걸 작품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손 기술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형형색색의 거리 풍경에 또 하나 가미된 이국적인 것은 밥과 국, 새들을 들에 꿰어지고 다니며 외쳐 대는 장사꾼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비좁은 거리를 교묘하게 달리는 인력거리꾼들의 외침

62 제1부 나의 여행기

빼놓을 수 없었는데 그 인력거들은 주로, 양쪽을 튼 검은 긴 옷을 입고 중앙에 단추 하나만 간단히 달린 변쩍거리는 검은 색의 챙 없는 모자를 쓴 표정 없는 사람을 싣고 달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중국 건축 양식의 성당을 두 차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의

작은 수녀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380명의 노인들이 수녀들이 얻어 온 밥을 먹고 있었다.

대표부로 돌아올 때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거리를 밝히고 있는 조명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한편 그것이 지나친 전기 낭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 한가운데 걸려 있는 수많은 거대한 광고판을 밝히고 있는 온갖 색깔의 네온사인들로 거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10월 24일 목요일

9시에 우리는 치카웨(zi-ka-wei)로 출발했다. 그곳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어의 명소이며 예수회가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그곳의 예수회는 높이 솟아 있는 두 개의 종탑과 함께 거대한 대성당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가르멜 수도원과 소년, 소녀를 위한 학교 그리고 항해에는 물론 과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측소, 사제관 특히 수많은 고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대규모의 고아원 등이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고자 했던 곳은 바로 그 고아원이었다. 유리제주술, 주조술, 조각술, 목공술 등을 익히는 곳을 차례차례로 견학하면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인들의 훌륭한 솜씨는 좀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예를 들어 식당의 구조는 현대식이었으나 그 내부는 온통 중국 문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식당 안의 의자, 찬단, 식탁들은 전부가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세밀히 조각된 것들이었는데 한 예로 하나의 원목 위에 줄기, 나뭇잎까지 완전한 입체를 띄우며 새겨져 있고 그 옆의 인물들은 나무에 비해 덜 돋아나게 새겨 놓았다. 치카웨에서 나는 삼륜 인력거를 타고 비비에씨 택으로 갔다. 오후에 비비에씨는 나에게 두루 근무지를 두루 구경시켜 주고 그의 자동차로 시내로 나와 동물원들을 관광시켜 주었다.

63

저녁에 대표부로 돌아와 몇 통의 편지를 썼다.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에 비비에 부인이 딸 들을 데리고 대표부로 찾아와 내가 드리는 미사에 참석했다.

나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오전 내내 대표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3시에 출항하기로 되어 있는 배로 갔다. 비비에씨 부부가 친절하게도 나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들은 배가 출항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 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우리는 이제 나흘 전에 지나온 항로에서 역방향으로 향해 항해해야 했다. 그리하여 배는 또 다시 끝없는 양자강을 따라 흘러 내려갔고 항해는 순조로웠다. 그러자 배가 대양 한가운데로 나오자 몹시 심하게 흔들렸으므로 나는 곧장 선실로 들어가 누워야 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항해 일이었다. 나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열변도 넘게 토했다. 우리가 탄 배는 태풍의 꼬리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적어도 8m 높이의 강한 파도가 일었다. 그러나 토크뵈프 신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그는 “흔들림이 오히려 흥미 진진 한데!” 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종일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10월 27일 일요일 예수 그리스도 왕 침례일

오늘은 일본 해협 안으로 들어왔고 항해는 훨씬 순조로웠다. 2등 칸의 선실에 남은 여행객이라고는 토크뵈프 신부와 나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배 안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조차 없었으므로 1등 칸 갑판 위로 올라갔다. 10시 경 시모노세키 앞을 지나갔다. 모레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해안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무들이 우거져

64 제1부 나의 여행기

있었고 (대부분이 소나무였다) 목조 건물의 집들은 산등성이 위에서 우아하게 층을 이루었다.

시모노세키를 지나자 다시 바다가 펼쳐졌다. 우리는 운이 없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어야 그 아름답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작은 섬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내양(內洋)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밤새 그냥 지나쳐야 했다.

10월 28일 월요일 고베 상륙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배는 이미 새벽 3시에 고베에 정박해 있었다. 8시가 될 때까지도 안개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었으므로 고베의 불 빛 만이 보일 뿐이었다. 8시 경 경찰과 의사진들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선원 전체가 차렷 자세를 하고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예비병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고 난 후에 하선을 허락받았다. 이 검열이 끝난 후 선박은 고베의 큰 항구로 입항하여 부두에 정박했다. 오사카 부주교 겸 고베의 사제이며 대표부 사제인 파즈 신부를 비로서해 예전에 신학생 시절 때 나와 친분이 있는 뒤센느, 메르시에, 운테르발트 등 3명의 신부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눔 후 곧 우리 짐들을 돌보아야 했다. 나는 최소한 30여개가 넘는 트렁크와 마르세이유 그리고 기항지 곳곳에서 부탁받은 것들인데, 길 떠나는 파견 신부 편에 소포 뭉치들을 맡기는 것은 흔히들 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운송비가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짐들이 배에서 내려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바로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던 기적 같은 단면을 흥미롭게 구경할 수 있었다. 그것은 스프링크스호가 부두에 정박하면서 한 어장을 박는 바람에 어장 속의 물고기들이 스프링크스호 위로 올라와 약삭빠른 한 일본인이 이 뜻밖에 횡재에 쾌재를 부르며 그물을 던져 양동이로 여러 통을 건져내고 있었다.

파즈 신부가 짐을 모두 하선 시키고 나자 우리는 세관으로 향했다. 세관원들은 내가 ,이제

몇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냥했다. 파즈 신부가 그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

는 30여 개의 상자들을 다 열어 보여야 했는데 그들은 내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나는 일본으로 여행 오는 여행객들에게 작은 상자들을 큰 짐 속에 넣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본 세관에서는 특히 큰 짐 만을 열어 보이게 하므로 차라리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즈 신부 댁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오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식탁에 모인 인원수는 꽤 많았다. 파즈 신부를 비롯해 드뤼 신부, 아라스(Arras)교고 출신의 한 사제, 아침에 우리를 마중 나왔던 세 명의 신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두 명이 있었다. 점심 식사는 참으로 즐거웠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카스타니에 주교님께 인사드리러 오사카로 갈 것이며 그리고 저녁에 나는 드뤼 신부 댁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다. 오사카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파리의 지하 철과 같은 것을 타야했다. 즉 땅 속을 다니는 지하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는 몇 킬로미터를 달리자 지상으로 나왔다. 고베에서 오사카까지 최소한 30Km쯤 되었고 시간상으로는 30분 정도 걸렸다. 그곳은 유일한 도시이기도 했다.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러했다. 특히 이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었다. 대표부의 아이들이 똑같은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흰 각반을 멘 남학생들은 독특하지만 행복해 보어 있었다. 도시의 큰 집들은 석재 건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들 역시 목재로 지어졌으며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른 것이다. 아작도 많은 일본 여성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길이가 길고 소매 폭이 넓으며 색상이 매우 강렬하여 대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유럽의 의상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이 전통 의상을 일본 여성들이 계속 보존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꽤 복잡해 보이는 머리 모양을 했는데 그것 역시 매력적이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일본인들의 의상에서 가장 호기심을 갖게 한 것은 그들의 신발로써 일종의 나무판 같은 것을 신었는데 마치 장갑을 끼듯 발가락 하나에만 끼우면 되었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벗짚으로 된 돗자리가 깔려있는 마루실내에서는 언제나 맨발로 생활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66 제1부 나의 여행기

밖에 외출할 때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작은 끈만 끼우면 **나무 신**을 신는 것이니 이처럼 간편한 것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결함을 유지하기에도 그만이었는데 이 나무 신 밑에는 때론 아주 높은 두 개의 횡단목으로 굽이 달려 있어서 진흙탕 길도 아무 염려 없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무 신**을 신고 걷노라면 매혹적인 소리를 내므로 의상과 더할 나위 없는 조화를 이룬다.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이루어진 온갖 색사의 의상과 함께 이 나무신은 멋지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내가 일본인들에게서 본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일본인들은 지극히 예의 바르다는 것이다. 어쩌나 예의가 바른지 지나치다고까지 말할 정도이다. 어쩌다 두 일본인이 서로 만나면 그들은 수도 없이 서로 인사를 하므로 언제쯤이나 인사를 멈출지 의아해할 정도이다. 그것도 간단한 인사법이 아니다! 상체를 다리와 직각이 되도록, 심지어는 다리에까지 닿을 만큼 구부려 인사를 한다. 비록 그것이 관습의 하나일 뿐이기는 하지만!

오사카에 도착하여 우리는 주교관으로 직행했으나 주교는 부재중이었다. 우리는 차 한 대를 빌려 타고 시내 구경을 나갔다. 넓은 도로, 전차, 버스, 택시, 백화점들, 시내는 완벽할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일본인들은 도시 환경도 아주 잘 꾸며 놓았다. 우리는 오사카의 성으로 인도되었다. 성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가야 했다. 그리고 성의 도개교(跳開橋)를 통과했다. 우리는 성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름지기 직경5-6미터 되는 자연석들이 시멘트를 바르지도 않은 채 완벽하게 쌓아 올려져있었다. 어떻게 그 돌들을 쌓았는지 나는 지금도 의문이 간다! 성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내부는 구경할 수 없었고 외부만을 둘러보았다. 지붕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되풀이 되는 중복 형식은 고대 일본식 건축 양식이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주교관으로 돌아갈 때는 그 도시의 가장 변화한 상가를 통과해서 지나갔다. 상가는 온통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는데 마치 수차례 개선문 밑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 만큼 도시는 기분 좋게 조명 배치가 되어 있었다. 주교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

67

고 주교님과 얼마간 이야기를 나눈 후 메트시에 신부는 기차로 나는 드뤼 신부 댁까지 데려다 주고(신부댁은 오사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토크뵈프 신부와 함께 그의 집으로 떠났다. 우리는 다음 날 7시에 파즈 신부 댁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드뤼 신부 댁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느꼈다. 외교인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실상 그 일은 그들에게 진정한 선(善)을 일깨워 주고 비록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진정 하느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들 내면의 성충이 역사할 수 있도록 외교인들과 함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판단에 있어서 타인들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선교사의 소명은 영원할지이다!

10월 29일 화요일

7시30분에 우리는 다시 파즈 신부댁으로 갔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고베 역으로 출발해야 했다. 파즈 신부는 전 날 우리 짐을 모두 부쳐놓았다. 우리가 고베로 들어오는 내해 여행에서 운이 없게도 그 아름다운 군도를 전혀 구경할 수 없었는데 반해 오늘은 그 기회를 만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 8시30분경에 고베를 떠나 13시30분에 시모노세키에 닿았다. 우리는 오전 내내 일본의 아름다운 경치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넓게 펼쳐져 있는 기름진 평야, 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집들이 들어서 있고 바다 위에는 초록의 군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이따금씩 해안을 따라 절도가 이어져 있는 모습들, 나는 이 풍경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 시모노세키에서는 6개월 전에 그곳으로 파견되어 떠나온 톨리에 신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막무가내로 우

68 제1부 나의 여행기

리를 후쿠오카로 안내하여 교구 사업을 구경시켜 주었다. 아라스(Arras)교구 출신인 브르

통 주교를 만나게 해 주었다. 그러나 후쿠오카는 규슈섬에 위치하고 우리는 일본 섬에 있었으므로 시모노세키와 도지 사이를 왕래하는 연락선을 타야 했다. 어느 순간엔 어제 스텝크스호로 지나 왔던, 그 지점을 지나쳤다. 도지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9시 경에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터라 경치는 전혀 볼 수 없었다. 후쿠오카의 주교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브느와 라는 젊은 사제 덕분에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의 쾌활한 성격은 극동지방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바라 내가 거쳐 온 곳 어디에서나 그에 관한 얘기를 익히 들어왔던 터였다.

10월 30일 수요일 후쿠오카

하루 일과는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교구 사목 현황을 돌아보는데 소요되었다. 후쿠오카 교구는 겨우 7-8년 전 교황청에 의해 설정되었다. 선교사들은 처음엔 나가사키의 교구에서 일했는데 교황청에서는 구 교구를 일본인 사제들에게 맡겨도 좋다고 판단, 그렇게 하였고 그곳 선교사들에게는 미개척지로 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브르통 주교는 후쿠오카의 제2대 주교이나 하느님의 섭리로 창설자 주교로 지목된 것처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소신학교, 일본 수녀원, 주교관, 담므 드 생오르(Dames de St Maur)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여학교 등등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 여학교 건물 안에서 미사를 집전했으며 이러한 영광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오후에 우리는 소박한 작은 성당을 방문했는데, 이 성당은 곧 주교 좌 대성당의 모습으로 갖추게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나서 시내 구경과 파리의 상점들과 버금가는 대형 상점들을 구경하고 신도(神道)사원을 둘러보았다. 저녁6시에 시모노세키행 가차를 탔다. 연락선에서 내리자 그곳에는 “조선”, 즉 한국행 배를 갈아타는 방향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화살표시를 따라 갔고 드디어 대형 선박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69

줄을 서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1등 칸 포를 갖고 있었으므로 곧장 배 위로 오를 수 있었다. 우리의 선실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다. 선실 안으로 들어서자 매우 친절한 한 경관이 우리에게 와서 몇 가지 조사를 해 갔다. “가이후루” 호는 연락하지 않고 제 시간에 출항했고, 스텝크스호 보다는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그렇다고 해서 배의 흔들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우리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는 또한 배 멀리미를 잊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했다.

10월 31일 목요일 한국 도착

옛날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다블뤼 주교께서는 어선을 타고 썰물 때를 틈타 나홀이나 걸려 그것도 몰래 숨어서 들어 오셨다. 그러나 나는 고백하기에도 부끄럽게도 1등 칸 선실의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보이의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하룻밤 새에 한국에 상륙했다. 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인가? 6시30분, “가이후루” 호는 부산항에 닿았다. 대구교구의 프르와드보 1신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선박 맞은편에 목텐행 특급열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는 그 기차 위로 올라탔고

잠시 후 기차는 출발하였다.

한국의 산천을 말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있으랴!

이제 나에게 있어 제2의 조국이 될 이 나라의 모습 하나 하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차 안에서 바라본 한국은 상당한 산악지대 같아 보였으나 불행하게도 산의 삼림은 일본처럼 우거져 있지 않았다. 소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작고 볼품이 없었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땀감으로 쓰기 위해 산들처럼 보였다. 산과 산 사이에는 논이 펼쳐져 있는데 이미 수수가 끝난 곳도 있었고 추수를 기다리는 곳도 있어서 그 모양이 마치 고향의 밭밭과도 흡사했으나 다만 이삭이 더욱 많았고 벼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한국의 집들은 작고 지붕은 모두 두터운 짚으로 덮여 있다. 물론 모든 집들이 단층집이었으나

70 제1부 나의 여행기

지면보다는 약간 높게 지어져 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아주 쾌적하고 또 아주 청결하게 집을 난방 시키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을 지피는 곳은 가옥의 측면에 좀 더 낮게 자리 잡은 작은 공간에서 하며 요리를 하는 곳도 바로 그곳이다. 온기는 방바닥 밑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다. “방바닥”은 흔히 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종이를 발랐으므로 불을 지피면 실내는 아주 뜨겁게 덥혀지며 매우 추운 날씨에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프르와드보 신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9시30분에 우리는 대구에 도착했다. 신부 한 분이 그곳에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신속하게 차에 올라타고 주교관을 향해 갔다. 드망즈 주교께서는 그의 새 사제인 토크뵈프 신부를 맞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다. 하루의 일과는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목활동을 둘러보는데 소요되었다. 즉 대구 신학 대학교, 대성당 그리고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의 사업들이 그것이었다.

11월 1일 금요일 저성침례일 1)

서울도착.

아침에 나는 파이에 신부의 본당에서 저성침례 미사를 들었다. 교우들은 이 나라의 예법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혹은 앉아서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했다. 미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창문으로 성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가 누구인지 파이에 신부에게 묻자 신부는 “과문당한 사람”이며 딸을 외교인과 혼인시켰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를 성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음을 알려 주었다. 그는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며 그리고 다분히 영적이며 또한 현신적인 이 형벌을 사면 받기를 원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비록 지금은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잘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9시30분에 전날 내가 타고 기차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교구 소신학교에서 창미사로

1) 모든 성인들의 축일

첫 대미사를 드린 토크뵈프 신부는 그 때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나를 역까지 배웅하고자 했다. 플랫폼에 이르자, 긴 여행을 함께 하는 동안 줄곧 단짝이었던 동료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만일 최종 목적지가 눈앞에 있다는 내 마음 속의 설레임이 없었던들 이 마지막 헤어짐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밖의 경치는 부산에서 대구를 갈 때와 같은 형세였다. 험벗은 암벽 쿠성이의 산들과 논, 그리고 이미 우기가 끝난 때문인지 강은 바닥이 드러나도록 말라 있었다. 서울에 가까이 오자 평원은 좀 더 넓게 펼쳐졌다. 정오에 나는 식당 칸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양식이 제공되었다.

특급열차는 정확히 3시30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세 분의 신부들이 나를 마중 나와 있었다. 나를 놓칠세라 한 분은 기차 앞 쪽에 또 한분은 중앙에 나머지 한 분은 기차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짐들은 모두 고베에서 부쳤으므로 나는 짐표를 대표부에 주기만 하면 되었고 대표부에서 짐 찾는 일을 맡아 줄 것이다. 세 분 선교사는 새 신부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다. 우리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소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출발했다. 차 안에 있는 동안 세 분 신부는 한꺼번에 말을 시켜왔으므로 나는 누구의 말에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주교관은 서울역에서 10분 거리에 안 되었으므로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서울거리를 구경한 셈이다. 서울은 대구보다 훨씬 큰 도시처럼 보였다. 도로는 훨씬 넓었고 포장되어 있으며 버스와 전차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가옥의 대부분이 초가지붕이었던 반면 서울에서는 초가지붕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주교관에 이르자 일 년 반전에 서울에 온 코요 신부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는 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탓에 치료차 6개월 간 주교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라리보 주교 방으로 올라갔다. 라리보 주교께서는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맞아 주셨다.

72 제1부 나의 여행기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분의 반지에 입을 맞추자 그 분은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시며 나를 포옹하셨다. 나는 다기 무릎을 꿇었고 하느님을 대신하는 주교님의 손을 통해 하느님의 강복이 나에게 내려졌다. “모든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하지 않았던가. 나는 곧장 주교님의 방 맞은편에 있는 소 성당으로 들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들렸다.

지금 나는 내 방에서 이 글을 씁니다. 주교관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쪽으로는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개종시켜야 할 수많은 외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쪽으로는 산이 보이는데 그곳은 성황당이나, 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마귀가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알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그 일을 합시다. 그리하면 “천주교의 작은 언덕¹⁾” 이 곧 거대한 남산 “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전진합시다.

1) 명동 성당과 주교관이 자리 잡은 언덕을 일컬음

일러두기

1. 결코 완벽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므로 이 여행기를 읽는 독자께서는 이 글 속에서 발견되는 결점들을 눈감아 줄 것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께서 보충해 주시길 바란다.

언제나처럼 이 글 속에서도 필자는 “자연스런” 상태로 남고 싶었으며 필자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필자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2. 이 여행기는 나름대로 필자에게 상당한 작업을 요했으므로 (최소한 312쪽 분량을 타이핑했고 464장의 사진¹⁾을 찍었으므로), 이 글을 대하는 분들에게서는 이것을 피자의 진심어린 신년연하장으로 간주해 주기를 바라며(그 분들 마음에도 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 안에서 성스럽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1935년 12월 23일 서울에서
조선, 서울교구 뵈에르 생제 신부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1) 편지 원문에 사진이 실려 있으나 464장은 안 된다.

1922년~1976년

쟁오메르(St omer)시에 있는 쟁베르맹(St. Bertin)중학교에서

1922년 1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성적)5+5+4+4+5=23)으로 보아서, 지난 주간을 열심히 보낸 것 같습니다. 실은 방학 전의 나의 행동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성적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23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적은 2배로 기록되는 겁니다. 따라서 B⁺점수를 4개 받았지요. 이 외에는, 좋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1922년 1월 14일)라틴어 시험이 있었는데, 한 단어(인척, 불어로 parents par alliance, affines 대신 infanes 잘못 썼습니다)외에는 다 잘 알았습니다. 결과로 적어도 두 개의 B⁺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주에는 두 번의 벌을 받았습니다.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떠들어서 15분 동안 벌을 썼고, 또 수업시간에 종이 닭을 만들어서, “구무력러기다, 놀다, 헛되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종이 닭을 만들면 안 된다”란 동사들을 (수십 번)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쁜 직을 했습니다만 어머니, 이제부터는 좋은 성적 이야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약속드린 것을 지금도 생각하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산수 숙제를 하기 싫은 마음이 많았지만 그 약속이 머리에 떠올라 그 마음을 이기고 끝까지 숙제를 다 했습니다.

77

마리 마드렌, 너도 잘 지내고 있겠지...방이나 그림이나 주방이나 (또는 요리 공부나¹⁾)다 잘 되어가고 있겠지? 이제 와서야 네가 그 때에 준 수첩이 참으로 고마운 것이라고 말해 두는 것이다. 그것을 제법 잘 사용하곤 한다.

“퐁텐느블로의 꿀벌”이란 잡지의 최근호에 로베르 생제(Robert Singer)의 시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일부만 읽어 보았어요. “다음호에 계속”이라고 했으니깐요. 하여튼 오늘 읽어본 것 가운데 3번인가 4번인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지만 “퐁텐느블로, 퐁텐느블로! 영원한 이별 영원한 회란”이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하여튼 무한히 사랑합니다.

삐에르 생제(Pieere Singer)

여기에 동봉된 간단한 글은 안느마리에게 전하도록 마르그리뜨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번역을 할 수 없음

1947년 3월 27일 서울에서

사랑하는 리세트에게.

온 집안 식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끝도 없는 일일거야. 그러나 한 번 만이라고 각자에게 따로 편지를 하기로 했어, 그것은 이 세상 저 끝에 가 있는 오빠를 휘해서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아무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편지를 한동안 중단했었어. 그 동안에 식사를 하러 갔었거든. 한국인 보좌 신부와 함께 어떻게 식사라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기에 설명을 좀 해 주마. 12시15분에 성가소비녀회 수련자인 젊은 수녀가 쟁반을 들고 오는데 쟁반 위에는 젓가락과 주전자 이외에 큰 그릇 2개와 작은 그릇 4개가 있었어. 2개의 큰 그릇 중에 하나는 밥그릇이

7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요, 하나는 마른 생선으로 끓인 국이 담긴 국그릇이란다. 4개의 작은 그릇에는 1)생선알, 2)소금물에 절인 둥글게 자른 무우조각, 3)야채 그리고 4)한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김치가 있었어. 김치란 무엇이나 하면 소금물에 절여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린 생 배추 잎 토막이라고 할까.

아 참! 상추 한 그릇도 있었는데 그것은 큰 그릇이었어. 하여간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을 먹은 다음 각자 원하는 대로 작은 그릇에 담긴 맛이 각각 다른 이것저것을 집어 먹는다.

불행히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식사를 해 온 결과로 혀가 온전히 헐렸어. 혀의 가장자리가 제일 상했지만 사방에 온통 작은 백색의 반점과 같은 것이 생겼다가 커지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또 다시 돌아나는 그런 궤양투성이란다. 이 때문에 혀를 치료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고 싶지만 별 수 있니? 특히 몹시 매우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날에는 혀가 몹시 더 아프단다. 이것은 대략 9년 전부터 지속되는 고통이다.

네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한다는데 공부에 성공하고 네가 택한 길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리세트를 위해서 자누 기도를 한단다. 너도 용기를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주의 기도”에서는 “나”란 말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한 단어만 나오고 있지않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이며 다만 진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만 반면에 모든 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하나의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우리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한국에도 간호사가 있고 적십자 병원도 있다. 이곳 간호사들이 하는 공부는 그 수준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는 것만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경시해서는 안 돼. 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 이곳에서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할 것 같으면 병원에 수녀들이 없다는 것이 첫 째요. 식사하는 방법이 그 둘째라고 할 수 있겠어. 프랑에서는 수녀들

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너도 보았으니까 알 테지만 그 병원들은 매우 청결하지. 그만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사립병원만큼이나 깨끗하게 할 수 밖에 없지. 국립병원과 사립병원들이 서로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수녀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은 하나도 없고 병원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공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란단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경쟁도 있을 수 없고, 그 보다 더 잘 운영하는 시설을 본 적이 없는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때때로 병자성사를 주거나 봉성체를 하러 가면 너무도 불결해서 성유나 성체를 모실만한 데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들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이 불결함의 주원인은 식사 문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으므로 각자가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그 가족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함께 기거하게 되어 있지. 그러므로 병원의 각 병실은 병실이면서 아울러 주방 역할까지 한다. 누구나 연기를 뿜어 대는 작은 석유곤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실 벽들이 검게 그 을러 있단다. 음식 찌꺼기나 야채 껍질들이 여기 저기 버려져 있어서 그 악취는 참으로 지독하다. 단언하건데 만일 성가 소비녀회를 못하게 하고 수녀들이 모든 입원자들의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다.

병원 안에서의 악취도 문제지만 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환자마다 자기 병실로 라디오를 갖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음이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죽기를 바라는 비신자들이 있다는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성당 부근에 있는 병원들 가운데 특별히 큰 병원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고 또 하나는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서구식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몰약과 가루약, 2가지의 처방을 무조건 해 주지만 서구식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한 의사들은 별의별 기괴하고 끔찍한 처방을 해 준다는구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체에서 받은

8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액체까지 사용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역질 날것도 없어. 난 그들을 포용해 주었다.

보내 준 헌책들을 고맙게 잘 받았어. 앞으로도 많이 보내 주었으면 한다.

1949년 3월 22일 “쌍뿔리옹 (Champolun)"호 선상에서1)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트랩이 울러지고 정박용 밧줄이 풀려지니 프랑스와의 안연도 끊어지고 가족들과의 인연도 끊어져 버린 듯싶습니다. 뿔이 부두 의에서 있건만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의미 없는 말 몇 마디를 외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싸이렌이 울리고 다가온 예인선들이 배를 좀 끌고 가는 듯싶더니 곧 배는 제 속력을 내며 달려갑니다. 뿔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그를 유심히 내려다봅니다. 그도 역시 자리를 옮기면서 가능한 한 오래 나를 보려고 합니다. 바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꼈습니다. 나의 프랑스에 대한 마지막 추억은 쌍안경과 가족 가방을 든 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양 팔을 흔들고 있는 뿔

1) 본국 휴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중에 쓴 편지.

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새겨둔 프랑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발하지마자 곧 저녁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식당에 가 보니 이게 웬 일입니까? 식당 지배인이 나를 어느 수녀와 두 아이의 어머니 사이에 앉혀 놓았으니 분명 무언가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두 아이는 여행에 지치고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느껴서인지 날이 갈수록 투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리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요청을 조심스럽게 했지만

81

다른 분들이 기분을 상할지도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게 된 수녀는 계속해서 아픈 탓으로 식당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수녀 이외에 다른 식탁에 자리 잡은 썬모르회 수녀 한분이 또 있습니다. 신부는 여러 명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는 세 사람이었고 라자르회의 주교 한 분과 수도신부 두 분, 이태리 선교사 세 분, 성모회 수도신부 두 분과 도미니꼬회 수도자 한 분, 스페인 프란치스코수도회 신부 한 분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 중에는 장교, 하사관, 헌병, 사병들과 같은 군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부인과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도차이나인들과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도차이나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부인들은 아주 가련합니다. 내 식탁 옆 자리에 앉은 두 살 반짜리와 한 갈 반짜리의 두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엄 여행을 하는 그 젊은 어머니가 특히 그렇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멀미가 나도 어머니들은 아파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니까요. 다른 쪽 옆 식탁에는 두 살짜리 남자 아이의 어머니도 있는데 거의 늘 아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을 쓴 다른 부인이 항상 그 아이를 식당으로 데려오고 또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마르세이유를 떠난 이후에는 날씨가 나쁘고 파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런지 배 멀미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르세이유를 떠날 때 날씨가 어떠했는지는 뽀에게 물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출발한 그날 저녁에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와 뽀에르 꼬베씨가 보낸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척 기뻐했습니다. 뽀에르에게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편지는 마치 유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훌륭하시고 착하신 어머님. 어머님도 선교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했겠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생각해 주시겠지만 저도 역시 헤딩(Hesdin)을 생각하고 향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8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3월 19일 저녁6시에 마르세이유를 떠나 그 다음날 아침, 일요일인 3월19일에 보니파시오 해협을 통과했고 21일 아침에는 스트롱볼러 화산과 메씨나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불행하고 짙은 안개가 깔려서 시실리섬의 산들과 에트나 화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3월22일) 낮 12시경에 크레타섬 앞 바다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날씨는 좀 좋아졌고 따뜻해졌습니다. 마르세이유에서 포트사이드까지의 거리는 1,508 해상 마일(1마일 : 1800m)¹⁾입니다. 3월20일

1) 실제 1852M임.

12시에 북위 41,08도 동경 10,16도의 지점에 있었으니 266마일을 달려온 셈입니다. 포트사이드까지의 남은 거리는 1,242마일이었습니다. 21·일 12시에는 북위 37,39도, 동경 15,12도의 지점에 와 있었고 하루 동안의 주행거리는 358마일이며 앞으로 884마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해가 순조롭기만 하면 내일 저녁에 포트사이드 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정박하면 작업¹⁾ 하기가 꽤 불편할 것이므로 내일 아침부터는 속도를 늦추어 목요일 아침에야 정박하도록 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도가 높아서 나도 계속 몸이 불편했지만 크레타섬 앞바다에 다다른 오늘은 덩지도 춥지도 않은, 화창한 날씨여서 좀 나아졌습니다. 주금 전에 어머니가 주신 림주를 좀 마셨더니 기분이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마드레노와 리세트와 헤어진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3월 23일 오후 3시30분, 어제 정오에는 북위 35,15도 동경 22,56도 지점에 있었고 24시간 주행거리는 356마일이었으며 포트사이드까지는 528마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 때문에 북위32,34도 동경29,49. 하루 주행거리가 373마일이었으므로 이제 포트사이드까지 155마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10시와 12시 사이에 포트사이드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정박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을 경우, 내일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조선 등 다른 배를 가끔 볼 수 있어서 항구가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지만 아직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견딜만합니다. 어쨌든 마르세이유의 그 날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 배의 맨 위층에는 3개의 대단히 넓은 휴게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벽에 미사를 드리는 장소로 이용하는 독서실이고 또 하나는 푸른 녹색의 아름다운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음악연주실이며 또 하나는 빨과 함께 백주 한 잔을 마신 적이 있는 아주 넓은 오락실 겸 주점²⁾입니다. 나는 2등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2등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1등실 안에 침대를 3개씩 들여놓아 2등 실로 쓰고 있는 사정이라 바로 그곳에 방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표를 가졌으면서도 1등 실을 사용하고 있는 덕분에 1등실 승객들이 식당을 포함해서 그들의 전용 시설 전부를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쌍빨리웅” 호의 내부는 이집트 식으로 장식되어 있어 고풍스럽습니다. 기둥들이나 그림들이나 동상들 뿐 아니라 의자들까지 그 모든 것이 고대 양식의 기둥들과 이집트 가구들을 모방한 것들이라서 고풍스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아주 많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수는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1,500명 이상이라고 추측됩니다.

선상에서 한국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씨라고 하는 신문기사입니다. 이상주의자이며 자부심이 강한 전형적인 한국인이면서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새벽5시가 되면 그는 반바지 차림으로 다리와 상반신을 맨살로 드러내 놓고 갑판에서 달리기와 다른 운동을 하곤 합니다. 애체로 유쾌한 여행이지만 너무 무위도식 하는 것만 같습니다. 먹고 자고 쉬기만 합니다. 건전한 종류의 노래책을 가져 오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1) 화물을 실거나 부리는 작업도 벌어진다.

2) 한국의 다방과 비슷하나 갖가지 술도 판매한다.

한국의 술집이나 주점의 개념과 다르다.

마음으로는 가끔 아니 자주 여러분 곁으로 갑니다. 한 분 한 분 모두를 떠올리며 각자가 생존하기 위해 분투노력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8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리세트. 이 배에 탄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느 보모에게 물어 보니 거기서는 간호사를 남자들만 고용하고 있단다. 이 선박회사는 원칙적으로 여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는구나. 다만 보보나 사회복지 요원으로 여자를 고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녀들은 주로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선원들이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구나.

이 편지를 지금 우체통에 넣으려 갑니다. 그래야 다음 배편¹⁾으로 프랑스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임신부님께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빼에르

이집트 경찰이 너무 까다로 와서 내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밤이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부티에 가서 내려 볼 작정입니다.

1949년 3월 27일, 홍해 항해중, 마쭈아 앞바다 쌍빨리용 고향 선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포트사이드에서 부친 편지는 아마도 이 편지와 함께 받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선상 우체통에 든 편지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갑판 사무장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트사이드에 도착하기 불과 6시간 전에 우체통에 넣은 그 편지는 그곳에서 발송하지 않고 이 편지와 함께 지부티에서 수집되어 발송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홍해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선풍기들이 돌아가고 있고 군인들과 부인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매우 가볍고 그러면서도 짐작은

85

웃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아주 잔잔해서 지중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 드린 바와 같이 지중해에서 고생을 좀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불편 없이 아주 유쾌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23일. 오늘 저녁엔 이집트 해안 쪽에서 때때로 불빛이 보였는데 밤 11시 30분경, 한동안 조종사를 기다리다가 운하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사란 원칙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방의 사람으로서 배에 승선하여 키를 잡아 입항을 맡은 사람이지만 수에즈운하에서의 조종사들은 모두 “수에즈 운하 운영 주식회사” 직원들입니다. 이때는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운하를 통과합니다. 포트사이드 근교에 있는 운하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배가 부두에서 대략 10내지 15m정도 접근했을 때 이집트 군경이 승선했습니다. 사람들, 특히 무능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일에 집착해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만큼 그러한

1) 배에서 모아진 편지들은 각 항구에 있는 선박회사 사무실을 거쳐서 본국으로 가는 같은 회사 선박을 통해 본국 항구에서 불이도록 되어 있다.

것을 봅니다. 만일 운하 관리¹⁾가 이집트인들에게만 맡겨지게 된다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하의 운영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운하를 파 낸 것도 이를 운영하는 나라도 이집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뱃머리에 이집트 국기를 달아야 하며 운하를 통과하려는 배에는 운하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경찰과 무장한 이집트 군인들이 승선합니다. 휴게실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을 때 안락의자에서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이집트 비밀경찰을 보기도 했습니다. 밤 1시 나2시까지 갑판에서 보급품을 날라주는 짐배들이나 급유중인 송유관 같은 것을 구경했는데 날씨는 아주 선선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침 일찍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사가 몽테뉴가 말했던 것처럼 포트사이드인구의 대다수가 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 것은 아

8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닌가 봅니다. 승선하여 몇 푼을 보태 달라고 강요하는 그 잡역부들은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
다. 미사를 지낸 다음에 보니까 작은 배에 탄 상인들이 우리 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
어 보니 그런 배는 무려 44척이나 되었습니다. “선장님. 선장님. 오렌지 사보슈! 바나나
사보슈!²⁾ 개중에는 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이 성화에 못 이겨 그 중의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다
라면 비록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개의 가족 제품들을 샀
겠지만 나는 겨우 샌들 한 켤레를 샀습니다. 상인은 10프랑을 내라고 하고 나는 3프랑만 내
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5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정오에 운하를 통과하는 지리한 도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10척의 선박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배는 운하 옆쪽에 정박하였습니다.³⁾ 저녁 7시경에
다시 출발하여 양고호(大苦湖-小苦湖=2개의 쓴 물로 찬 호수,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2개의
호수)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밤중이었습니다. 그 이튿 날인 3월24일에야 수에즈만 한가운
데에 이르렀는데 왼쪽에는 시나이반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홍해에 들어간
이후로는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갑판에서 만난 한국
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불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며 자부심이 좀 지나친 사람
입니다. 매일 우리는 긴 시간도아 대화를 나누는데 그는 교황청과 수도회와 정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오후5시에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3월27일)은 배에서 미사를 차례 지냈
습니다, 8시 미사에 참례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승객과 선원 총수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수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프랑스인들의 신앙에 대한 이런 무관심을 볼 때 나는 정말 화가

1) 1956년경부터 수에즈 운하 관리 운영은 이집트인들이 전담하였다. 1949년 중국에서는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패권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2) 상인들의 서투른 표현을 쓴 것.
3) 수에즈 운하는 서행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어 있다. 포트사이드와 이르면 한쪽으로 가는 선박단은 옆쪽에 정박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선박단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다 단 쪽으로 다니는 배는 없고 반드시 10내지 20척의“선박단”만 다닌다.

납니다. 이것은 그저 무관심이라기보다도 공명을 배척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 글을 보면 리세트와 빨이 “웃긴다! 고 말할 줄 알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3월 28일)오후에 지부티에 도착하여 내일 밤이 아니면 모레 아침에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가능하기만 하면 육지로 내려 가 볼 작정입니다. 그 때 어머니께서 잘 다려 주셨던 , 그러나 이미 다 구겨져 버린 여름 수단은 물론, 헤댕(Hesdin)¹⁾에 있었을 때 입고 있던 짧은 바지를 아직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T를 견디려면 지부티나 콜롬보에서 시원한 여름 바지를 한두 벌 더 사야 하겠습니다. 선상에는 꽤 많은 여군 보조원(간호원, 사회복지요원, 비서 등등...)들이 있는데 대체로 좋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리세트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았는데 그 여군에 의하면 사회복지요원 자격증에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리세트가 군에 입대할 경우, 처음부터 중의 계급장을 달 것이라니 동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레스트(프랑스 대서양변 군항)출신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이공에서 어떤 회사의 중역이며 어머니는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1식구는 나주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 미사에 그들만이 영성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의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요? 어머니께서 그 때에 입으실 옷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모두 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궁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고 따스한 보금자리인 고향집이 그렇습니다. 참! 르네는 보다 확실 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찾았는지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뽀뽀롬 가족과 블라르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삐에르 썩제

8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포트사이드에서 지부티까지 거리 1320해상마일
3월25일 정오까지 주행한 거리 166해상마일
3월25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371해상마일
3월26일 정오부터 27일 정오까지 364해상마일
3월27일 정오부터 28일 정오까지 아직 알지 못함

1949년 4월 7일, 인도양의 수마트라 서부 앞바다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항해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배 멀미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하지만 모드가 더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더위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위 때문에 모두 못이 말라 있는 데다 배에서 주는 음식들이 변비증을 일으키게 하여 우리에게 활기를 주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선실에서나 갑판 위 어디서나 “더위 죽겠다!” 는 말 뿐입니다 아이들은 땀띠 투성이입니다. 이 선상일기는 단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만 하늘과 막막하고 잔잔한 바다뿐이요, 목고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1) 본가 마을 이름

3월 28일. 밤이 가까워서야 지부티에기항하여 육지로 나간 우리는 주교와 살레시오 수도회 지부장과 여러 명의 수도자들이 있는 성당을 찾아 갔습니다. 저녁시간이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벽로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공화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관저 앞에서 보초를 서는 잘 생긴 흑인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에는 지부티에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부인들이 춤을 추러 배에 탔었습니다. 파티가 다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야회복 차림인 채로 만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부티로 가려는 남녀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89

3월29일. 콜롬보까지의 2,244해상마일이란 긴 여정을 향해 아침에 출항했는데 정오까지 이미 166마일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29일 정오부터 3월30일 정오까지 353마일.

3월30일 정오부터 3월31일 정오까지 348마일.

3월31일 정오부터 4월 1일 정오까지 362마일.

4월1일 정오부터 4월2일 정오까지 373마일.

4월2일 정오부터 4월3일 정오까지 360마일을 주행했는데 4월4일 아침 6시에 콜롬보 항에 입항하였습니다.

3월30일 저녁에는 해면동물이 잡히는 소코도라 섬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3일 일요일, 해당 아이들이 9시 주일미사 때 부르는 그 노래들을 군인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가지고 온 악보를 보고 군인들에게 그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만족해 보입니다. 승객 중 대단히 똥똥한 어느 여류 성악가가 다음 주일 미사 때 “아베마리아”를 부르겠다고 스스로 제안해 왔습니다만 그 제안은 그 여자가 신앙심일 깊어서 그런 것이 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루 중 반나절을 선상 주점에서 보내곤 하기 때문입니다.

콜롬보에서는 육지로 나가 대주교관(대교구청)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에 동물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신기한 여러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4월4일 저녁에 싱가포르를 향해 콜롬보를 떠났는데 싱가포르에는 9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7일에는 수마트라섬 알 바다에 있었습니다. 어제 배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밤에는 큰 무도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 무도회를 보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보니까 빈 샴페인병이 무려 2상자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침미사를 지낼 때까지 아직도 잠자리에 들지 않은 승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콜롬보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는 1,574 해상마일인데 4월5일 정오까지 238마일을 항해하였고 4월 5일 정오부터 4월6일 정오까지는 341마일, 4월6일 정오부터 4월7일 정오까지...

4월7일 정오부터 4월8일 정오까지 350마일을 항해했습니다.

90 제21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4월4일 콜롬보를 출발했을 때는 저녁 8시였는데 파도가 높아서 천천히 항해해야 했습니다.

4월 9일 싱가포르에 입항해 보니 “쌍모르수녀회” 수녀 세 분이 부두에 나와 있었습니다. 항만 경찰이 승선하여 여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내려 나가 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실가포르를 떠나 성주간 월요일인 4월11일, 사이공에 도착할 예전이어서 그곳에서 성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삐에르 쟁제

1949년 4월 14일 성목요일, 사이공에서

사랑하올 부모님께.

3일 전에 사이공에 도착했는데 그동안에 쟁제-비용(Singer-Billon)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항공으로 부쳤습니다. 그 일이 좀 힘이 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하긴 쉬다고 하기보다도 땀을 닦기에 매우 바쁘다고 해야 좋겠지요. 이곳은 믿을 수 없으리 만큼 더운 곳입니다. 밤에도 바람 한 점 없어서 옷 도리를 벗고 있어도 계속해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 내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다시 출발하여 부활절 이튿 날인 화요일에 홍콩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 위에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과 부활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바다 위에서 사랑하는 뿔을 위해서 미사를 들릴 예정입니다. 홍콩에서는 어쩌면 다소 오랫동안 머무를 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곳이 이곳보다 시원한 곳 이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이곳 사이공에 도착하면서 어머니의 편지와 마들레느의 편지, 뿔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세통을 받아 보고는 몹시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숨기셨습니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멀리 떠나가는 저에게는 그 사

91

실을 알 권리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추셨다는 것은 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전작 그러한 사실은 집을 떠난 후인, 파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18일 금요일, 어머니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 이제 여러분은 뿔의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겠지요! 결혼식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며 사진도 많이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곳 사이공은 더위를 제외하고는 프랑스의 도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포장된 아름다운 도로들이나 우람한 가로수들만 보더라도 프랑스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건축물들은 특이한 모습과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비약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이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모하고 또 상인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된 것을 본 좀 게으른 본토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약적인 발전은 300년이나 걸려서 될 일을 단기간에 이루어냈지만 만사가 마찰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날 전투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소문에 의하

면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그 결과, 어느 대령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금요일. 4월15일.

어제 사이공 대성당에서 “예수 수난 기념”¹⁾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과 안남(월남)인들, 그리고 중국인들, 인도인들이 모두 함께 십자가를 경배하러 나가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도 여자들의 그 거무스름한 피부색과 그 반짝거리는 옷차림과 끼고 있는 패물과 팔찌는 참으로 매혹적이었습니다.

9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모두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모두에게 그리고, 자끄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가득 찬 인사를 보냅니다.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시를 해 드리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머니를 언젠가 다시 만나 뵈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편지를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흔하지 않고 참으로 진귀한 일은 특별히 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1949년 4월 27일 수요일 홍콩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4월 18일에 홍콩에 도착하였고 오늘은 한국 선적의 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 배는 제물포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여행은 아마도 4-5일 걸리겠지만 성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지역이므로 적어도 8일 정도 걸리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이미 이야기 했듯이 “쌍뿔리용” 호에서의 여행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만 지중해에서 몸이 약간 불편했던 것과 사이공에서 홍콩으로 항해할 때 파도가 높은 날이 많아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 보아 아주 유쾌한 것이었으며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할 때 이곳 주재 파리의방전교회 경리 신부는 내 모든 짐을 즉시 꺼내서 그것을 한국으로 떠나는 배로 이미 옮겨 놓았습니다. 분실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콩까지의 모든 배 값은 264달러였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홍콩 섬의 다른 한쪽에 있는 “베타니”라고 하는 요양소로 대표부 경리 신부가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d행 중 선교사들이 대표부에서 묵는 것을 대표부 신부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타니”는 참으로 훌륭한 집입니다.

93

파리의방전교회는 홍콩에서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표부와 “베타니”라고 부르는 병든 선교사들을 위한 요양소, 그리고 “나자렛”이라고 부르는 피정과 기도의 집이 그것입니다. “나자렛”의 집 구내에는 규모가 큰 인쇄소도 있습니다. “나자렛”에 있는 선교사들은 수도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 성무일도를 공동으

1) 1968년의 전례개혁 이전에는 성부일도의 독서 기도가 9개의 시편과 9개의 독서, 아침기도는 5개의 시편이 있었다. 성삼일의 독서기도와 아침기도를 ‘어둠의 기고’라 했다. 그러나 번역은 ‘예수 수난 기념기도’라 했다.

로 바치고 대미사를 지내며 명상 기도를 합니다. “베타니”와 “나자렛”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이 두 집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한쪽은 산이고 다른 한쪽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산중턱에 있으므로 바다 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로 중국 땅이 보이며 산이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이 보입니다.

여행 중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여러 번 해수욕장으로 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서 여러 군데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등에 입은 화상 때문에 하루 동안 꽤 괴로웠습니다. “베타니”에서 전에 대구에 계시던 “무쎬(Mousset 문 제만)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난 월요일(4월 25일) “쌍뿔리용”호를 타고 프랑스로 떠나셨는데 7개월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작은 본당을 맡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지난 화요일(4월 26일) 대표부에서 전화로 제가 오늘 떠나게 되었으니 짐을 가지고 즉시 내려오라는 전갈을 보내 왔습니다. 가보니 잘못된 소식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와 여기까지 왔으니” 제타니 “로 돌아갈 것 없다.”고 한 대표부 신부의 말을 따라서 이틀째 여기에 묵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영국 부대와 가까워서 프랑스 군인들과 영국 군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흥미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보초 교대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이곳 영국 부대의 교대는 아침 8시 30분에 아주 장엄하게 행해집니다. 2개의 세 보초 단이 음악소리에 맞추어 앞뜰로 들어오면 우선 한 사람의 상사가 열병을 하고 다음으로는 장교 한 사람이 앞뒤로 복장을 세밀하게 열병하며 무기도 점검합니다. 그 동안에도 음식은 계속 연주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에게 통일된 몇 가지의 동작을 하게 한 후 10명의 보초들에게 (1개의 보초 단은 한 명의 하사와 네 명의 부하로 구성되어 있음) 음악소리에 맞추어 종대 행진을 시킵니다. 마침내 각 보초 단은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자기 초소

94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로 갑니다. 이 여러 가지의 열병행렬을 잘 지켜보면 사병들이나 잔교들의 모든 동작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지만 불규칙적인 동작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에서는 그와 같은 웃기는 일들을 하라는 강요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영국군을 강군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엄한 규율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파리의방전교회 홍콩 대표부에서 가방은 챙겨져 있는 채로 배를 타러 가게 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로 데려다 줄 사람일 끈 오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중국이므로 아마 내일도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으리라 믿어집니다. 모두가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본당 주님신부님께 안부를 전해 주시고 새로 서품된 사제에게 내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에르 썩제

1949년 5월 15일¹⁾, 서울에서

1) 불문에는 3월 이라 했으나 5월이 맞음.

사랑하는 부모님께.

여행은 끝났습니다. 3월19일 마르세이유를 떠나, 부활주일 다음날인 4월 18일 월요일 홍콩에 도착했고 25일 한국 선적의 배를 타고 홍콩을 떠나 5월 5일 인천(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기 위해서 이틀 동안 세관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제물포에서는 “작은 공베르” 신부¹⁾와 “할레로” 신부와 “프로망뚜” 신부 이 세 분을 만났습니다. “할레르” 신부는 타고 갈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파리외방전교회 대신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95

결국 그분은 5월 8일 미국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국대륙을 횡단하시고 미국에서 얼마간 지내실 작정이어서, 아마도 6월 30일경에 프하브르항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즉시로 편지를 드리지 않고 얼마간 지체한 이유는 다음 임지를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월 7일 “라리보” 주교님이, 노 주교님과 함께 자동차편으로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두 분 주교님의 환영을 받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저를 대전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니 곧 짐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혜당 성당 중口신부님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편하다.” 고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별과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 나는 몹시 걱정이 됩니다. “라리보” 주교님은 대전에 새로 설치된 “교황천지목구”의 지목구장대리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시며 대전 성당의 주임신부로 임명된 저는 말하자면 주교좌성당 주임신부가 된 셈입니다. 저의 “대성당”이란 혜당의 소 성당이나 혜당의 청소년연합회 “구내성당” 보다 별로 크지 않아요.

대전시의 인구는 20만 명인데 교회시설이라고는 변두리에 있는 프란치스코회의 작은 수도원과 시내에 있는 교구청 겸 주교관, 그리고 본당이 전부입니다. 또 남자아이들을 수용하는 고아원도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고아원에는 80명의 남자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18세가 된 아리들이 가장 큰 아이들이랍니다. 이 고아원은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맡고 보니 어리둥절하고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 해야 할 일이 힘들 것 같지만, 부모님의 기도와 하느님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 최선을 다 해 볼 것입니다.

대전성당의 일 이외에, 서울의 성가수녀회를 돌보기 위해서 때때로 서울을 왕래해야 할 것입니다. “공베르” 신부님 덕분으로 이 젊은 수녀들은 모든 면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년에는 30명의 입회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이미 3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덕에서 9명의 고아와 1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잠실리에서 4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고, 영등포에서는 겨우 명맥을 이어갈 뿐,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원에는 25명

9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정도 사는데 집은 초만원입니다. 수녀들은 검소라고 근면하며 힘 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사가 잘 되어 가고 있어서 악마가 심술을 부린 건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는 두 분 수녀님을 보내 주셔서 한 명을 원장 수녀로, 또 다른 한명을 수련장 수녀로 임시 일해 오셨는데, 그 수녀회에서 질투가 나서 그런지, 하여튼 성가수녀회의 예비수녀들을 그렇게도 잘 교육해 둔 수

1) 공베르 신부는 두 형제였다. ‘大孔神父’로 통하던 안토니오와 ‘小孔神父’로 통하던 유리아노.

련장수녀를 갑자기 소환해 버리고 연세가 많은 원장수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본국에 가고 이곳에 없는 동안 주교는 로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돌아온 저는 다만 수련장수녀가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가수녀회가 훌륭히 성장할 것을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그 장래에 대해서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으로 오면서 데레즈를 만나 보기 위해서 동경을 거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동경으로 가게 될 영사의 부인에게 데레즈를 위한 편지를 맡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한국이 이전의 한국보다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모를 겁니다. 서울이란 도시는 진창과 쓰레기투성이이며 거리는 청소되지 않아 엉망입니다. “도로 공사”와 같은 기관이 없어서 도로는 온통 패인 곳뿐입니다. 그것을 메울 시멘트도 없고 시멘트를 구입할 돈도 없습니다. 집들은 더욱더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짐들은 잘 도착했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봉틀의 바늘들이 부러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내 달라고 작크에게 편지를 써야 하겠어요. 그 기계들은 수녀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만 프랑스패너를 포함해서 수리용 도구 주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97

9월에 아마도 두 명의 새 선교사가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자를 준비하여 마르세이유로 보내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맡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제외해도 11개의 트렁크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빨의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 모두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어요.

삐에르 쟁제

1949년 6월 25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조카, 삼초과 아주머니, 산촌과 친한이들에게...

지난 3월 14일 시작한 기나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고 지금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여 있습니다. 저를 대전성당 주임신부로 임명한다고 하신 주교님께서 뜻을 바꾸어 다시 논산분당 주임신부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논산은 저에게 할당된 “주님의 포도밭”입니다. 논산은 군청 소재지로서, 약 2만 명의 인구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군 전체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기차가 날마다 몇 차례씩 이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저의 작은 심심풀이입니다. 두 말할 것 없이 이 작은 도시는 60만 명의 인구가 북적대고 있었던 서울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별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들판을 보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걸어가야 했었지만, 여기서는 별판이 바로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평온하고 조용한 곳인데다 공기가 맑은 곳입니다.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가까이는 논들이 즐비한 평야입니다. 성당 부지는 상당히 넓어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은 땅이 너무 넓어서 그 일부를 농사지을 수 있게 빌려 주었지요. 그 결과로 얼마쯤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9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이 본당은 이미 작고한 “루블레”¹⁾신부가 30년 전에 설립한 성당입니다. 그 분의 후임자는 “작은 공베르”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공베르”²⁾ 신부는 일본인들의 적개심 때문에 전 시 동안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베르” 신부의 후임자로는 적어도 4명의 방인신부³⁾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곳에 오랫동안 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베르” 신부는 작으면서도 꽤 아담함 성당과 유럽식 사제관을 지었는데, 이 사제관은 이 지역에서 복수 있는 집들에 비교해 보면 궁궐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베르” 신부는 또한 수녀들을 위한 주택과 작은 유치원(국민 학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500명의 신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800명은 논산 시내에 있고 나머지는 14개위공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오벵 새 바스트에서 헤당까지 거리에 상항하는)새로 걸립된 본당⁴⁾이 있는데, 이 본당은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갑” 교구 출신의 “베르몽” 신부가 설립하여 지금까지 주임신부로 계시는 본당입니다. 한 달에 2번씩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받기도 합니다. “베르몽” 신부는 착하고 겸손한 노인으로 하느님의 성인이며 많은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분입니다. 논산 성당에서 저는 76세 되신 김명제 신부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은퇴한 이 노인신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돌보아 들릴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더 정확히 말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바로 가톨릭계 중학교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공베르” 신부가 이 성당을 떠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

99

어느 한국 신부가 유치원(국민 학교인지?)을 남자 중학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서울교구 노주교의 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이

학교는 성당부지의 상당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금씩 더 면적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곧 700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에 착수할 때 한국 신부들은 위신만 생각할 뿐 그 사업의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진짜 함정에 빠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은 외교인이며 15명의 교사 중에 12명이 역시 외교인들입니다. 유리창의 유리들이 거의 모두 깨져 있습니다. 구유치원(국민 학교인지?)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무와 짚을 섞은 흙으로 지어진 교실들은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학교 재정은 25만

1) 루블레(Rouveret 헨리꼬 황혜준)신부는 1876년생으로 1900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1921년에 서 1923년까지 논산에 거주했고 1950년 대전에서 사망했다.

2) 공베르(Gombert 공한계 小孔神父)는 1677년생으로 1900년에 입국. 1923년부터 1942년까지 논산에 거주, 1950년 북한에서 사망.

3) 황정수 신부, 박고안 신부, 신원식 신부, 조인원 신부.

4) 강경본당.

원¹⁾의 빛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학기를 앞두고 2개의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3백만 원이나 장만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곧 학교를 떠날 것이라고 어제 나에게 통고해 주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교사들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외교인이고 빈정거리기 잘 하는 학생들에게 그 선생들을 대신하여 한 주일에 7시간의 수업을 해야만 할 것이니. 아마도 내 청춘시절에 범한 죄 때문에 톡톡히 벌을 받게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매월 500원씩의 학비 내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되어 잇는 이 학교는, 설립된 지 겨우 4년 밖에 되지 않아 현대의 학생 수는 4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명씩의 신입생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금으로 1천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중등학교에 관한 이 나라의 법률은 매우 엄격합니다. 학교를 설립하자면, 우성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은행에 5백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인가는 전임 한국인 신부가 얻었지만, 5백만 원의 예치금은 아직까지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인가 받은 학교가 유지될 수 없을 때, 국가가 학교와 그 부지를 몰수하고 학교 운영을 맡아 책임집니다.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와 그 부지를 몰수당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한편 이 학교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본 신자들은 이를 지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세운 한국인 신부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신부님이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당이 책임질 수도 없는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 교구에서는 중학교한 아나 뿐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지키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는 주교님의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인간적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언젠가는 저도 사표를 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설립한 신부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맡아 했으면 모르지만, 외국인으로서 비신자들에게, 그 사고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저 최선을 다해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당 일과 학교 일이 외에 가사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을 도와 줄 사람을 하나 구했으나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까닭에 제가 언제나 불어 요리책을 들고 주방에 들어가 그에게 유럽식 요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배추나 당근까지 심어야 하니 정신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합니다.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 냈을 때 비로소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어제는 너무 짠 스프(Soup)를 먹었고, 그저께는 타버린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포옹합니다. 프랑소아와 마리아와 에이몽, 뿔레트를 생각하고 “뿔롱” 씨와 그의 자녀들도 자주 생각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먹을 때에는 마르크 르메르아 필립보를 생각합니다. 내일 성가수녀회 피정 지도를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기차로 8시간이나 걸리지요. 성가회를 떠날 때는 마음이 아주 슬펐습니다. 그 수녀회는 잘 다녀

1) 성신부는 왜정 때의 습관으로 원을 불어로 말씀하실 때“엥”이라 하셨고 표기는 YENS라 썼다. 여기서는 이를 원으로 번역했다.

어 가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로마에서는 수정된 회헌을 보내왔습니다. 입회 신청서는 34장이나 들어 왔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베에르 쟁제

101

1949년 8월 5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조카와 질녀, 삼촌과 고모들, 사촌들과 친구들에게.

세월은 참 빠릅니다. 바로 일 년전 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 살았던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은 다 사방에 흩어져 있군요!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아 좋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름휴가를 즐기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브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나요? 마찬가지로 끌로드느? 또 끌로드느 건강을 회복했나요? 뿔과 자네트가 집에 있나요? 여러분 모두 만족하신가요? 르네는 꿈꾸어 온 그 직장을 마침내 얻었는지요? 특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는지요? 여러분의 소식을 애가 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온 이후 여러분에게 5통의 편지를 보냈으면서도 아직까지 답장이라곤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존산 성당의 주임 신부가 외였습니다. 좁지만 아담한 성당이 있고 착실한 신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서, 미사 지낼 때에는 “수단”을 입고, 그 시간 이외에는 그것을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맨발로 삽니다. 며칠 전에 중부성사를 주기 위해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야 했는데,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니 다시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햇볕에 아래팔을 데었는데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갔었으므로 더위는 먹지 않았습니다.

10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성당 맞은편은 개신교 교회가 있어서 다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리세트는 기분이 나쁘다고 할 줄로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양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쁜 목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다가 주교님은 이 일을 전혀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15일 전에 학교를 수색하러 온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30명의 학생과 교사 한 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신자 교사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10일 전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100명만 합격시키게 되었는데, 400명의 수험생이 몰려 왔습니다. 300명이나 낙방시켜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00명의 신입생을 뽑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달 중에 교실을 지녀야 하고 교실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만 주교님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학교는 이미 8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교실 신축 비는 150만원이나 들 것입니다. 신입생 각자에게 3만원씩 내라고 했는데, 모두가 낸다면 3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잘 걸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골칫거리.

이번 주에 “폴랭,” “쉬살레” ,그리고 “몰리마르”¹⁾세 분의 신부들이 차례로 예고 없이 나를 방문하러 왔는데,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영사가 그의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찾아 왔습니다. 이들은 진짜 샤프트뢰스 술 한 병을 갖다 주었어요. 샤프트뢰스 술 생산지 근처에 있는 데레즈와 폴레뜨조차도 아직 마셔 보지 못했을지 모르는 진짜 샤프트뢰스 술을 그것도 머나먼 한국에서 마시게 되는 행운을 내가 갖게 될 줄이야!

103

동료 신부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항리 랑드리외” 네 가게에서 사 가지고 온 식후 주원액의 작은 병들에다 한국의 소주와 물과 설탕을 뒤섞어서, 3병의 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맛본 모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제거해 버리지 못한 소주의 뒷맛을 빼고는, 아주 맛이 좋다고들 합니다. “체리브랜디” 한 병 “끼라사오” 한 병, 그리고 “꾸모스” 한 병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을 겁니다. 빨간 식용 무, 가지, 양배추, 당근 등 봄에 씨 뿌려 가꾼 채소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배추와 무와 쌀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월동 준비로 지금 거두어들인 것들을 좀 저장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꾼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수술을 하여야 했으므로 수술비를 내가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세례를 받은 날에는 아기 아버지가 내 저녁식사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해고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두고 보아야 알 일입니다.

한 달 있으면 2명의 새 동료 신부²⁾가 한국으로 올 것이며, 자세히 모르지만, “리차르” 신부도 살이 올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귀찮게만 해서 미안하지만, 주방 일에 직접 관여하고 요리책을 보면서 일꾼에게 요리 공부를 가르쳐야 할 형편이 되고 보니, 몇 가지의 주방 기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준비하시어, 마르세유시, 노 거리 38번지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를 통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 “튀레여과기”³⁾한 개와, 고기를 잘게 썰는 칼(이곳 고기는 얼마나 질긴지 잘게 썰어서 만두 속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개와 계란프라이를 만들기 위한 작은 알미늄 프라이팬 2개와 또 가능하면 닭 한 마리가 들어갈 만큼 큰 냄비 한 개, 그리고 완두콩 씨앗, 아스파라거스 씨앗, 양 엉덩퀴 씨앗 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1) 폴랭(고일랑)신부는 당시 서산에 계셨고 6·25때 체포되어 사망했다. 쉬살레(지세원)신부는 당시 공주에 계셨고 몰리마르 신부는 부여군 금사리 본당에 계셨다. 이분도 6·25때 체포되어 사망했다.

2) 이런 일은 없었다.

3) 삶은 감자나 야채를 짓이겨 거르는 도구.

한 달 전에 성가수녀회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를 학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 작은 수녀회는 연륜이나 지혜나 숫자 면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논산이 서울에서 기차로 6시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수녀회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한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노 주교도 라리보 주교도 저에게 때때로 그 수녀들을 찾아가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내 사정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3주 전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르뢰” 1)신부는 합덕 근처에 있는 예산 성당 임시 주님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울 까르멜 수녀회에서 내년 피정 강론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한국 수녀들에게 따로, 프랑스 수녀들에게 따로 그러니까 2개의 언어로 강론해야 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4년 전, 그 수녀회의 지원자 착복식 때, 그 곳에서 이미 강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청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백동 성당에서 내가 그 곳에서 4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성체거동을 다시 거행하였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20,00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선교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때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초대장을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휴가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같이 모두를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열심히 여러분으로 확실히 돌보아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두를 포용합니다. 나에게 보내 주시는 편지 봉투에다 여기에 동봉한 주소 표²⁾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삐에르 쟁제

1949년 9월 29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마침내 어머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8월 23일자 항공으로 보내어진 편지는 9월3일에 여기에 도착했으니 기록적인 속도로 온 것입니다. 때문에 최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한자로 씌어진 주소 표 덕분에 편지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곳 본당 주임 신부님이나 현재 자매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완쾌하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만일 의사가 좋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X-레이 치료를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아무런 귀뽀도 해 주지 않은 안느마리, 네가 참으로 원망스럽구나!

모두가 휴가를 즐겼다는 기쁜 소식, 모든 가족들이 모였다는 소식, 수험생들이 모두 합격

1) 6•25때 체포되어 사망.
2) 한글이나 한자로 된 편지 수취인의 주소 표.

했다는 소식, 이 소식들은 나를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위무를 다 하고 난 뒤에 가지게 되는 휴식과 기쁨은 더욱 감미로울 것입니다.

“위아르” 씨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결했었지요. 또한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것은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구 곳 사람들에게도 교리 시험을 치르게 했었다라면,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누가 무어라 해도 무지와 열성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이몽이 당한 사고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좀 더 자세히 소식을 알고 싶어요.

여기서 나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당에 있는 수녀들이 이곳에서 떠나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자주 하기에, 그들에게 맡길 두 가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관장 수녀에게 산호사 수녀 한 분을 이곳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수녀에게 10만원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자! 작은 시약소를 시작하십시오. 말 그대로의 진짜 진료소를 세우지만 적합한 집이 있어야 하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갖가지의 약품을 비치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들이 이 진료소를 찾아 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의사에게 월급을 줄 현 편도 못 되니 데려 올 수도 없지요. 그리니 이 10만원을 가지고 우선 약을 구입하기고 혼자 힘으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도록 하시며 환자들을 방문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잘 된다면 다음에 가서 집도 지어보고 의사도 찾아봅시다.”

그 수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아직은 시작단계이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환자를 방문하였고 1만 5천원어치의 약을 팔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수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대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신자들만이 이 시약소를 찾아 왔지만 차차로 비신자들도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대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약소를 도와주시려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충제인 프랑스제 산또닌 가루약 한 병을 사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회충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약은 없어요. 이 약병에다 약의 용법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똑똑히 써 주셔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구충약을 구입하자면 단 한 병에 10만 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항리 랑드리외” 씨를 통하면 그것을 구입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리샤르” 신부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마르세이유의 노 거리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대표부로 내게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녀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업은 소규모의 교리 학교입니다. 예전에 이곳 수녀들은 20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신부가 중학교를 하겠다고 그 유치원(초등학교)을 수용(收用)해 버렸기에, “실업자”가 된 수녀들이 철수 하

겠다는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옆에 너비가 5미터, 길이가 1,250

미터 되는 2개의 교실이 있는 작은 학교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우선 다만 너비 5미터, 길이 5미터의 교실 한 칸만 20만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 나머지를 지을 작정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이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고시 학교이지만 교리 공부를 하자면 책을 볼 줄 알고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녀들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읽고 쓰기를 동시에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 구내에 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건물이 허용되므로 국법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는 두 부류의 학생이 다닐 것입니다. 그 하나는 1,2년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읽고 쓰기를 아는 어린이로서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이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 둘째 부류는 너무 가난해서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할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 교리 학교 밖에 다니지 못할 터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읽기와 쓰기를 그리고 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00명의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와 싸워야 합니다. 부족한 교실을 신축해야하며, 그 건축비로 100만 원 이상 들 뿐 아니라, 게다가 청부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부족한 교실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업자가 며칠 안으로 교실 건축에 착수하리라고 아직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시멘트로 콘크리트 기초를 해 놓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그 업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성당 구내에 드나드는 비신자 학생들을 처음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매주 7번의 교리 강의를 있지만 이 강의의 정식 명칭은 “도덕강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이부나 장삿배처럼, 다소간 빈정거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못 구사할 때에 그들은 곤란

10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꺄꺄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힘 드는 강의이지만, 이럭저럭 끝까지 해내고야 맙니다. 지난 월요일 날, 고향 성당 주임 신부님이 주신 그 좋은 제의를 입고 이 학생들 앞에서 미사를 지냈습니다. 그 날은 한국 순교자들의 축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얌전한 태도로 참석했을 뿐 아니라 만족해 보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씨를 뿌리는데, 하느님은 그것을 잘 자라도록 돌봐 주시겠지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 그렇게 순수하면서 이해할 만한 나이의 영혼들 속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들의 신심을 구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자들 중에 영성체를 하는 사람이나 고백성사를 받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당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교리를 주입하곤 합니다. 또한 미사 때에 신자들은 신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참석을 할 뿐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떤 회장은 항상 똑같은 답답한 목소리로,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목소리로, 항상 똑같은 기도문을 외울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 “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미사”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를 번역했고, 이번 월요일에는 그것을 인쇄소에 맡기려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미사”라는 제목으로 된 책 50권을 살 생각입니다. 때때로라도 미사 때에 남녀 청년들로 하여금 계-응식으로 기도를 차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쪽에서 “나는 천주의 제대로 나아가리다.”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신...” 하고 응하는 방법입니다.

8일 전에 이곳에서 약 50키로 떨어진 곳에 계시는 “몰리마르” 신부님을 찾아뵈었는데 매우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 분한테 “플랑” 1)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아주 넓은 쉼 강보다 적어도2-3배 넓은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기에 나룻배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겁이 났었지요. 이곳에서는 그 강을 “금강” 이라고 부릅니다. 기왕이면 집에서 한국 지도를 가

109

지고 계시니, 내가 살고 있는 논산을 찾아보세요. 우선 이 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수도를 서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고 한글로 “서울” 이라고 써져 있는 도시를 찾아보세요. 다음에서 그곳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도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 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이 철도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점에 있는 도시는 “대전” 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멀지 않은 지점에 이르면 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나오는데 “논산” 이라고 써져 있지요. 다음에 나오는 역이 “강경” 인데 그곳에는 “갑” 교구 출신의 “베르몽” 노인신부님이 계십니다. 논산에서부터 서북쪽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강변에 “부여” 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강을 건너서 조금만 다시 서남쪽으로 가보면 “구룡” 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 “몰리마르”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이 여러 곳을 찾아보시고, 다시 힘들여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그 여러 곳에 작은 딱지를 깨끗하게 붙여 보세요.

두 번이나 테레즈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온 어느 미국인 신부를 통해서 그가 보낸 편지 한 장을 받았지요. 그 편지에서 테레즈는 내가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지만, 한 번은 주한 불란서 영사를 통해서, 한번은 어느 미국인 신부 편으로 편지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르네와 빨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받고 싶어요. 빨의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르네는 여전히 르하브르에서 살고 있는지요? 비취에 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공무원이 된 빨은 마침내 아파트를 구했나요? 어머니에 의하면 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장차 부모가 될 두 사람의 기쁨을 함께 하고 있으며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도록 여기 먼 곳에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 한 장도 없다니... 그 조카들이 축하의 말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 썬오메르로 곤 편지를 보낼 작정입니다. 리제트와 마리글레르가 항상 건강하고 용기를 잃지 않기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11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미셸 삼촌, 고모님, 필립, 장, 구리고 할머니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어떠신지요? 여전하신가요? 그리고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그리고 읍장님, 또한 죠셉, 포스땡, 프랑소와, 마리아, 벨레트, 레이몽,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되신 존경하옵는 “블롱” 씨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리마르”

1) 계란 과자.

신부님을 만나면 함께 카드놀이를 한답니다.

베에르 쟁제

1949년 11월 21일-12월 31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친한 모든 이에게.

요즘에는 흐뭇한 일들이 많군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8일 말에 항공으로 보내신 편지를 9월 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이 곳 주소는 여러분들에게 부쳐 드린 작은 주소 표였지요. 그런데다가 10월 12일에 데레즈가 일본에서 8월6일에 발송한 편지와 그 안에 동봉되어 있던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약 열흘 전에는 역시 주소 표가 봉투에 붙여 있는 빨과 자네트로부터 아주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라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 동안에 항공으로 부쳐 보낸 나의 편지들을 모두 받으셨으리라 믿어집니다.

요즘에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우선 11월2일부터 본당 구역 안에 있는 공소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보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성당으로 돌아왔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가야 합니다. 11개의 마을을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만 머무는 마을도 있고, 2-3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신자들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돌 바닥에 누워서 자고 신자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으니 좀 피곤하긴 하지요. 그런데다, 심하지는 않지만 영 멈추지 않는 설사병에 걸렸지요. 그래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1

첫째로 방문한 공소는 은진 읍내에 있는 공소입니다. 읍내라고 하는데, 외관으로 볼 때에는 본국의 가장 작은 마을만 못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미사를 3번 지냈고 모든 교우들에게 고백성사를 주었으며, 그들 모두에게 교리 참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 두 명의 냉담자가 고집을 부리고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공소집 주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작은 성당과 신부를 위한 방을 따로 지어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도 역시 내 나름대로의 경제적 부담을 해야만 하겠어요. 그곳 대부분의 교우들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군요.

주일을 보러 성당에 돌아왔다가, 주일 다음 날인 12월3일¹⁾에는 다섯 군데의 다른 공소를 순회하기 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월요일 날 상마루 공소로 갔는데 25명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교리 참고를 했습니다. 옹기 공장이 있는 마을이라 발전의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옹기장이들이 너무도 이사를 잘 다니기 때문이며, 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기도 하고 말다툼을 자주 하기도 해서 표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아주 잘 알아요.

화요일 날 하마루 공소로 갔는데, 그곳 주민들 역시 옹기장이들이며 그 중에는 품행이 좋지 않은 몇몇 집들이 있습니다. 제대 밑에 설치된 두 사람이 들어 누울 수조차 없을 만큼 좁은

1) 11월7일(본문에서 11월24일이 목요일이므로).

골방 비슷한 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수요일 돌분리 공소로 갔어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 곳 사람들은 전에 다녀 본 두 마을 사람들보다 낫지요. 교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기슭에 자리한 이 동네는 먼 옛날부터 신자들이 있던 동네이지만 신자 수는 많지 않아요. 고백성사 대상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재산이 약간 모이기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시 가는 사람들입니다.

11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목요일 날, 연산 읍내로 갔습니다. 이곳에도 옹기 공장이 있는 동네에 공소가 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 화가 좀 낫지요. 그래서 이튿 날 아침에는 금식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동안 계석해서 쌀밥만 먹다보니 그것에 싫증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금식이란 일종의 휴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저녁에 가서 공소 회장이 용서를 청하면서 다음 번 공소 방문까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양산 공소를 향해 갔습니다. 산 속 깊이 파묻혀 있고, 고백 대상자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마음에 드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구불구불한 길로 오랫동안 올라갔다 내려가야 합니다. 좀 서둘러서 고백성사를 다 주고 교리 참고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가장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장관이었는데 저 멀리에 논산도 보였지요.

토요일 날 본당에 돌아왔고 주일날은 점심 식사 후에 갈매울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이곳은 4일 동안 머물러야 할 만큼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고백 대상자가 있으며, 옹기장이들이 많이 사는 큰 동네입니다. 경당이라고 하는 작은 성당이 있을 만큼 열심한 신자들이 사는 공소입니다. 경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기 2-3킬로미터 지점에 나온 아이들도 있어서, 그 동네에 들어갈 때에는 내 자전거를 볼 잡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 싸여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공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교리 공부도 잘 합니다. 내년 봄이 되면 교리 문답을 완전히 암송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장엄한 영성체식”에 참가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모든 신자들이 강당, 제대 앞의 바닥에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질문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부모들도 그곳에 함께 하여 무척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가족

113

적 분위기 속에 한두 시간을 보낸 다음 모두 공식 기도문에 따라서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고향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긴 기도를 모두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산 중에 있는 쇠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소를 향해 갑니다. 이 곳 신자들은 대부분 좀 무식하면서도 순진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외교인들의 입교와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5명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5-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옛날 성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옛 성당으로 가려면 꽤 가파른 고개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고개는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그리고 대전교구와 전주교구 사이의 경계선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옛날 성당은 “퇴재 성당”이라고 하는

데, 그 주변 여러 본당의 “모본당” (어머니 본당)인 것입니다. 바로 옆인 강경 본당에 계시는 “베르몽” 노신부님은 옛날에 8년 동안이나 되재 본당에 계셨지요. 그러다가 그 곳에도 박해가 일어나면 고개 넘어 단 시간 내에 다른 행정 구역으로 다시 피난 갈 수 있는 잇점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 당시엔 교우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은 되재 같은 곳에 정착했었지만, 현재에는 되재에는 교우가 거의 없고, 성당은 무너질 지경이며 신부는 신자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더 이상 오지 않는 본당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분의 할머니를 방문하여 고백성사를 주었고, 이튿날에는 다시 성체성사와 종부성사를 주기 위해서 그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건강이 악화될 때에는 본당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곳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말복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농사를 짓는 구 교우들인데, 이들도 역시 외교인들에 대한 전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집의 주인이 좀 아파서, 식사도 변변치 못한 편이에요. 토요일 오전에는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자전거를 2시간 동안 타고 본당에 돌아왔습니다.

11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다음 월요일인 11월23일¹⁾에는 태를 마을로 나갔습니다. 역시 농사를 짓는 구교우 마을인데 전교에 약간의 열성이 있어서 몇 명의 예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의 고백성사 대상자가 있는 공소입니다. 화요일 아침 첫 새벽에 은진으로 장례미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신자인 면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망인의 집에서 미사를 지내고 나서 태틀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마지막 공소인 태밀 공소로 출발했습니다. 재미가 없는 공소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25명의 가난한 신자들은 5개의 마을에 분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비신자들 가운데서 외롭게 살면서 일 년에 단 2번 밖에 사제를 만나 보지 못하는 이 가련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좀 생각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지요.

11월24일, 본당에 돌아오자 즉시 학교 일에 정신을 쏟아야 했습니다. 봉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교사들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라리보” 주교님과 상의하러 대전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 사항에 타당성이 있어서 결국 그들의 월급은 4,000원씩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은 1년에 96만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월8일에 주교님이 논산으로 오실 예정이었으므로 지금 견진식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외한 논산 시내에만도 200명 이상의 견진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10명이 고리 찰고를 받았는데, 아직 5일 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희망자들은 날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서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진이 끝나면 성탄 축일 준비를 해야 하겠으니, 살맛이 납니다.

요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이었지만 회장들은 (회장이란 신자들의 대표라고 할까, 신자들중에서 우지라고 할까, 하여튼 6명입니다)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제관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건이란 금전 문제였으므로 그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성사 집전과 강론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교회 재정을 맡으려는 이

1) 11월21일이 문맥상 타당.

회장단은 첫 째로 주교님께 미사 예물을 비치기 위해서 각 견진자에게 100원씩 내라고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는 각 신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번 성탄 안으로 500원 내지 1만원의 교무금을 내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마음이 맑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회장단의 이 결정을 그대로 방다 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당 신부는 조금도 애쓰지 않아도, 그야말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교무금이 잘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고향 헤맹의 주임 신부님께 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은 샘을 내시겠지요. 하여튼 이곳에서 통용되는 원칙은 교회는 신부의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의 교회이며 신자들이 교회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이며, 신부는 감독하고 격려하며 지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명령계서 하기는 것처럼, 신부는 지도하고 있는 신자들을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만일 신자들이 그들 신부의 생활을 부담하지 않을 때, 교구청에서는 그 신부를 불러 들려 신부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신자들에게 보냅니다.

어머니 편지에 의하면 고향 성당 주임 신부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다지만, 아직 그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국의 우편 업무는 너무도 엉망입니다. 체신부장관은 작년에 로마로 갔을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어제 별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죽은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과 첩이었던 사람이 기일 연미사를 청하러 함께 왔었습니다. 둘 다 새로 영세한 사람들인데 둘이 자매처럼 아주 화목하게 함께 살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세요. 친척 친구 이웃 중 어느 누구라도 잊을까 싶어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즐겁고 보람된 성탄 축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복되고 거룩한 새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삐에르 쟁제

11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1950년 3월 17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어저께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 6일자의 편지와 고향 본당 주임 신부님이 5일자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울었어요. 여태껏 이렇게 울어 본 적이 없었어요. 어제 오후 5시쯤에 편지들을 받았을 때 즉시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 때 중학교생들의 교리 차고를 하는 중이었는데 편지를 받자마자 그들을 돌려보내고 성당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불과 10일 만에 참으로 기록적인 속도로 빨리 도착한 데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편지를 그와 같은 빠

른 시일 내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신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착하신 아버지, 나름대로의 성스러우신 분, 무척 용감하신 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던 좋으신 아버지를 주셨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를 평가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기억이라고는 다만 그분의 착한 행동뿐입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긍지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저의 언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끔 아프게 해드린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뵈었던 것은 적년 마지막 미사를 지내고 난 다음 혜당병원에서였습니다. 저를 포옹하시고 난 다음 저의 이마에 다 십자를 그어 주시고서 “가서 좋은 일을 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시지 않고 가셨어요. 우리의 이별은 틀림없이 그분께는 대단한 희생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한층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고 생각할 때, 저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117

주일 날마다 영성체를 하신 아버지이신데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신 것을 그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나무는 기울어진 쪽으로 쓰러지는 법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창조해 주시고 구해 주신 하느님을 생각하시고 하느님을 위해서 일 하신 분이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46년을 사시다가 혼자 남아 계시게 되었군요. 하느님이 아버지를 데려 가신 것은 어머니의 신앙심과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후에 가서 우리 사랑의 유일한 참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해 온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 가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참된 영성의 핵심은 바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더 한 층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어머니께서는 한탄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머니께서 누리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지요? 손가락을 꼽아 가며 세어보실 만큼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6년 동안 두 분이 함께 견디셔야 했던 괴로움과 어려움은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과 보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권리도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RP 있으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 영혼의 안식을 위한 첫 번째 미사를 들렸습니다. 금요일 날이며 단식의 날이라서 미하에 참례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였으며 연도를 바쳤습니다. 미사 동안에도 사도예절 때에도 아무리 참으려고 했지만 평평 울러 버렸습니다. 네! 슬프지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내면적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한 인간이기에 나도 여러분들처럼 정(情)이 있는 신간이기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참 행복을 주리실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생각하기에 아니 아버지께서 이미 그 행복을 얻으셨음을 확신하기에, 나는 오히려 기쁨을 가졌습니다. 자! 아버지의 자녀

들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갑시다. 자! 용기를 잡시다. 아버지를 본받아 마땅히 가야 할 길, 명예로운 길, 타인에게 우익한 길로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임종 이야기는 내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세수를 하시고 나서, 일생을 통해서 그토록 사랑해 오신 우리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으시기 위해서 주방으로 내려가신 것 말입니다. 혼인 생활이란 두 분이 함께 천국을 향해 서로 도와주는 생활이라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의 편지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베끼면서 데레즈에게 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즉시 저에게 편지를 써 보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어머니여, 물론 아버지께서 떠나셨지만 오늘 그분은 어제보다 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데서부터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에는 냉담자가 대단히 많은 공소에 가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거기서는 호통을 치고 위협적인 말을 해야만 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아이들은 놀랄 정도로 교리를 잘 배우고 모든 대상자들은 고배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의 장례가 이루어 졌겠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저는 본당 사제관에서 막 잠이 들려하는 무렵이었습니다. 고향의 정오는 이곳의 저녁9시이기 때문입니다.

별의 아들인 베에르 제의 탄생 소식은 나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어지신 하느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안에서 한 분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대신 즉시 다른 사람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큰 수고를 한 르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크. 너는 어머니와 합의해서 온갖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겠다. 네가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할 거시이라고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멀리 있는 나는 너에게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런 큰 집에 홀로 계시는 것은 어머님께 벅찬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행복한 나날을 보낸 우리 집을 누구에게 팔아 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금도 내키지 않는 일이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여라. 나는 어디까지나 너를 믿는다.

안느마리, 리제트, 마리 끌레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보다 너희들의 슬픔이 더 클 것 같다. 그것을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고통을 받을 때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숭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법이요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이다.

어제 오전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임종을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 때 주 자녀를 가진 병든 어떤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굉장한 부자였고, 이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품인 자가용 자동차까지 소유 했었을 정도였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아편을 피우기도 해서 폐가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부성사를 받기 전에 그 환자는 어머니에게 용

서를 빌었고 나는 그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그 탕자의 자녀들은 제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 나갑시다.

베에르 썩제

1950년 3월 28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에서 아직 헤어지지 못한 채, 어머니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두 팔 안에 마지막으로 안고 계시고 장면을 머리 속에

12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그려 보기도 하고, 정장을 하시고서 침대에 안치된 아버지의 시신 옆에 서 계시거나 테레즈에게나 나에게 보낼 편지를 쓰시기 위해서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커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여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조금도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슬픔을 이서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걸리셨던 병으로 보아서, 만일 주의하시지 않으면 어머니에게서도 우리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기를 회복하셔야 하며, 그렇게 위해서는 우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미 9번이나 미사를 드렸어요. 그 동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자들이 청해 온 모든 미사를 거절했습니다. 단 시일 내에 적어도 약20여 대의 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8시에 이곳에서 아버지를 위한 창 미사를 지냈는데, 이 미사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였고 “모리마르”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서울 까르멜 수녀원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유익하고 행복한 46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어지신 천주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로서 수백 가정들의 사정을 보아왔는데, 우리 집안만큼 행복한 가정들이 많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오랫동안 어머니를 사랑해 오셨고 바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는 천주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말씀을 들리셔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좋으신 아저지십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당신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도록 하시기 위해께서 아버지를 데려 가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어지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나도 눈물을 흘려요. 나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원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픔과 어머니의 슬픔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받으신 고난에 합쳐 봉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덕분에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과 위안을 가졌었겠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자마자, 데레즈에게 즉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데레즈는 그의 수녀원장의 편지를 받고, 당장 나에게 편지를 보내 주어서 결국 우리의 편지 2통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데레즈는 나보다 먼저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의 편지는 3월12일 자로 되어 있는데, 나는 3월 16일에야 그 소식을 알았거든요. 수녀원장이 데레즈의 편지에다 몇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45명의 수녀들 각자는 당신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동생을 형제다운 참된 애정으로 보살 피고 있으며, 동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희생과 자신의 슬픔으로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선편으로 보내신 편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대상포진으로 앓고 계시며, 어머니는 파리로 가야 할 일도 있고 가톨릭 여성단체 연합회 관계일로 바쁘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또 신문에서 오려 내신 기사 몇 장도 보내 주셨더군요. 이 소식들이 이제 모두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 되었지만 다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나 아버지의 장례식에

12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관한 소식, 마르레느와 르네, 자끄, 즈느비에브, 안느마리 아팠다는 리제트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귀여운 마라글레르, 또한 뽀과 지네뜨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놓지 않고 모드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본당 일과 학교 일, 그리고 건축 공사 때문에 너무도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본당 입구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때문 공사를 시작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학교 확장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가지 공사에 약 90만원이 들 것입니다. 또 성당 지붕은 곧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석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녹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5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학교를 위해서 두 개의 교실을 신축해야 하는데 건축비로는 6백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교리 차고를 받고 고백 성사를 받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왔기에 매우 기쁩니다. 이 기회에 몇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아영세를 시켰지만 그 후로는 손자의 신앙생활에 무관심하여서, 그 손자는 아직도 어떤 기도문도 알지 못하고 첫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성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결국 그 할머니는 오늘 아침에 교리를 가르쳐 달라면서 그 애를 수녀님들에게 부랴부

라 데려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결혼을 앞두고 어떤 청년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에게 네 스토르라¹⁾는 세례명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3월 19일에 혼배를 했지요. 얼마 전에는 중부성사를 주기 전에 어떤 혼인 조당자의 조당을 풀어주었는데, 그 사람은 78세의 나이에 정식 결혼을 한 것입니다.

123

현재 이 지방에는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약간 퍼지고 있지만, 많이 퍼지지 않았으며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돌아오신 “불또 ‘신부님이 구급약을 가져 오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교구 저 끝 지역에 발령받으신 그분으로부터 아직 어떤 소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작한 시약소가 아주 잘 되어 가는 사업이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수녀들은 이제 본격적인 진료소를 지어 달라고 벌써부터 졸라대기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없을 뿐 아니라 빚투성이입니다. 이 시약소 덕분에 몇몇 사람들에게 임종대세를 죽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볼 때 이 사업에 투자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리 찰고 받을 때에는 아주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어린이들이 고리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천주님은 몇 분이 계시냐?” 하고 질문하였더니 한 분 뿐이 라고 대답하기에 만일 두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가시 물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야 쌍둥이가 될 거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라라 자선사업 단체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고의 7개가 든 대단히 커다란 멍치와 좀 낡아 보이는 반장화와 구도 8쌍자가 있었습니다. 구두는 여자용 구두가 많은데 이 가운데는 타조의 다리만큼 굽이 높은 데다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큰 구멍이 있는 구두까지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인 이 지역의 시골뜨기 보인들에게 이 구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미사 집전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석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하지 않고 성당에 항상 비치해 두는 책을 많이 구입했는데, 이 책에는 완전히 번역된 미사통상문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날의 입당송, 본기도, 독서, 복음 등을 혼자 따로 낭독하고 다른 기도문은 남자들끼리 도는 여자들끼리 계-

12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응 식으로 하거나 남녀 모두 함께 하거나 하여튼 일반 신자들d 높은 소리로 낭송하는 것입니다.

주송자 한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일반 신자들은 어린이들까지도 함께 기도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신자들이 한국말로 미사의 기도들을 하는 동안 나는 혼자 정시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큰 소리로 “도미누스 보비스꿈” 이나 “키리에” 나 “패롬니아 세폴라 세폴로름” 하면 모두가 역시 큰 소리고 이에 응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최대한으로 집전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좀 불편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사제가 아니며 나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가능한 한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라고 봅니다.

1) 성 재덕 신부님의 부친 세례명이기도 했다.

부활 축일 때에 새로 영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약40명의 예비자는 있으나, 그들은 ,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당 대지에 새로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 200 그루의 작은 전나무를 심었는데 고향 집의 잔디밭과 벤치 옆에 있는 전나무와 같은 것 들입니다. 내일은 전나무를 좀 더 심고 500여 그루의 탱자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탱자나무란 울타리로 쓰이는 나무인데 뽕쪽하고 손가락만큼 큰 가시들이 돋아 있는 나무입니다. 성당에는 담장이나 울타가 둘러쳐져 있지 않아서,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나무들이 잘 자라 면 성당 주변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뽑아 버리고 부러뜨려 버리는 이곳 사람들의 그 나쁜 버릇 때문에, 그 좋은 때가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도 지냈고 9월간 영성체도 아였습니다. 몇몇 동료 신부들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를 지내 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맡겼습니다. 이곳 미사예물은 2,000원인데 신자들과 학교가 30,000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125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자주 편지를 쓰셔야 합니다. 자주 쓰시면 피곤해 지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편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편지를 쓰실 필요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테레즈와 나에게 각각 따로 편지를 쓰시면 우리가 그것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테레즈의 원장 수녀님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요. 일본과 한국과의 우편물 왕래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주가 어머니처럼 나에게 편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 지내시는지요? 저녁에 방에 혼자 올라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말가리다와 네레즈와 제가 집을 떠나 올 때 아버지는 매우 상심하셨던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있을 때보다 아버지는 지금 더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커다란 교훈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같이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본받으려합니다.

사랑스러우시고 좋으신 어머니.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남녀 조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베에르 쟁제

1950년 4월 15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부활 축제가 지나갔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이었던 어제는, 이 성당에서 새로 서품된 젊은 사제의 첫 미사 봉헌이 있었습니다. 전에 “공베르” 신부임이 신학교로 보내신 사람인데, 이 본당이 설립된 이래 첫 본당 출신의 사제입니다. 오늘부터 학교에서 도덕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이었던 그저께 어머니께서 4월 1일 자로 보내 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사백주일”을 맞이해서 받은 편지입니다. “프꿍” 의사의 그 편지,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가 읽기를 원하셨다는 그 편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읽도록 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그분의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3월16일 이후로는 그분 생각이 기억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임 20여대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다른 교우들과 공소 교우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하면서 미사예물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미사를 드리고 싶어도 곧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살아야 하니깐요. 매일 들어야 하는 나의생활비가 다만 미사예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본국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고독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계시고 정원에서 혼자 작업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하셨겠지만 그것은 나를 아주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걱정거리를 풀어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가끔 섭섭하게 해 드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충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버지의 노고를 보상해 주실 것을 매일 하느님께 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님은 당신의 보모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또 10년이나 20년, 그리고 심지어 30년이란 세월도 별 것이 아니므로, 결국 곧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는 행복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강론 중에서 아버지께서는 일평생을 통해서 주일마다 영성체를 하셨다고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곳의 많은 신자들도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27

부활 축일을 맞이해서 새 영세자는 10명 뿐이었습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영세 예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리 지식이 부족한 그 예비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새 사제의 첫 미사가 있었던 어제, 청년들은 대문을 장식하였고 부인들은 제의를 처녀들은 장백의를 새 사제에게 선불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새 사제의 집안이 매우 가난해서 부인들이 그 집에 가서 잔치 준비를 해 주었지요. 그 집에는 고향집의 큰 계단 밑에 있는 창고 크기만한 방이 2개 있을 뿐입니다. 다섯이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순서가 되는 것이었지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의 방들은 모두가 그렇게 좁고 천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 난방하기가 쉽지요. 또 가구한 전혀 없어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학교에 교실 두 개를 신축하기 위한 상당한 보조금을 주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6월에 있을 개학 전에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올해에는 신입생들이 6월에 입학하지만 내년에는 3월에 입학할 것입니다. 이 편지와 때를 같이 해서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약품상자를 받았습니다. 고향 성당 주님 신부님과 “플레뜨” 씨에게도 몇 마디를 적어 보

냅니다. 다음 주에 떠나시는 주교님 편에 몇 개의 작은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번 성가회 수녀들에게 피정 지도를 했을 때 수녀들이 준 것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메이스터” 청년에게나 “길보” 양에게 한두 가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만 우표 값이 너무 비싸서 이번에는 어머니께 좀 짧게 써 드리고 봉투 안에 다른 몇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할 테니 어머니께서 그분들에게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이 벽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결혼식의 주례를 해야 하며, 모례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은 생활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도둑이 많아서 경찰이 하듯이 순찰도 해야 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기 잠단속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며칠 전 밤중에 학교 안으로 들어온 도둑은 창문 유리를 70개나 훔쳐 갔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은 하루정도 일할거리가 있는 공소로 나갈 예정입니다.

12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마음이 몹시 아프실 어머니께 애정 담긴 키스를 보냅니다. 매일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삐에르 쟁제

1950년 6월 16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리고 사랑하는 모두에게
어제 어머니께서 6월 5일자로 항공으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항공 우편은 참으로 빠르고 확실한 것입니다. 좀 비싼 항공 요금이 아까긴 하지만, 도착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공우편입니다. 저로서는 불행히도 이전에 비해서 좀 드물게 편지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항공요금이 전보다 5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에 500원 하던 것이 현재는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한 프랑스 공시는 하나의 제안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선교사들의 우편물을 동경에 있는 주일 프랑스대사관까지 외교행랑으로 보내어 거기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파리 외무부로 발송하면, 외무부에서 그것을 다시 파리의 방전교회 본부로 전달했다가, 외방전교회에서는 프랑스 우표를 붙여 수취인들에게 부치면 된다는 것인데 좀 복잡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차차로 보아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떤든 이곳의 소식이 좀 뜸해져도 걱정하기 마시고 다만 “무소식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편 요금이 대폭 인상된 반면에 우편 중량에 있어서도 그전의 5그램에서 이제는 20그램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한 봉투 안에 여러 장의 편지를 넣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수신인들에게 전해 주시면 수취인들이 편지를 잘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전과 같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일본행 항공 우편요금은 별 문제가 아니므로 걱정하기 마십시오. 합의가 되는 대로 오늘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데레즈에게 보내면서 거기에 저의편지와 고향 성당 주임 신부님께서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하신 강론도 동봉하고자 합니다. 그 곳 주임 신부께서 그 때 하신 강론의 원고를 보내 주셨는데 감사하는 뜻에서 그분께 보내 드리는 편지를 여기에 동봉하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에 방학과 후가가 시작될 테니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겠지요. 나도 며칠 동안 만이라도 모두와 함께 했으면 하지만, 이것은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만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곧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을 텐데, 그 결과를 속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게 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신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철저히 손을 떼셔서 그 사업을 젊은이들에게 맡겨 두시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십니다. 물론 집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본국에 있을 때 집 손질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틀림없이 무엇인가 결정을 속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변화를 미룰수록 더욱더 변화를 두려워해서 고집스러운 수구주의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우신 어머니. 그 무수한 시련과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용기 있으시고 그렇게도 강하게 살아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고 행복과 위안을 느낍니다. 자! 어머니. 두려움이 없이 살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머니도 우리들에게 잊지 못할 모범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르네와 마리도 마침내 집을 얻었군요! 그들과 함께 나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 하며, 또 성장해 감에 따라서 어른스런

13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리제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녀는 참으로 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멋진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댓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므로... 수요일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할 때 항상 안느마리와 리제뜨와 마리끌레르를 우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장례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고 믿어요. 뿔이 지내뜨와 어린 뻘에르 2세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니. 이것은 어머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일종의 피로회복제가 되리라 ale어요. 고마운 사람들이어요. 자끄와 즈느비에브와 그들의 자녀들 모두다 간절히 오고 싶어 할 것이니 분명 꼭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휴가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해도, 온갖 시험에 합격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은 대단한 만족함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재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잘 길러 좋으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 덕분에 즐겁고 한가한 나날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페레즈와 꼴레트는 결국 “레망” 호구 변으로 가게 되었다니 요즘의 처녀들은 예전의 처녀들보다 참으로 호강하네요! 마르그리뜨는 단 하루 만이라도 집으로 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꿈에 불과하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마치 징역살아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한 달 전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입학시험 때 340명의 학생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00명만 합격했지요. 합격자 가운데 신자는 교우 2명뿐입니다. 어제 신자 학생들에게 고백 성사를 주었는데, 학생전체 600명 중에서 성사를 받으러 나온 학생은 27명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사실상 교화와 무관한 학교일뿐입니다. 나는 돈을 대는 사람일 뿐이고요. 돈을 내줄 때에만 교사들은 나에게 미소를 보내 주고 내주지 못할 때는 싫은 표정을 짓거나 사표를 내겠다면서 나를 위협하곤 합니다. 현재 학교를 위해서 2개의 교실을 신축중인데, 부담해야 하는 신축 비는 4백 50만원, 즉 약 2,000불입니다. 신입생 각자는 새 책, 교무, 단추 값으로 그리고 등록금 등으로 33,000원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건축비로 사

131

용되는 4만원의 찬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시험에 낙방했으면서도 입학하려 하는 신입생들에게는 그 외에 10만원의 기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월급을 위해서는 재학생 각자가 매월 1,500원의 월사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학교를 간신히 꾸려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앙심이 없고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들과 부족한 교실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 강의마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개월 전에 수학교사 한 사람이 나가 버렸는데, 그 동안에 후임자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학교사 자격을 가졌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소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교장은 문교부를 찾아갑니다. 학업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 되는 수학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은 항의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인데도, 왜 100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였느냐고 궁금해 하시겠지요. 그 이유는 이왕 설립된 학교를 폐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100명의 신입생을 받아 왔는데, 만일 이제부터 신입생을 못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 전체가 체면을 잃게 될 것이요, 교장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들이 사직할 것인데 그 자리를 메워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 학교를 담당할 수사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곳의 물가에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학생들이 내는 학비는 너무도 미미해서, 프랑스나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매월 내는 것은 쌀 한 말 값도 못 됩니다. 자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피복비와 식비를 누구나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썩 베르맹 중학교에 재학 중인 그 자녀들의 학비로 각 사람당 매월 빵 4근(즉 2키로)의 값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별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받는 학비는 그 정도뿐이요, 다른 학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3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을 말하면, 쌀값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쌀 한 말이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선생들의 불평도 늘어나지요. 그들을 무마시키느라고 돈이 없는 저는 좀 어중간한 방법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은 2학년이나 3학년이나 4학년에 전학하려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권한과 전학하는 학생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권한을 각 선생님께 부여했습니다. 결국 선생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기부금을 줄 만한 전학생을 찾아내느라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다 썩어 버린 사람이라고 나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나도 잘 해 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구청에서는 이 학교를 좋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학교를 맹렬히 비난하고 이 학교 설립자를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를 이곳으로 파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교구청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발언권을 왜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 피정 끝에 교구 참사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자면 주교님의 자문위원이 된 셈이지요. 이제 주교 총대리¹⁾가 그 커다란 손으로 탁자를 두드릴 때, 나도 똑 같이 하고 더 큰 소리를 질러서,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난 5월 프랑스로 떠나신 “라리보” 주교님과 노 주교님은 로마에 도착하셔서 교황님을 알현하셨고 발파의 성녀 요안나의 시성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라리보” 주교님은 어머님께 작은 소포를 부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분이 타고 가신 비행기에는 짐이 30키로 밖에 허용되지 않아서 소포에 많은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부쳐 드리겠다고 해주신 주교님은 그래도 대단히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133

“뿔롱” 씨는 지금도 건강하시겠지요. 이제 그분은 카드놀이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요? 모두에게 안부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대단히 사랑하는 삐에르 쟁제

1950년 7월 22일, 부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두에게

살아 있습니다. ... 7월14일 논산에서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곳에서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가진 것을 다 잃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신자도 없고 성당도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논산을 떠났는데, 광주까지 거의 200키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광주로부터는 아일랜드 출신 신부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7월 21일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도로에는 피난민들이 때를 지어 가소 있어서 그 모습이 1940년 5,6월 프랑스 주민들의 집단 이동^o르 연상케 합니다. 부산에 도착해 보니 프랑스인 신부 5명, 미국인 신부 2명, 그리고 아일랜드인 신부 24명이 피난해 와 있었습니다.

공세를 취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미군들은 다만 남한의 동남부만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미래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군들은 전쟁에 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수로를 위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산군들은 너무도 많은 만행을 저질렀기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들입니다. 갈아 입을 옷도 볼 만한 책도 없이, 논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승리의 날을 그냥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 옷, 식료품과 구로품 등을

1) 라리보(원형근)주교님이 출국하셔서 부주교인 총대리‘보드벵’정신부가 교구 참사회의 의장이 되었다.

준비해 주시고 마르세이유시 조 거리에 있는 파리의방전교회 연락소로 보내 제대포와 같은 것들을 땅 속에 묻어 숨겨 두었지만, 그것을 다시 찾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현재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피난길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눈에 보이도록 그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두 분 신부님의 충고에 따라서, 성체를 다 배령한 다음에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논산 성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면, 그렇게도 가톨릭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틀림없이 피살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투옥되었을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신자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신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오로 성인이 하신 것처럼, 무슨 바구니 속에 숨어서, 1)현대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탈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²⁾처럼 다른 곳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난길에서 가장 힘든 것은 38도나 되는 더위였습니다. 피난 떠나기 전에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베르몽” 노인 신부님을 찾아 갔었는데, 그분은 말라리아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연세와 제반 상황으로 보아서 그분께 종부성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느님과 교우들을 생각해서 제발 피난 가시오. 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깁니다. 어떻게 나를 걱정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그분의 소식³⁾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135

여러분 모두를 살오하며 포옹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맙시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해 있었지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빨갱이들이 여기까지 저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논산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미사주를 다 마셔 버리지 못한 바로 그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은 너무도 원통한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2번씩 식사하고 맨 땅에서 잠자곤 합니다.

베에르 썩제

1) 사도행전 9장25절 참조.

2) 루카복음 21장 21절 참조.

3) 어떤 교우의 집에 피난하였다. “공산군들이 방문을 받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군대식 경례를 받기도 했다”고 나중에 베르몽 신부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공산군들은 사경을 헤매고 계신 신부님을 짐으로 여겨서 잡아가지 않았다. 그 후에 “베르몽”신부님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1967년에 야 사망하였다.

1950년 7월 31일 부산에서

사랑하는 데레즈¹⁾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편지를 다음에 어머니께 보내도 좋으니 마음대로 하여라. 논산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신부님 두 분의 충고와 경찰의 명령에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다. 솔직히 말해서 빨갱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나도 철의장막 저 너머에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자유지대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었다. 결국 나는 부산에 왔고 그것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32명의 외국인 신부들, 그 중에는 2명의 미국인, 7명의 프랑스인, 그리고 21명의 아일랜드인 신부들이 모여 있고 본당에는 한국인 신부들이 모여 있다는구나.

7월14일 작은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자전거로 논산을 떠났다. 2명의 신학생과 함께 지독한 더위 속에서 거의 200키로의 거리를 질주했어. 그러자가는 자전거를 버렸고 자동차 편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은 미군들이 사용하는 항구여서 폭격을 당할 위험성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주님의 보호를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극도로 위험스러워질 경우에는, 다른 신부들과, 다른 신부들과 함께 잉르본까지 피난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오늘은 캐나다 신부 3명과 미국 신부14명²⁾ 이 일본으로 떠난대.

13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우리는 메리놀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머무르고 있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하루에 두 번씩 식사를 한다. 그런데 아무런 껍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료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다가 반갑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기 때문에 다소 우울한 마음뿐이다. 미군들은 후퇴만 하고 있고 가족들이 헤어져 있고, 사람들은 돈도 먹을 것도 피할 곳도 없어서 모두가 끔찍스럽게 불쌍하기만 하다. 빨갱이들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그들이 자행한 참혹한 일들과 만행에 대한 소문이자자하지만 실은 그것은 소문 일 뿐이지 목격자는 없다. 샬트르 성 바오로회 소속의 프랑스인 수녀 3명, 즉 아가다 수녀와 르제수녀와 또한 수녀³⁾ 는 군인들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대구를 떠나 그저께 여기 도착했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각자가 자기 임지로 돌아가, 거기서 힘껏 일을 하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인지, 하여간 지금 우리는 하느님이 내리신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성당도, 신자들도, 책들도, 옷들도, 성작도, 결국 모든 것을 버린 나는 마음이 괴롭구나, 그러나 목숨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논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래도 저래도 나는 신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물러섰다가 제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적어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다. 신자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렴. 정말 부탁이다.

1) 일본에 있는 여동생 수녀. 동생이므로 말을 “너...해라”식으로 번역했음.

2) 메리놀회 소속 신부들도 미국인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인과 메리놀회 소속 신부들을 구별한 이유를 모르겠다.

3) 세 번째 수녀의 이름이 원문에 빠져 있다.

“수단”을 입지 않은 나는, 마치 미군이 된 것처럼, 바지와 점퍼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 네가 과연 이 편지를 받게 될지 모르겠어. 일본으로 떠나는 프란치스코회 소속 캐나다 신부에게 이 편지를 맡긴다. 이 편지가 속히 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답장이라고는 현재로 보아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부산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편지를 보내 줄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러나 본질 위험성 때문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지.

이곳 한국에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공공연한 싸움은 어디까지 벌어질 것인지? 나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싸움은 한국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확실하리라 본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미군들이 부재한 틈을 타서, 바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다.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시련이 어서 빨리 끝나도록 시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진정한 사랑으로 포옹하면서

베에르 썬제

1950년 8월 24일, 부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산으로 피난 온 지가 거의 한 달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료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7월31일자 그 반가운 편지와, 고향 성당 주임 신부님과 빨과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 편지들과, 테레즈가 최근에 보내준 편지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의 나의 형편과 논산에서의 탈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매일매일 적어둔 일기를 그대로 베껴 들립니다.

13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6월 25일

찾아온 “몰리마르” 1)신부와 함께 잡담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였다. 밤 10시30분경,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그분은 역으로 가시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11시 반경 그분이 돌아 오셨다. 가차가 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차가 다니지 못 하는 이유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라는 소문이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이 처음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 충남 부녀군 구룡면 금사리 성당 주임 신부, 공산군들에게 체포되어 대전에서 피살되었음.

6월 26일

대전중학교는 3일 동안 휴교란다. 북한군들이 38선을 넘어 와 의정부까지 진출했다는 수문이 들려온다. 신문에 의하면 북한군들은 동쪽 중앙 서쪽 세 군데로부터 진격했다. 국립경찰이 나를 소환했기에 본당 회장을 경찰서로 보냈는데, 거기서는 경보기가 (즉 경적이나 싸이렌)울리면 소등하라는 등 공습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라는 지기를 받아왔다. “베르몽” 신부님과 “몰리마르” 신부님이 와 계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 화제거리는 미군들의 진출 여부였다. 군용 열차 5대가 지나갔다. “베르몽” 신부님은 강경 본당으로 돌아가셨다. “몰리마르” 신부님께 집을 맡겨 놓고 밤 11시 15분에, 지난 날 공산주의자였지만 그 동안에 교리도 배우고 세례도 청한 환자를 방문하러 갔다.

6월 27일

철도운행이 전무하가. 비행기 몇 대가 왔다갔다 한다. 결핵에 걸린식복사에게 한 달 간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했다. “몰리마르” 신부는 자기 본당인 금사리로 돌아가셨다.

139

6월 28일

특이 한 게 없다. 서울 성가수녀회 수녀원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물론 가지 않았다.

6월29일

북한군들이 서울 근교까지 진출하고 남한 군들은 서울 남쪽¹⁾에 있는 한강 다리 4개를 폭파시킨 뒤 남쪽으로 후퇴했다는 소식이다. 점심 식사 후 안절부절 못 해서, 강경으로 “베르몽” 신부님을 찾아갔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들의 진격을 예고했다(발표했다고 라고 할 수도 있음.)과연 편대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이 여러 번 지나갔다. 미 군함들이 해안을 경비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의 상륙도 막고 있단다. “베르몽” 신부님은 몸이 약간 불편하신 듯하다. 논산 본당으로 돌아와, 성부일도를 바치고 있을 때, 온갖 짐을 가지고 그들의 식복사와 그 부인을 데리고 온 아일랜드 신부 두 분이 차편으로 도착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투숙하는 첫 번째 피난민들이다. 이 한국전에서 “트루만”이 원폭을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대전 중학교에서 나에게 전해 주었다. 그럴 수가 없지 않는가?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서울에 계신 미국신부님들은 6월26일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한다.

14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6월 30일

1) 당시 영등포 이외에 한강이남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이었음.

미사를 지내고 난 다음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폴리마르” 신부는 몇 가지 소지품을 찾으러 오셨다. 다소간 허위적 온갖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것, 북한군 2000명이 투항했다는 등 그런 소문들인데, 라디오에서는 역습 준비 중이라고 할 뿐이다. 오후 한 시에, 저공비행하는 비행기가 “한국국민들에게 보내는 백아더 장군의 담화문” 이라고 하는 호위를 뿌리면서 지나갔다. 라디오에 의하면 남한 군들이 2개의 읍을 북한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한다. 탱크를 몰고 온 북한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울의 극장 건물들 속으로 피했다. 저녁에는 “폴리마르” 신부님이 계시는 본당 출신 신학생이 서울을 탈출해서 도착하였다. 이곳 출신 신학생 3명이 곧 도착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무사하다는 소문이다. 서울 근교에는 도로들이 피난민으로 메워 있어서 프랑스의 1940년도 5-6월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각 성당에 신부 한 분씩만 남아 있을 뿐 다른 신부들은 모두 피난 갔다고 한다. 6월 27일 탱크를 몰고 온 북한군들은 기관총을 소아 주민들을 겁나게 했다. 앞으로 닥쳐 올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내일부터 피난민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겠다.

7월1일

비가 많이 오기에 작전이 중단되겠지. 그러나 구름 위에 지나가는 미군 비행기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비 때문에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에 지장이 생겼다. 불가불 쌀을 비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은행에서 40만원을 인출하는데 간신히 성공했지만 오늘은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찾아오지 못하였다. 역시 돈이 없어서 대전 중학교에서는 교실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방학을 줄 것만 같다. 대전으로 내려 와 있는 정부는 미군들이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도록 전주로 후퇴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저녁에는 윤 필립보 신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도착하였다.

141

7월2일(성모의 엘리세벳 방문 축일)

주일이므로 미사를 3대 봉헌하였다. 미사 때마다 전쟁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다. 이 전쟁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참회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미사 동안에 먼 곳에서부터 폭음이 들려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경에 있는 박전소가 폭발했다는 소문도 있다. 전기가 단전되어서 라디오¹⁾를 들을 수 없다. 소식이란 주민들이 전하거나 오열들(불순분자들)이 유포하는 소문뿐이다. 상황이 위급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성당 종을 치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에 다시 들어 갈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 강경부르전소 폭격이란 게 사실무근이며, 다만 지나가는 비행기가 3개의 빈 휘발유통을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소문도 있다. 과연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그 결과로 희망도 기쁨도 모두가 되찾을 수 있다. 교리학교 확장 공사(42쪽 참조)와 성당 지붕 칠 공사가 오늘 끝났다.

7월3일

1) 당시에 “라디오”란 모두 전기용 라디오 뿐, “트랜시스터 라디오”란 것이 아직 없었음.

강경성당 베르몽 신부께 다녀왔다. 별다른 일이 없다. 이곳 출신의 또 다른 두 신학생, 즉 조 안토니오와 최 바오로가 밤중에 도착했다. 둘 다 건강하고 무사하여서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공베르”¹⁾ 두 형제신부는 서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나 “꼬요스” (한국명 “구인덕”)신부와 “비에모” (한국명:우일모)신부²⁾는 무소식이다.

14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7월4일

피난민들이 도착했다. 어느 가족에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잃었다. 오후 2시30분경, 피난민들이 탄 기차가 도착했다. 천정이 없어 몹시 뜨거운 햇살을 그대로 받는 화물칸인데, 피난민들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꺾어 그늘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줄 것인가? 지금까지 그들은 체면을 차리느라고 아무것도 요천하지 않았고, 나도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감히 자청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떼지어 벅을 것을 얻으러 오게 되면 있는 것을 단번에 소비해 버리고 남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 비행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즉시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7월 5일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의 축일 처음으로 따로 지냈다. 대미사도 지내고 한국을 위한 특별기도도 하였다. 24시간 이내에 북한군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원폭을 투하하겠다고 트루만 대통령이 위협했다는 소문이 퍼진다. 트루만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또 한 번 헛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지키는 침묵과 더불어 근심스러워 보이는 모습은 전반 분의기를 가일층 불안하게 한다. 피난민들의 짐을 실은 차량들이 남쪽으로 향해 지나갔다.

143

7월 6일

새로운 소식이 없다. 군인들을 많이 태운 차들이 지나갔다. 군인들 가운데 부상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확인해 보지 못했다. 계속해서 도착하는 피난민들...

7월 7일

오후에 2발의 대포 폭음이 들려온다. 소나기가 쏟아질 듯한 무더운 날씨다. 라디오에 의하

1) “공베르”:(한국이름 공안국 별명 대공신부)당시 혜화동에 있던 가르멜 수녀원에 있었고, 그 동생은 (한국명 공안세, 별명 소공신부)인천 답동 바오로회 수녀원에 기거했다. 둘 다 이북으로 납치되어 1950년 11월 12일과 13일 각각 사망했다.

2) “꼬요스”신부는 구사일생으로 무사 귀환(1935년) 당시에 혜화동 신학교에 계셨다. “비에모”신부는 그 당시에 서울 명동 바오로 수녀회 수녀원에 계시다가 납치되었고 이북에서 1950년11월11일 사망했다.

면 충주와 홍성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군들이 상당히 진군하였고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미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기저하?

7월 8일

특기 할만한 것 없다.

7월 9일

오전 11시에 신학교 학장인 정규만 아르코 신부는 신학생 7명을 데리고 서울에서부터 걸어서 도착하여 미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였다. 저녁에는 천안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역시 저녁에 장호원 지방 출신 박고안 프란치스코 신부는 다른 신학생 한 명을 데리고 도착하였다.

14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7월 10일

아침 식사 후, 신학생들은 전주를 향해서, 박 신부와 정 신부는 대전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나는 말라리아로 앓고 계시는 “베르몽” 신부님을 만나러 강경으로 갔다. 본당에 없는 사이에, 신부와 아일랜드인 신부 여러 명이 들였고 편지 여러 통을 두고 갔다. 저녁에는 정 신부와 박 신부가 돌아 왔다. 미군 탱크들이 성당 바로 뒤에 있는 부창국민학교 운동장에 자리 잡았다.

7월 11일

정신부와 박 신부는 나바위 본당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오후에는 굉음을 내면서 여러 대의 비행기들이 지나갔다. 부르릉 소리가 아닌 이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저녁에 다른 피난민들이 도착하였다.

7월 12일

천안이 수복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어제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어서 소식이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전투 중 몇몇 북한군들이 예산 쪽과 부여(“몰이마르” 신부님이 계시는 곳)쪽으로 진격했다가, 마침내 격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산도 논산도 곧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포 소리를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서울에서부터 산길로 걸어온 가엾은 피난민들이 또 도착했다.

7월 13일

전에 파리외방전교회 한국 지부장이셨고 현재 공주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시잘레” 신부

는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왔다. 공주는 논산과 천안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이다. 최후의 순간이 되어야 피신하겠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는 분이라소 몹시 놀라기도 했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공주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군들이 참전하고 있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 그분은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145

7월 14일

소식들이 비관적인 것이어서, 성작과 같은 귀중품을 땅 속에 묻게 하고 쓸데없는 서류들을 태워 버렸다. “시잘레” 신부가 공주로 돌아갔으므로, 강경에 계시는 “베르몽” 신부임을 찾아갔다. 그분은 쓰러진 일이 있어서 지난 3일 동안 식사를 전혀 못하셨다. 제반상황이 심각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어서, 중부성사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냐고 하니, 그분은 받겠다고 하셨다. 그곳 감실의 성체를 다 배령했다. 그분은 가지고 계시던 “딸라”를 건네주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피난 가시오. 나를 걱정 마시오.” 하셨다. 금강 변에 있는 강경을 떠나, 논산으로 돌아왔는데 강경을 떠나자마자 주민들에게 피난가라는 당국의 명령이 내려졌다. 집에 돌아오자, 빨갱이들이 공주를 장악하고 논산을 향해 오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집에 없는 동안에 수녀들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난 가 버렸다.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고백성사와 심지어 세례성사까지 청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도 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몇 가지 소지품을 안전하게 감추어 놓고 싶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이제 나를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피나 가고 있다. 그리고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온다.

저녁에는 논산의 고급공무원인 박창래씨가 돌풍처럼 사제관에 돌입하여 “신부님 고백성사를 줘 주세요. 모두가 피나 가니 저도 떠나렵니다.” 고하였다. 그는 어린애처럼 울기만 하는데, 여러 해 동안에 고백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신자들도 피난을 가라고 하고 “시잘레” 신부도, “베르몽” 신부도 마찬가지로 피난을 가라고 하여 결국 저녁 7시경에 2명의 신학생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피난 가지 않겠다고 김명제 베드로 신부¹⁾에게 성당과 모든 소지품을 맡겨 두었다. 피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비겁한 짓은 아닌지? 아무튼 커다란 모험이 시작되었다. 길모퉁이에서 성당종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가, 논산에서 약 30리 거리에 있는 태틀 공소로 갔다.

14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7월 15일

미사를 봉헌하지 못했다. 태틀 공소 신자들이 고백성사를 청하였다. 아침 식사 후에 그곳을 떠나 여산, 익산, 삼례를 거쳐 전주로 갔다. 전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대성당에서 3시간 동안 설 수 있었다. 김현배 발토로메오 교구장은 평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피난길을 계석하여 마침내 원평리의 어느 신자 집에 도착하였다. 오늘은 200리 이상을 달렸다. 그것은 출발한 후 가장 오래달린 구간이 될 것이다. 날마다 하는 성

1) 당시 만 69세.

무일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찌는 듯하게 더운 날씨인데다. 마음이 매우 심란하다.

7월 16일

허약해지고 매우 지친 채, 신학생들을 데리고 정읍까지의 70리 길을 갔다. 일요일이지만, 미사도 못 지내고 성무일도도 하지 않았다. 점심 때 정읍 성당 사제관에 도착해서 잠을 잤다.

7월 17-18일

다소간 위급한 상황이라는 경보가 여러 번 있지만 정읍 성당 주임 신부의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이곳에서 그대로 쉬었다. 대전에 관한 소식들은 비관적이다. 미군들은 싸우려 하지 않은 듯하다.

7월 19일

더욱 나쁜 소식만 들려와 정읍을 떠나 남쪽 행정구역인 전남 안에 있는 장성을 향해 갔다. 이제 와서 피난이 상책이라고 말하는 정읍성당 주임 신부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도중에 높

147

은 고개가 있어서, 나로서는 한 동안 멈추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무시무시한 더위와 합든 일로 내 심장이 심하게 뛰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고개 맨 꼭대기에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시원한 샘물을 솟아오르게 해 주셨다. 오후 3시경에 장성에 도착하였다. 사제관도 성당도 아주 넓었고 한동안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7월 20일

광주를 향해 갔다. 광주에 도착하니 우리들의 운명이 그곳¹⁾ 신부님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 서남쪽으로 즉, 목포로 가는 것이 좋으나? 동남쪽인 부산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신부님은 s에게 부산으로 가라고 하신다. 부산에는 프랑스인 신부 여러 명이 이미 와 있다고 덧붙여서 이야기 하신다. 우리는 그 신부님의 지프차로 떠났다. 광주 시내 회장과 들의 아들, 곁고 어느 아일랜드인 신부와 함께 떠났다.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두 신학생과 헤어져야만 했다. 내 자전거를 조 안또니오 신학생에게 주었고, 또 신학생 각자에게 2000원씩 주었다. 밤이 어두워졌을 때 어느 본당²⁾에 도착해 보니 사제관이 이미 비어 있었다. 이곳 주임 신부도 이미 피난 간 것이었다.

1) 광주 북동 성당.

2) 순천?

7월 21일

미사 후에 박창래씨를 포함해서 논산에서 이곳까지 온 몇몇 신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데서 온 피난민도 많았다. 우리는 부산을 향해 떠났다. 가는 도중에 보니 진주를 향해 가는 군인들이 많았다. 풍경으로 볼 때 너무도 멋진 여행이지만 자갈 때문에는 너무도 괴로웠다. 이자갈 투성이의 길은 너무도 험난한데다가

14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진주 성당¹⁾사제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저녁 7시에30분경에 부산에 도착해 보니 대전에서 내려온 “보드뱅” “차보” 조제 “뽕요” 신부님들과 공주에서 내려온 “시잘레” 신부님이 이미 와 계셨다. 이분은 7월 14일 오전에 논산을 떠나 공주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이지만, 도중에 저지를 당하여 어느 사람 집에 오토바이를 두고 걸어서 공주 시내로 들어가셨다. 목적은 몇 가지의 소지품을 가지러 사신 것이었다. 그 때에 공주 시내에 여러 군데서 화재가 나 있었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저녁에 논산으로 다시 왔지만, 도착한 시간은 내가 출발한 30분후였다. 아무튼 부산에서 이렇게 여럿이 서로 만났으니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함덕의 “베랭” 신부, 공세리의 “불또” 신부, 천안의 “불리”²⁾ 신부와 서울의 신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전이 함락되었다는 불길한 소식이다.

7월 29일

비가 온다. 상자들, 보따리들, 가방들이 쌓여 있는 좁은 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인데 더군다나 비가 올 때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만 모기장도 없다. 이상하게도 이곳에 도착한 며칠 후에 장항에 계시던 “프로망뚜” 신부가 내가 온 바로 그 길로 해서 이곳에 도착했다. 공주에서 신학생에게 맡겼던 자전거를 그 신학생이 가져왔기에 그것을 타고 가끔 외출한다.

부산에서 어떻게 소일을 하느냐 하면, 날씨가 매우 더워서 바다로 내려가 수영도 하고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산에 올라가 선박들의 출입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탱크, 트럭, 기관차

149

등등 미군들의 거대한 장비에 대한 하역 작업도 구경합니다. 그리고 카드놀이도 하고 독서도 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7명의 아일랜드 신부도 있는데, 아주 능란한 이들은 온갖 미세 통조림을 갖다 줍니다. 식사문제에 있어서 그저 만족합니다. 밤에는 매우 더워요. 모기장이 없어서, 모기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차로 밤이 시원해집니다. 이불도 없고 옷도 없어서 야간 걱정스럽지만, 하느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진주 성당.

2) 충남(대전교구)에, 여기에 명시된 신부들 외에, 서산에 “골랭”신부와 장항에 “프로망뚜”신부도 있었다.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근처에서 빨갱이들은 병력도 많이 잃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성인 독신 남자의 살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즉 흙이불, 양말 같은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기서 그것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돈도 없거든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넘칠 만큼 많습니다. 몇 명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해서, 가끔 군인병원을 찾아갑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을 봅니다. 중상을 입은 수천 명의 그 불쌍한 군인들이 맨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배나 방공에 관통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위생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만일 리제뜨가 이 광경을 보았을 경우에는 속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총알이나 포탄으로 부상한 피난민들도 입원해 있는데, 피난 도중에 6명의 아이를 잃었는데다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신이 총상투성이인 사람도 있습니다.1 죽어가는 이 어머니 옆에는 남은 두 아리가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배도 고프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당하고 있지만, 아마도 유럽이 당할 차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련이 30사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5개의 사단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특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포옹합니다.

편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썩제 신부 -가톨릭 선교단

15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미군 우편국 50호

경유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치스코시 우체국장

비고 “부산” 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베에르 썩제

1950년 9월 18일, 부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러분께

그저께 대전, 논산 등의 사진을 보겠다고 해서 공군부대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 편지가 와 있어서, 항공우편이 잘 되는 것을 실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헤당에서 9월 8일에 부쳐진 편지를 16일에 받다니... 하느님께 감사를 들릴 따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는 불쌍한 로베르의 사망을 알려주셨군요. 오늘 아침에 그이를 위해서 연미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무더운 계절이 끝나고 선선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제게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한창 여름에는 날씨가 하도 더워서 아주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현재에 그런 옷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옷을 입어 보았지 다가오는 추위를 이겨내지는 못하겠지요.

다행히도 요즘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유엔군이 제가 일 년 동안 보좌 신부로 있었던 인천에 상륙했거든요. 인천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유엔군들이 서울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긴 빨갱이들이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만 미군들이 서울을 장악하기만 하면 부산근처까지, 한반도의 남쪽지역으로 전진해서 싸우는 빨갱이들의 보급선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릴 것입니다. 빨갱이들의 병력 중에서 90%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미군들은 “전멸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투항하라!” 는 내용의 호외 수 백 만장을 뿌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엔군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논산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

다. 논산으로 돌아가면, 두고 온 책이니, 옷이니, 가구니 선구들이니,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군부대에서 본 사진들에 의하면, 논산 성당 구내 건물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한이 수복될 때 남한 당국이 취하는 보복 주치들이 극심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빨갱이들에게 다소간 동조한 모든 이들이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소식통으로는 빨갱이들이 전쟁을 단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군들은 점령한 남한에서 50만 명의 청년들을 만주나 소련으로 강제로 끌어가 새로이 군단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 소식을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허위 소식일 수도 있지만, 소련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는 수법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요? 빨갱이 포로들이 잇는 수용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아직 아리타를 벗지 못한 17이나 18살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세례를 준 어느 착한 사람도 다시 만났어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강제로 공산군에 입대하여 억지로 남쪽으로 점령군이 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전진하여 남쪽 땅을 점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들은 무기를 제공해 줄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빨갱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 남쪽을 휩쓸어 버리는 뿐이었으므로 사상자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이 사상자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아닐 때에는, 더군다나 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빨갱이들은 자본주의자들이 사람을 다만 “총알받이” 로만 평가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그들이 자행한 것을 보면 그들은 순 위선자들뿐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이 다가 오고 있어서, 빨갱이들이 북쪽으로 다시 도망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엔군들이 만주와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갔으면 합니다.

15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서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논산에 두고 온 것이 어느 정도 약탈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셨고 논산에 그대로 있기로 하신 노인 김신부님 덕분에 약탈당하지 않은 것이 많을지 모릅니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이불이나 담요, 그리고 내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어라도 사야 할 텐데 상변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고 만일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입니다. 지난 부활 때 돌아가신 “메리상” 신부님이 입으셨던 “수단” 을 며칠 전에 얻었습니다. 모자도 없지요. 피난 올 때 방서(防暑) “헬멧” 을 쓰고 왔지만, 지금 계절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생활필수

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기만 합니다. 예전에 20전 하던 계란 한 개가 이제 200원이나 하는데 1원이100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물가고입니다. 논산을 떠났을 때 쌀 한 말에 20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비싼 것이었지만, 지금은 일 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어머니 곁에서 멋진 휴가를 보내었다니 매우 기쁩니다. 르네와 메드렌스가 마침내 자기 집을 가졌군요. 뿔과 지네뜨도 하루속히 자기 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끄와 즈느비에브와 그들의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지요? 이부는 무엇을 할 작정인가요? 장삐에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베르나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된 것 맞지요? 합격한 끌로드와 페레즈와 폴레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끌로드는 작년에 있었던 작은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는지요? 독신으로 살기로 한 리제뜨에게는 강한 용기와 건강한 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느마리와 말끄레즈는 만일 장사를 할 경우에 아버지보다 더 넓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보다 더 크게, 모든 일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줄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봉된 편지를 전하시면서, 그곳 성당 주임 신부님께 다음 2가지의 사항을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째로는 그분에게 보내는 편지는 15일 전에 쓴 것이지만, 이제야 보내 드리는 것이라고 직접 부쳐 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내드림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둘째로는 그분께 약속한 신문기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지만 곧 보내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153

미군들은 대단히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철도에200여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중 파괴되었던 곳을 미군들이 이미 다 복구해 놓았답니다. 또 앞으로 며칠 사이에 잡게 될 많은 포로들을 위한 침구나 신발 같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포옹합니다. 모두에게 온갖 좋은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또 휴가가 끝나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힘내어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일종의 싸움이므로, 날마다 힘차게 싸우십시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 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전쟁과 같다.” 1) 고 옛날 읍 성인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모두를, 특히 어머니를 뜨겁게 포옹합니다. 여기에 동봉된 편지는 마리아 고모님께 전해주십시오.

삐에르 쟁제

1951년 1월 25일, 부산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두에게

사는 게 왜 이렇게도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 5일 저녁에 다시 부산을 향해 피난을 떠나야만 했고 그 이튿날 저녁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로 피난 온 것인데 트럭을 타고 왔으며 우리 소지품도 가져왔어요. 소지품이라고 해 봐야 별로 남은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나는 요와 이불 등의 침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한 달 정에 일본 동경으로

1) 읍기 7,1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 2가지로 했음.

주문한 옷가지들은 바로 이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 온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었으나 싶기도 하고 이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들이 대전까지 내려오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또 지금 미군들이 정신을 차려 위기를 만회하려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당한 피해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임자에 그대로 남은 이들은 모두 피살되거나 포로로 잡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15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지로 미리 피난 온 것입니다. 평양교구, 서울교구, 전주교구 신부들이 몽땅 부산으로 피난 와 있습니다. 1940년 5월-6월 프랑스 북쪽에서 있었던 덩케르크사태와 비슷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우리 소지품의 일부라도 안정하게 일본으로 수송하기로 한 우리 파리의방전교회 한국지부장은 나에게 그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셨지만 사태가 호전되려는 것 같아서 나의 일본행 여행은 연기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할 일이 너무 없고 생활 너무 무료해서 어느 미군군종 신부가 해 온 제안을 수락할까 합니다. 그 제안은 140명의 포로를 맡는 신부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곧 어느 섬으로 이송될 예정인데 그들의 사목을 맡게 된다면 나도 그들을 따라 그 섬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 가게 되면 별도의 숙소를 가질 것이고 이 수용소 저수용소를 돌아다니면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고백성사도 주고 미사도 집전하고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적대감이 그들과 나 사이에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산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섬이요, 나 혼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인 그들은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공간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그들은 증오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군종 신부는 가장 자리에, 즉 부산에 있는 포로들을 위한 병원에 그대로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분이 혼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힘에 벅찬 것입니다.

한국인 사제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나에게 구와 같은 제안을 했으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바보스럽게 이용만 당하게 될 것이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155

어머니께서 1950년 12월 27일자로 보재 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안녕하다니 다행입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원은 잘 발전해 갑니다. 수녀들도 피난을 가야만 했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는 부산으로, 또 10명 정도는 제주도로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곳에서 100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한국 병원에 5명이나 되는 사람을 취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어느 미군부대에 미사를 지내러 가게 되었으니 그 기회에 그 병원을 찾아가 취직 알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동란에 수녀 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다른 2명은 빨갱이들에게 감금되었다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미제 통조림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할 것 같기만 합니다. 언제쯤이야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날씨가 어지간히 추워졌지만

이곳이 남쪽 지방이라서 밤이면 서울보다는 덜 춥습니다. 그러나 포로니, 군인이나 모두가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산에는 지난여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와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피난민들을 배편을 이용해서 인근 도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3000개의 섬이 있다니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남쪽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중공군들이 있는 북쪽에는 티푸스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나는 “베르몽” 신부님과 함께 이 근처에 여러 번 산책 나갔습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서 풍경이 매우 아름답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귀에 동상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길게 쓰고 싶지만 서신 왕래가 여의치 많아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편화가 빨리 왔으면 참으로 참으로 좋겠지만, 이곳에서는 제 3차 세계대전이 금년 어느 날에 터지고 말 것이라고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특히 어머니를 포옹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과 친지들에게도 인사를 보냅니다.

베에르 쟁제

15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1956년 12월 16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나의 누이동생 말가리다에게,

나는 관공성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네가 지난 11월 9일에 보낸 정겨운 편지를 받아 보았다. 나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곁봉투 뒷면이나 편지 안에다 너의 주소를 적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마다 11월, 12월 그리고 2, 3월과 4월의 일부분은 언제나 분주하지만 그 외에는 좀 여유가 있는 셈이다.

11월 3일부터 내가 한 일을 알려 주마. 하느님의 안배를 나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성무집행을 마칠 수 있었으며 모든 일이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되었다.

11월 3일부터 19일까지는 12군데의 교우촌을 방문하여 교우 수에 따라 미사를 한 대 혹은 두 대씩 드렸으며 금사리 성당을 방문했다. 그 본당의 몰리마르(Molimard)신부는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시어 그 성당은 나의 본당에 병합되었으므로 당분간 내가 대리임무를 보고 있는 셈인데 언제쯤이나 주교께서 그곳에 주임 사제를 보내실지는 나도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교리 공부, 찰고, 성사, 견진, 공부 등이 일을 더 맡아야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나는 본당으로 돌아와 있으면서 보좌 신부로 하여금 교우촌 10여 곳을 돌아보게 했다. 23일에 나는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금사리로 다시 출발하였다. 고해성사를 주었고 236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시러 오시는 주교님을 맞을 채비를 하였다. 그 많은 견진자들을 나 혼자 준비시켰어야 했으니 서류 작성만 해도 엄청났다. 삼위일체 중의 한 분이신 성신을 영접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인 사람들도 있었다. 26일에 나는 주교님과 함께 이웃 프로망투(Fronebtoux)신부의 본당으로 가서 152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었다.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27일에 집으로 돌아와 너의 편지를 읽었다. 12월 12일 르, 여기서 40km 떨

어진 곳에서 종부성사를 청하기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비와 눈이 바람에 섞여 치는 매서운 날씨였으므로 강을 건너야 하데 뱃사공이 이편으로 건너오지를 못하는 지경이었다. 어쨌든 강을 건넜고 길을 잘 못 들어 두 시간이나 헤맨 후에 환자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30년 전부터 외교인들 속에서 사는 냉담자였다. 환자를 주님 앞으로 회두시키고 주님께 의탁했는데 그녀는 견진성사도, 7성사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철저한 냉담자였다. 저녁 7시에야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지만 뿌듯하였다.

3,4,5,9,10일에는 다섯 군데의 다른 공소를 방문했고 그 이후로는 이 곳 본당의 성무집행에 들어갔다. 교우 한 사람씩 와서 교리문답을 외우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말한다. 11일에는 여아들 전부를 보았고, 12일에는 남아들을, 14일 오전에는 남학생들을, 오후에는 여학생들, 그리고 오늘은 예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올 것이며 내일부터 사흘간은 성인(成人)들에게 성사를 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인 21일에는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뒤쳐진 교우들을 위한 성사와 성탄절 준비만이 남을 것이다. 네가 보다시피 내 생활은 무척 분주하지만 나는 결코 그것을 한탄하지는 않는다. 나는 물을 찾은 물고기처럼 행복하며 나에게 이러한 영예와 훌륭한 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다. 좀 그것으로 인해 영광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란다. 선교사의 기쁨은 실로 커서 마치 정신세계와 작품이 더욱 더 완벽함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기쁨이나, “보시니 좋더라……” 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곳에 있는 기쁨, 그 분이 원하는 것을 하며 그 분과 함께 있는 기쁨, 수많은 애공을 하는 기쁨, 스카웃 단원들 처럼 선행을 하는 기쁨 등 무궁무진하단다. 부모인의 중재로 올해에는 하느님께 풍성한 결실을 바치게 되었다. 총 400명의 영세자 (외교인 영세자 130명, 교우 자녀 영세자 130, 성인 대세자 14명)와 견진자 500명 고해자 10,000명, 여성채자30,000명, 혼배자 35명, 종부성사 60명이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나는 계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15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네가 너의 아이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 물었기에 내가 한 가지 제안하겠다. 어쩌면 주님과 성모 어머님께서도 네 아이들의 기도에 감동하실지도 모르지. 내가 한 가지 지적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논산 기장(市長)의 개종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기는 하나 철저한 프로테스탄트여서 그가 높은 직위에 있으니 만큼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어떻게 하든 그를 개종시켜야 하며 그렇게만 되면 이곳의 상황도 바뀔 것이다. 너의 아이들에게 이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여라.

옛 교장을 해고시키고 아주 열성적인 새 교장 적분으로 학교는 100퍼센트 달라졌단다. 천주께 감사! 수녀들의 소식은 정말 우울하다. 거처할 곳도, 돈도, 직업도 없이 신경쇠약증세까지 다소 있다. 너무 흑독하게만 보여. 물론 나는 수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성모무염시태 축일에는 그녀들을 위해 미사를 올렸단다. 그녀들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눈물이 나온다. 그 수녀들에게 편지를 쓸 예정이다. 내 동생, 그리고 네 대녀인 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단다. 또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애덕을 쌓는 것만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이다!

성탄절 때에 또 스무 명 정도의 영세자가 나올 것이다.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애정을 전하며 이만 마쳐야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나 조카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들 모두에게 힘껏 답장을 해야겠지.

기도 안에서 함께 있자꾸나. 그리고 논산 시장을 잊지 말아라!

(1948?)9월 27일 저녁, 파리에서

사랑하는 누이에게,

지금쯤 저녁 9시이다. 너는 루르드에 가 있구나. 지금 나는 신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 옆방의 페르제 라가르신부는 바스크 지방 출신인데 내일 아침 너처럼

159

배를 타기 위해 마르세이유항으로 떠난다. 그 신부는 풍디세리(Pondichery)로 간다. 그래서 배 안에서 너에게 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편지를 그에게 맡긴다.

테레사, 내 마음은 어쩔지 울적하구나.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애정과 사랑과 감탄을 이편지에 담아 보낸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용기를 이 편지가 대신 너에게 줘 줄 수 있다면! 떠나거라, 네가 냉제쎄(Nugesser)가(街)의집을 나서며 말했듯이, 네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너의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떠나라.

너의 모든 성행과 내가 주고 간 그 평화에 감사한다.

네게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수녀회는 이제 창설 단계와 교구의 지시를 받는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구나. 이제는 전혀 다른 단계에 들어서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어려움이 뒤따르리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구나.

모든 욕망을 벗어 던졌으니 너는 이제부터 너의 동반자가 될 일본 수녀님들에게 성성(聖性)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순명하고 명령하며 순결하고 다정하며 청빈한 수녀의 본을 보여야 한자. 그리하여 일본 수녀들이 너의 본을 받아 훌륭한 구도자가 된다면 네가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그것이 네 소명인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 나는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구나. 사실 나는 아직도 수녀회의 초창기 단계에 너무 집착한다. 부디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어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하도록 기도드리마.

나의 애정과 또한 안나 마리아, 리제뜨, 마리 클레르 이 모든 이의 애정을 함께 모아 너에게 보낸다. 명랑함을 잃지 말고 즐거운 여행되기를 바란다.

※그 베에는 우리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페루테 신부와 빙르레 신부가 있는데 두 분 모두 인도로 떠난다.

16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Korea 충청남도 논산

가톨릭 교구, 피에르 생제르 1955. 12 28, 논산에서

사랑하는 누이 딸가리다에게,

예수성탄 침례 행사도 드디어 끝이 났구나!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으며 교우들에게 불러 다녔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구래도 가끔 향수에 젖을 때면 혼자서 행복한 순간을 맛보기도 한다. 성탄일에는 작은 나의 성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영성체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 밀에 깔리는 것만 같았다. 12월 한 달 동안만 50명의 영세자가 있었고 (어린이 영세와 대세자들을 제외한 올해의 총 영세자 수는 115명이다), 1,500명 이상에게 고해성사를 주었고 루르드 동굴과 공베르(P.J.Gombert)신부를 기년하는 묘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 본당의 초대 신부이셨던 공베르 신부께서는 76세 때에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치셨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그 분의 유체는 이제 한국 땅의 흙이 되었겠지.

동봉하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동굴을 만들기까지는 한 사연이 담겨 있단다.

3개월 전만해도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지. 이 근방에 군사기지 하나가 있는 그곳에 약 1년 전에 부임해온 한 한국인 대령이 최근에 우환을 당하고 떠나면서 50,000환을 나에게 가져 와서는 성당 내에 성모상을 세워 달라고 했다. 물론 나는 수락할 수밖에. 하지만 그 일을 두고 우리 본당의 간부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체면을 잃은 셈이었지. “외교인이 기부금을 내놓아 성모상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들은 50만환을 목표로 하여 **각출** 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는 둘 한 덩어리를 둘로 쪼개어 공베르 신부 앞으로 작은 기념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은 교우들이 성당을 출입하면서 성모 어머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

161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나는 가끔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 우리 본당의 신자 수만 해도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 시주오카(Shizuoka)의 10내지 20여 곳의 본당 신자수보다 훨씬 많은 편이란다. 그곳의 선교사들에게는 여유가 좀 있겠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할 일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일이 있는 것이 더 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 교우들과 어린이들 속에 묻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 그리고 늘어 가는 것은 걱정뿐이다. 학교도 늘려야 하는데, 교우들로부터는 여학교 하나를 만들고 (생.모르St M떡 수녀님들이 오실 수 없을까?), 또 근방에 소 성당을 최소한 4개는 지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당은 너무 비좁아서 교두들은 말 그대로 짓눌리고, 주일 미사 때마다 상당수의 교우가 성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이고 예비자들은 점점 불어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런지... 올해 영세자 수는 260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30명이 채 못 된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최소한 200명에게 고해성사를 준단다. 나는 도무지 심심할 틈도 없고 하다못해 너에게 편지 쓸 시간마저도 만들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겠지!

성탄일에는 성가대 어린이들에게 성가대복을 입혔고 가슴에는 나무 십자가를 걸어 주었다. 자정미사를 드리기 전에 무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동굴 앞에 모여 묵주의 기도를 드리고 조출한 촛불 행렬을 가졌다. 그 날 밤 영성체자 수는 1,100명은 족히 넘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모 학교에 가서 1,000명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천주교에 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끝까지 주의 깊게 나의 강의를 들었다. 며칠 후에도 두 군데 본당의 회

장들 피정에 가서 강론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세 통계도 작성해야 하고 내 책의 출판도 서둘러야 하고 연말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엔 재의 수요일이 일찍 돌아와서 곧 공소방도 떠나야 할 것 같다.

너와 너의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신년 인사를 전하며 네가 언제나 건강하고 기쁨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나도 일전에 앓았던 좌골 신경통이 다 가셨으니 올해엔 건강이 호전될 것 같다.

16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나의 깊은 사랑을 전하며, 나와 그리고 내 본당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아울러 부디 성모 어머니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가 죽는 날까지 열심일 수 있도록 어머니께 청하여 다오.

미미 앞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동봉한다.

썩제

*편지 한 통 부치는 비용이 이곳에서 미사 한 대의 예물 가치를 갖는단다.

1959년 5월 29일, 논산에서

사랑하는 안느마리와 리제뜨¹⁾

내일이 5월 30일이니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구나. 그러니 자연히 동생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고 나의 형제다운 정을 글로써라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다. 내일 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회해서 연미사를 지낼 때에 너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안느마리아, 너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안느마리와 같지 않구나! 이제 와서 너로부터 글 한 자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너 혹시 어디가 아프니? 내가 너의 마음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프게 한 일이 있지는 않았니? 너의 침묵 때문에 나는 참으로 마음이 불안해진다. 혹시 말끌레르 때문에 네가 슬픔에 잠겨 있는거냐? 다행히도 리제뜨가 보내 준 자세한 편지를 잘 받았어. 마침 끌레르에 대해서 성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참으로 끔찍해.

그것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 끌레르에게도 편지를 쓰지만 그의 주소를 몰라 여리에다 동봉한다.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

163

나야 여전히 건축 일과 엄청난 자금난으로 걱정에 싸여 정신없이 지낸다. 그러나 천주께서 도와구실 것을 희망한다. “라리보” 주교님과 교황 사절께서 추천해 주신 원조 신청서를 로마 교황청으로 보냈다. 현재 새 성당의 뒷부분, 즉 지하실과 그 위에 제의실과 교리실을 신축 중이다. 그러나 기초공사를 제외하고는 성당 본 건물 공사를 조금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단다. 조금이라고 이 공사를 위한 자금이 확보되면 기초 위에 올라갈 4층의 석조 공사와

1) 손아래 동생들.

계단 공사만이라도 할 걱정이다. 현재 일꾼들이 일을 하는 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7월초쯤에는 끝나리라고 본다. 또 다른 걱정은 학교의 일이다. 학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교장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건축공사를 시작해 버렸구나. 선생들의 월급을 지불할 돈이 없는 날에는 교장도 나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지.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내 보좌 신부와 마르탱 신부가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이다. 음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바뀌어지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부한 때문인지 그는 불면증에 걸린 지가 한 달도 더 된다. 지금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신병 환자가 될까 봐 걱정이다. 주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가 한두 달 동안 해변 근처에서 휴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지만 그 동안에 나는 보좌신부 없이 지내야겠지.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아. 정부는 가톨릭신문¹⁾을 폐간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신문이 야당을 지지해 왔던 때문이다.

편지를 보내 줄 때마다 본국 휴가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미 대답한 바와 같이 너희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이곳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일은 사제들이 부족하고 새 예비자들이 몰려들어 가뜩이나 모자란 일손을 더 바쁘게 하여 주교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아는 내가 본국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한다면 난처하신 주교님을 더욱 난처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신축 공사를 시작했으니 우선은 그 일을 끝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그리고 설사 본국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서 고향인

16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해당으로 가지 못하는 것과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비참한 형편에 빠져 있는 마리끄레르를 본다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도 큰 슬픔이 될 테니 차라리 이곳의 걱정과 고민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안느마리. 너는 나에게 겨울용 신 소매의 재복 3벌을 사 줄 수 있겠지? 지금까지 입어 온 것은 다 닳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깃이 없는 6벌의 백색 셔츠를 사 주었으면 고맙겠어. 깃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수단”을 입을 때에 깃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로만칼라의 앞 뒤 단추를 채울 수는 있어야 하겠어. 세탁할 수 있는 셔츠라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입으시던 기다랗고 자락이 있는 것은 싫다.

앞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열리는 것, 소매부리가 넓은 것이면 더 좋겠다. 치수가 필요하지 모르니 가르쳐주마. 허리둘레가 105센티이다. 보다시피 난 좀 뚱뚱하거든, 목둘레는 43센티이다. 또한 빵 칼 한 개와 식탁용 칼 6개를 사 보내 주기 바란다. 우편으로 부쳐 주기 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용인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상표나 가격표 같은 딱지를 떼고 부쳐 주렴.

내년에는 나의 사제서품 25주년이라, 커다란 축하식이 있을 것이며 관습에 따라 가능한 한 소시지, 햄, 포도주 등 프랑스산 식품으로 동료 선교사들을 대접하려고 한다. 푸짐하면서도 준비하기 쉬운 메뉴를 작성하는 일에 조언을 해 주기 바란다.

이브의 결혼식에 너희는 참석했었나? 일이 잘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그가 파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니? 그의 지위는 향상될 전망이 있는 것이니? 파리에서의 그의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마리아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분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을 테지만 그런 소리를 하기만 하면 여전히 화를 내시니? 지금까지도 이태리 공단 근처에 있는

1) 경향신문.

아벨 호브라그¹⁾거리에서 사는지? 너희는 그분을 자주 찾아가 뵙니? 다음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구 모두가 궁금하구나.

165

나는 이번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면, 두 번에 걸쳐 피정 강론을 할 거이다. 한번은 내가 창설한 성가회 수녀들이게 서울에서 할 것이요, 또 한 번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포항에서 할 것이다. 그곳 해변에 위치한 “데랑드” 신부가 창설한 수녀회²⁾에서 하는 것이다. 피정 그 자체는 하나의 휴식 기간과 비슷한 것이지만 힘 드는 것은 그 강론 준비다. 언젠가 서울에 살았을 때 준비해야 했던 피정 강론이 생각나는데 그 준비를 하느라고 머리를 얼마나 짜내야 했는지, 보름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나의 보좌신부처럼 말이다!

이곳에서는 가족이 없는 나지만, 늘 내 주위에 왔다갔다 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보게 되지만 하면 너희는 대단히 놀랄 것이다. 집을 나서기만 하면 나의 “수단”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앉기만 하면 내 어깨 위로 기어 올라오는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잡담을 하러 오는 중학생들을 본다면 너희는 믿어지지 않아서 너희 눈을 의심할 것이다. 정말이지 나에게 지루한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단다.

어제 이곳에서 12키로 떨어진 동네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종부성사를 주러 갔었다. 마침 성체 축일이었는데 그분에게 성체를 모셔 가느라고 혼자서 “성체거동”을 한 셈이다.

너희를 전심으로 포옹하면서 너희가 큰 용기를 가지고 많은 기쁨을 가지기를 바란다.

삐에르 쟁제

166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Korea, 충청남도, 논산

파리 되방전교회, 성 재덕 1960년 11월 15일 논산에서

친애하는 후원자 여러분께

신년을 맞이하여 저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신년인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일사의 근심 걱정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깊은 신앙심으로 애공과 기도로써 당신의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후원회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천주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논산의 외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령 사업을 하도록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 본당 구역의 200,000명을 헤아리는 외교인과 3,200명의 교우들 그리고 학생 수 1,000명이나 되는 3개의 학교를 돌보다 보니 일이 넘칩니다. 물론 저의 교우들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우들이 자신을 완성시킬

1) 파리에 있는 광장과 거리 이름.

2) 포항 성심수녀회(예수성심시녀회)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완성이 당대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심지어 구교도 국가들을 살펴 볼 때 그들은 완전했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선 은총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은총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천주님의 은총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외교인들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주일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공장, 상점, 농민 등(이들은 주로 모여서 일합니다), 모두들 주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주일도 일해 왔던 것입니다.

이곳엔 닳새마다 장이 섭니다. 그래서 장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주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교우들은 사회로부터 동 떨어지는 것이며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또한 신앙이 아직 약한 교우들이 보기에 이는 생계 수단을 잃게 할 뿐인 것입니다.

167

이곳 사람들이 천주교의 규율을 아주 엄격하다고 여기느니 만큼 그 규율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의 생활수준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높습니다만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것입니다. 초라한 집에서 녀마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통신 수단이며, 전기,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논산의 주민은 약 30,000명 됩니다. 저는 극빈자들을 먹이기 위해 미국인들로부터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아 수녀님들이 그것으로 죽을 끓여 2,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만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2,500명! 전 주민의 1할이 염치불구하고 죽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수녀님들이 쉬느라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로 견뎌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설교도 귀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극빈의 상황 속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돌을 던지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 자녀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맹물 몇 모금으로, 혹은 먹지 못하는 과일들로 배를 채우는 그들의 사정을 참작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키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예를 얼마든지 들려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여교우가 길을 가다가 들 것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거의 죽어가는 한 여자를 보고는 그 환자 뒤를 따라 갔습니다. 한 시간을 따라 가며 기회를 엿보다 교우들은 급기야 환자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여교우는 중풍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한 여인에게 6개월 동안 교리를 가르쳐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둘씩 짝을 지어 매주 외교인 집을 방문합니다. 교우들에게 성사를 베풀게 합니다. 천주께서는 분명코 이 선한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168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장 버림받은, 그리고 공산당들과 인접해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은 그들인 만큼 저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이 훌륭한 교우로 성장하여 부족함이 없는 백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저의 심심한 감사와 신년 인사를 함께 전하며,

베에르 쟁제

1964년 9월 12일, 홍산에서

사랑하는 여동생들,

내일은 9월 13일이니 내가 만 54세가 되는 날이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과히 외롭지 않을 게다. 지금 방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림 토막 맞추기 놀이, 나무 조각 맞추기 놀이 등등 끈기를 요하는 놀이를 하고 있기에 그들의 지껄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공의회가 재개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라크로아” (십자가)신문에 발표되는 토의 내용을 그때그때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선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신문 구독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6부 밖에 받지 못했다. 너희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공의회 토의 내용을 보도하는 “라크로아” 신문을 도 달 동안 항공으로 좀 보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해서 매주 한 번씩 6일 간의 신문 전체를 보내 주든지, “공의회 특집”만 보내 주든지 말이다.

며칠 전에 리제뜨가 보내 준 “맷치” 주간지 여러 권은 잘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인데 소포가 꽤 큰 것이었다. 어느 동료 신부님도 그의 누이로부터 같은 주간지 봉지를 가끔 받는데 그 누이는 충천연색 사진이 나오는 그 잡지 중간 부분에 꽃씨나 채소씨와 같은 것이 든 작은 봉지를 풀로 붙여 보내 준단다.

169

이번 주에는 자동차로 인해서 큰 일이 날 뻔했어.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을 넣게 했으나 마계를 죄어 놓지 않은 채 그냥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몇 키로도 못 가서는 엔진의 원심력에 의해 기름이 다 빠져버렸었지. 다행히도 너무 늦기 전에 사정을 알아 차렸지만 엔진은 기름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셋이다. 약50세 된 한 엘리사벳이란 부인이 있는데 그의 임무는 원칙적으로 영세 예비자들과 교우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방문하며, 나의 안살림을 돌보는 것이다. 14살짜리 여자아이는 빨래를 하고 한 엘리사벳의 지도 아래 식사 준비를 한다. 또 역시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불쌍한 언청이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린다. 정원을 손질하고 성당 앞마당을 청소하며 차가 고장 날 때 나를 도와주는 이 아이는 베드로라고 한다.

이제 너희들은 맑은 공기를 가득 들이마신 유익한 휴가를 끝내고 파리의 매우 바쁜 생활로 돌아갔겠구나. 어떻게들 지내는지? 친지들도 다 무고한지?
진심으로 너희를 포옹하면서.

삐에르 쟁제

1966년 3월 18일, 홍산에서.

대단히 사랑하는 여동생들에게.

드디어 안느마리로부터의 편지를 받게 되었구나! “역시에 남을 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몇 가지의 즐거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매우 우울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나는 그런 일을 너무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주교를 모신 후로부터 우리 선교사들의 처지도 그리 순탄 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 “자 이제 나는 56살이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아야 하고, 참고 견디어 보 면은 마침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도

170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고야 말 것이며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도 한다. 요 며칠 전에 장미나무를 절지하다가 오른 손 집게손가락이 가시에 찔렸다.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를 뽑아 내지 못해서, 손가락이 아프기만 하고 부어오르지만 기다리고 참는 것 이외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구나.

나에게는 요새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새로운 이웃으로 브르타뉴지방 출신 “올리비에” 신부가 온 것이다. 이곳은 부여군에 속한 곳인데, 부여 군내에는 홍산, 금사리, 규암 세 개의 본당이 있다. 금사리에도, 강변에 있는 규암에도, 한국인 신부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수 있었던 이 2명의 한국인 신부는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이들의 후임으로 온 “올리비에” 신부가 혼자 2개의 본당을 다 맡게 되었으므로 나는 그이를 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2명의 한국인 신부가 다른 교구로 떠났으며 또 한명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기에, 주교는 가뜩이나 사제수가 부족한 처지에 각 본당으로 신부를 모낼 수 없어 좀 난처해하고 있다. “올리비에” 신부는 어제 홍산으로 왔다. 그 이유는 전임자가 떠나기 전에 그 본당에 들어가 전임자를 환송하는 신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덕분에 밤11시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 점심때쯤 규암 본당 신자들이 “올리비에” 신부를 모시러 왔다.

이제야 나는 불어로 고백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암은 이곳에서 15키로 쯤 떨어진 곳이다. 그리 멀지 않아서 자동차로 2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홍산 본당에 속한 공소는 6개뿐인 반면, “올리비에” 신부는 2개의 본당과 27개의 공소를 맡았다. 그이는 4,000명의 신자와 셀 수 없이 많은 입교 예비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22일부터 29일 아침까지 이곳 소속 공소들을 순회할 예정이다. 물론 주일은 본당에서 지낼 것이다. 3월 30일에는 여기서 80키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몇몇 순교자들의 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낼 것이다.

1866년 3월30일 해변의 작은 모래사장¹⁾에서 “다블뤼” 주교와 2명의 선교사와 2명의 한국인 회장이 참수형을 당했었다. 날씨가 좋으면 그곳에 모이는 삶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교가 이 기념식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을 추진하자고 처음 논의된 곳은 바로 여기다. “다블뤼” 주교는 “아미앵” 부근에서 탄생하여 아미앵 교구장이 된 기 르리에 주교에게 우리가 가지기로 한 기념식에 관한 편지를 보내 드렸다. 그곳에서도 나중에 무엇인가를 좀 하게 될 것 같다. 부활절을 기해서 적어도 10명의 새 영세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6자녀가 있는 어느 한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 아버지는 본당에서 회중 앞에서 성서 낭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전례를 잘 지내려면 똑똑한 독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서자(해설자)가 수준 미달일 때에는 나도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다.

성탄 때쯤 프랑스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요새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감자를 심는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내가 요청한 2개워 소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형제간 사랑의 표시로 너희가 거기에 담아 보내준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된다. 다음번 소포를 보내 줄 때에는 빨간 무씨와 카네이션 꽃씨 등등을 보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주방용 수건 몇 개, 특히 고기를 썰는 칼(전기로 작동하는 것 말고, 수동식의 칼 말이다), 또한 계란의 흰 자위를 휘젓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거품을 일게 하는 도구를 보내 주기 바란다.

요즘 신문에서 보니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 있는 미군 부대들은 프랑스군 사령부의 지휘권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모든 이들이 비난의 소리를 불러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더구나. 그런데 영국에 있는 미군들은 영국군 지휘 하에 있는 줄로 안다. 그렇다면 드골은 프랑스를 영국과 동등하게 대해 주고 프랑스의 자존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을 뿐이지 않느냐. 요전에 드골의 “회상록”(회고록)을 읽어 보았는데 2차 대전 시에 연합군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드골이 들에게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품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 듯싶구나.

172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짜끄의 요구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 보았는데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내가 짜끄와 그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느님도 아시지만 너희는 혼자들이므로 곤란한 처지가 될 경우에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리고 다른 조카들은 다 외면하면서 사람의 조카에게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아마도 이 문제에 “라로즈” 농장을 연결 시켜 보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글썸...그것도 문제인 걸...

만일 연결시킬 경우에 네 유서에 “짜끄의 자녀들은 그 아파트 상속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그들이 그 농장을 서로 분배하면 그만이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사정을 잘 모르는데다가 편지로 그런 문제를 의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구나.

너희 둘을 참으로 사랑하고 너희 둘 모두 기쁘고 편하고 평화로우며 열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쓰겠다. 책을 보내 줄 바에야 성서나 교리를 가르치는 데에 도움이 되

1)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속칭 “갈매뭇” 또는 “고마수영”

는 잘 된 그림을 보내 주어도 좋겠다.

베에르 썩제

1976년 12월 1일, 혼산에서.

사랑하는 안느마리와 엘리사벳.

우리 서로 편지를 교환한 지가 참 오래 되었구나! 그 동안에 너희는 잘 지냈는지? 너희가 지금도 건강학 모든 면에 정정하다고 믿고 싶다. 집안의 많은 식구들과 많은 친척들에게 공동으로 편지를 써 보냈지만 너희들에게는 따로 직접 편지를 써 보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결혼한 결과로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걱정할 것이 있고 이제 나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너희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현재들에게 보낸 공동 편지를 보고 싶거든 그들에게 보여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173

“매치” 잡지 봉치를 가끔 보내 주어서 고맙다. 그것들은 빠짐없이 잘 받았다. 나도 그것을 즐겨 보고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는 몇몇 동료들도 즐거워한다.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는 지금, 선편 우편물들이 도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린다. “라크로아” 신문을 정기구독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에야 지남 8월이나 9월초의 신문 몇 장을 막 받았다. 그러므로 선편으로 소포를 보낼 때에는 그 안에 변질하기 쉬운 식료품과 같은 것을 넣지 말든지 꼭 그런 것을 보내줄 양이면 항공편으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참, 성탄을 맞이해서 무엇을 보내 줄 생각이니? 만약 보내 줄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워터맨” 볼펜용 심을 다시 청하고 싶다. 이 편지에 견본 한 개를 너희들에게 동봉해 보내주마. 주로 검정색과 파랑색을 보내 주었으면 하는데 초록색은 아무 필요도 없으니 보내지 말아라. 지난번에 보내준 것은 만년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에게서 아무 소용도 없었어.

요 며칠 전에 “루앙” 시에서 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미혼녀로부터 내용이 별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사망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역시 미혼인 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41세가 된 그녀는 사립학교 선생이란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리체뜨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너희들에게 비밀을 꼭 지켜 주기를 부탁한다. 무슨 수술인가 받은 그녀는 결혼 한다 해도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2살이나 3살 된 혼혈 여아를 입양하려 한다. 아무리 미혼이라 해도 원칙상 합법적으로 양녀를 입적할 수 없어서, 이 여자는 아무리 여아 입양신청서를 내도 매번 거절만 당해 왔단다. TV에서 한국 고아들에 관한 무슨 이야기를 보고서 한국 여아를 입양해 보려 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낸 그 여자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174 제2부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

나는 그녀에게 그저 편지를 잘 받았노라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1월 초에 확답을 해주마고 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입양 전에는 국제적십자사에서 조

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녀는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바를 잘 몰라서 그녀에게 리제뜨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면서, 리제뜨 “사회복지사업종사원” 이라고 했다. 그녀가 리제뜨에게 편지를 할지 모른다. 하여간 리제뜨야, 너에게 부탁한다. 그녀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비밀스러운 조사를 하고 그녀의 재정 능력과 품행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속히 대답을 해 다오. 좀 급하다. 만일 그녀가 너에게 편지를 할 경우에 너는 판단을 잘 하여 알아서 행동을 하여라. 그녀가 바라는 대로 한국 여아를 입양하게 될 경우에 네가 입양되는 아이의 호송자로 적십자사에 등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로 여기서 하루나 이틀 동안 너를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입양자호송인으로 좀 더 확실하게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두 세 명의 입양자가 더 있어야 좋을 것이다. 어쨌든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준 그녀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다.(생략)

300권의 책을 가진 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적어도 50권의 책을 빌려 갔다가 다음 주일에 그것을 다시 가져 온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성교 활동이다. 만화책과 비슷하게 된 그림이 많고 글이 간당한 성인 전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는데. 방락 동안에 그저 놀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맡긴 만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뽀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금년에도 소신학교에 13살 된 소년을 입학시켰기에 이 작은 본당에도 이제 5명의 소신학생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입학할 학생은 건강이 좋은 애로서 8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이다. 그는 열심히서 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매일 미사에 복사를 해왔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그 학생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 초등학교에는 1,800명의 학생이 있으며 각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그는 자기 반에서 반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교장으로부터 모든 반장들의 총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다. 불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용기장이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류 계층으로 간주된다.

175

파리의방전교회 한국 지부장은 “오를레앙” 교구 출신이며 38세 된 “르네두봉” 신부¹⁾가 선출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원예가이다. 전에 지부장으로 계셨던 “할레르” 신부는 감투를 벗어 버려 보통 신부의 위치로 돌아 가셨다. 요새 그분은 건강이 되었다. 짐작으로는 10년 전에 이미 수술한 암이 재발하여 전신에 퍼져 가는 것만 같다. 어쨌든 혈압이 낮아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안색이 창백하며 또 현기증이 나는 때가 있는 그분은 이제 바깥출입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인근 본당에 계셨던 “베르몽” 신부도 만82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나셨다. 사제들은 속세의 사람들과 반대로 자끄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외로워지는 법이다.

너희를 많이 사랑하는 너희들의 오빠
삐에르 쟁제

1) 안동교구 초대 주교.